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개발

이상아·박지영·이석미·고은새·이원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석미 미래여성커리어협동조합 이사

고은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이원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원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배경적 특성과 현황	7
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개념 및 범위	9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11
3.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16
III.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정책사례	27
1. 해외사례	29
2. 국내사례	43
IV.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및 현장종사자 FGI 조사	73
1. 조사 개요	75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FGI 분석결과	78
3. 지역자활센터 현장종사자 FGI 분석결과	114

V.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안)	149
1. 정책 사례 및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151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 모델	155
3.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근로역량 기반 자활프로세스 모델	168
4.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175
 참고문헌	 177
 부 록	 187
1. SCSEP 초기사정지(SCSEP Initial Assemssment Form)	189
2. SCSEP 과제기술서(Community Service Assignment Form)	193

CONTENTS

표목차

〈표 II-1〉 1분위 연령 분포 변화	17
〈표 II-2〉 1분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변화율	17
〈표 II-3〉 1분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 비중	17
〈표 II-4〉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8
〈표 II-5〉 가구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9
〈표 II-6〉 자활참여자 연령별 1인 가구	20
〈표 II-7〉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 지위	22
〈표 III-1〉 Step2 세미나 주요 내용	35
〈표 III-2〉 Option 과정 주요 내용	36
〈표 III-3〉 Jobactive 중장년(50세 이상) 참여자 비율	37
〈표 III-4〉 Jobactive 프로그램 내용	37
〈표 III-5〉 뉴딜 50+ 지원내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39
〈표 III-6〉 북아일랜드 Job Programmes for over-50s	40
〈표 III-7〉 HRM서클 개요	43
〈표 III-8〉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45
〈표 III-9〉 한국 폴리텍대학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46
〈표 III-10〉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일자리 사업	47
〈표 III-11〉 각 지자체별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8
〈표 III-12〉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	50
〈표 III-13〉 서울시 기술교육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51
〈표 III-14〉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사업	51
〈표 III-15〉 경기도 행복캠퍼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53
〈표 III-16〉 도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54
〈표 III-17〉 50+부산포털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55

〈표 Ⅲ-18〉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56
〈표 Ⅲ-19〉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일자리 지원사업	57
〈표 Ⅲ-20〉 여성가족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59
〈표 Ⅲ-21〉 각 지자체별 1인 가구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1
〈표 Ⅲ-22〉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62
〈표 Ⅲ-23〉 각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사업	63
〈표 Ⅲ-24〉 경기도 중장년 1인 가구 사업	64
〈표 Ⅲ-25〉 경기도 내 시군구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65
〈표 Ⅲ-26〉 전국 지자체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66
〈표 Ⅲ-27〉 기관 연계협력 전략	67
〈표 Ⅲ-28〉 사업담당자 역할	68
〈표 Ⅲ-29〉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68
〈표 Ⅲ-30〉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대상 중장년 1인 가구 우수사례 프로그램	71
〈표 Ⅳ-1〉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일정	76
〈표 Ⅳ-2〉 현장종사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일정	76
〈표 Ⅳ-3〉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FGI 질문지	77
〈표 Ⅳ-4〉 현장종사자 대상 FGI 질문지	78
〈표 Ⅳ-5〉 참여자 인적 특성	79
〈표 Ⅳ-6〉 현장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V-1〉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개별역량 유형	159
〈표 V-2〉 참여자 개별역량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지표	164
〈표 V-3〉 게이트웨이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168
〈표 V-4〉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담당자 역할	171
〈표 V-5〉 게이트웨이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174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방법	6
[그림 II-1] 자활사업 내 중장년 참여자 규모	18
[그림 II-2] 자활사업 내 청장년 1인 가구+독거노인 가구 비중	19
[그림 II-3]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및 추이	20
[그림 II-4] 중장년 1인 가구 성별 현황	21
[그림 II-5]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신용상태	22
[그림 II-6]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주거형태	23
[그림 II-7]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 정도와 질병 여부	23
[그림 II-8]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정도와 심리적 어려움 여부 ...	24
[그림 II-9]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어려움 여부	25
[그림 III-1] SCSEP 진행절차	30
[그림 III-2] 공익재단 법인 동경 일 센터 ‘미들과정’ 운영 절차	34
[그림 III-3] Connect2Affect 자원연계 플랫폼	41
[그림 III-4]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기본 방향	44
[그림 III-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지원체계	49
[그림 III-6] 경기도 행복캠퍼스 초기 입소상담 로드맵	52
[그림 III-7] 경기도 행복캠퍼스 중장년 일자리사업 로드맵	53
[그림 III-8]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재취업지원 사업	56
[그림 III-9]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58
[그림 III-10]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추진체계	62
[그림 V-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모델	163
[그림 V-2]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기능구조	170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20,927천 가구)의 31.7%(6,643천 가구)로 2015년에 비해 27.5%(1,432천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장년(50-59세, 60-69세)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

중장년 1인 가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소득불안정성, 고용 불안정성, 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성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높다는 데에 있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1인 가구가 많으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애주기상 경제적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시기로 여타 계층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구조가 취약했으며, 1인 가구 43/2%는 비취업자로 근로 빈곤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다인 가구보다 어려움에 놓여있다(신민경, 2014; 이현정, 2017).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는 생애주기 상 은퇴로 인해 소득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중장년기의 경제적 위험과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다른 계층보다 경제적인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실업상태인 경우가 많고 고용형태도 비정규, 임시직으로 불안정하며,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민혜, 2020; 박소영 외, 2020). 주거 형태 또한 중장년 1인 가구는 주로 집값이 저렴하고 제조업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월세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민혜, 2020; 반정호, 2014; 성은미 외 2016; 통계청, 2015). 중장년 1인 가구는 경상소득, 재산, 저소득층 비율 보았을 때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특히 경제적인

로 열악하고 빈곤과 위기경험이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며(양복완, 2017; 김도희, 2021), 실증적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 기준 전체 145만 9천여 명 중 101만 2천여 명(69.4%)에 달하며 이 중 중장년의 비중은 여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1인 가구 중장년층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관련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폴리텍 대학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창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년 친화 직장지원사업과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커리어 전환 및 취업, 창업 및 창직 지원, 전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4060 맞춤 재취업 지원 사업과,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편,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용 및 생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경제상황 악화 시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하고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근로의지와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 참여자 비율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년층(35~54세)이 40.3%, 청년층(15~34세)이 10.7%, 고령층(65세 이상)이 6.6%의 순으로 나타나, 복지와 일을 제공하는 자활사업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고용노동부, 2020). 더불어, 고용노동부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중장년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41.9%,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70.1%, 채용박람회를 49.4%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 1인 가구가 자활사업에 꾸준히 유입되는 현시점에서 통합적 저소득층 중장년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적극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 참여자 중 사회, 경제적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자활사업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유입되는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층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의 적극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 성과 중심에서 나아가, 2차 기본계획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들의 정책 요구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저소득 중장년 자활참여자의 현황을 제도와 실태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대상 맞춤형 자활 근로사업단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③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자활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추후 시범 운영 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규모 및 특성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고,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 계층이 가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통계 분석(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추출 2018년 1월 - 2022년 12월)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추가 보완 자료로써,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등을 활용하였다.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대상 맞춤형 자활근로사업단 사례조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중장년 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관련 정책 및 조례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각 부처가 실시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사업들과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자활사업 내 프로그램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중장년 일자리 정책들을 개괄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1인 취약계층 관련 정책사례를 통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에 적용할만한 프로그램을 모색,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 제안을 위한 현장 욕구 조사

- 분석자료 : 지역 현장 조사 자료(참여자 욕구, 현장 실무자 욕구 등)
- 연구방법 : 현장 조사와 인터뷰 실시 및 내용 분석

2) 연구방법

[그림 I-1] 연구방법

주요 내용		방법
제도와 실태 분석	선행연구 개념과 범주에 따른 현황자료 구성	문헌, 통계자료수집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국내외 저소득 중장년 자활사업 모델 사례조사 국내 현장 조사 자료 분석	문헌, 통계자료수집 사례발굴 현장 간담회(5회) 현장(광역/지역), 학계 등
지역현장 욕구조사	참여자 특성별 욕구 조사 센터 유형별 실무자 욕구 조사	FGI(질적 조사 실시) 5회
사업모델 도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 제안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배경적 특성과 현황

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개념 및 범위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3.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II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 배경적 특성과 현황

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개념 및 범위

1) 중장년 1인 가구 개념과 범위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우선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장년”의 개념은 중장년 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상이하나, 보편적으로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아우르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장년 관련 지원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중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중장년층을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연령대로 보았으며, 기타 중장년 고용지원 서비스를 최소 만 4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중장년 관련 조례에 따르면,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생애계층별 사회통계에서도 중장년층을 만 40세에서 64세 사이로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 지자체 중장년 지원기관들은 만 45세 이상 69세 이하로 보기도 한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2000년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1인 가구라는 용어보다는 단독가구, 싱글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단신가구, 홀몸 가구 등 혼인 여부와 관련하여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법적 배우자가 없는 형태에 초점을 맞춘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과거 연구들과 달리 1인 가구의 개념은 혼인 여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 생계에 초점을 맞춰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조에 따르면,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 각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써, 일반 가구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의 개념 안에는 중장년이라는 생애주기적 연령 특징과 1인 가구라는 사회문화적 가족 특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병호(2014)는 나홀로 가구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장년층 1인 가구의 특징을 정의하였는데, 나홀로 가구원은 가구에 혼자 거주하는 형태인 사람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독신인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연령대를 30~49세로 선정한 이유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1인 가구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혼인 이전 단계인 20대와, 사별을 앞둔 단계인 50대 이후를 제외하여 대상자들의 생애주기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중장년 1인 가구 관련 많은 연구들이 통계청의 1인 가구 개념을 토대로 연령기준을 활용하여 그 계층 특성을 범주화하고 있다. 박건·김연재(2016)는 통계청의 1인 가구 정의를 이용하여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인 혼자 살림하는, 독립적으로 취사와 취침,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혼인 관계 여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40~50대를 대상으로 범주화하였다. 박준범 외(2019)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40~59세,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라고 정의하였다. 이하나 외(2019) 역시 통계청의 1인 가구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40~50대 중 세대 유형을 1인 가구로 표기한 대상자를 중년 1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송민혜 외(2020)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개념을 이용하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중 50~64세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장년층 1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까지로 중장년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써, 일반 가구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통계청, 2022)로 정의하여 범주화하였다.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1) 경제적 문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송민혜 외(2020)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했으며, 고용형태도 단순노무직, 저임금 상태였고 비고용인 상태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는 특히 노후준비도 미흡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반정호(2014)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월세가구에 사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중장년 남성은 고용불안이나 비취업 상태에 시달리는 취업 취약계층이었고, 여성 또한 임시일용직과 비취업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2020)의 연구에서 역시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형태의 경우도 임시직, 일용직,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홍 외, 2015; 김은정, 2018; 박소영, 2020). 서은미 외(2016)는 저소득 1인 생활인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에서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분석 결과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주로 집값이 저렴하고 제조업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증명하였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복완(2017)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 분석에서 45세~65세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경상소득, 재산, 저소득층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빈곤과 위기경험이 높아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강은나·이민홍(2015)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징은 미혼과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이 높고 취업률 또한 낮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증명하였다.

이들에 대한 재무특성 관련 연구에서 이현정(2017)은 비노년층 및 노년층의 비혼 1인 가구 자산포트폴리오 관련 연구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구조가 취약했으며, 특히 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한 상태였고 무주택인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증명했다. 신민경(2014)은 1인 가구 재무구조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취업상태는 매우 중요하나 근로 빈곤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43.2%는

비취업자로 일자리 관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1인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로 김도희(2021)는 중장년층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일자리 불안으로 인한 결혼 포기과 경제적 이유로 가족이 해체된 것이 1인 가구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명시하였다.

반면,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박건·김연재(2016)는 서울 1인 가구 40-50대 여성의 생활실태 관련 연구에서 중장년 여성 1인 가구는 빈곤계층이 전체 수급자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특히 이혼, 사별을 한 1인 가구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1인 가구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임금은 낮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지원이 시급함을 조명하였다. 김종숙 외(2014) 또한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취약하여 구직 활동 참여는 낮으나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 고용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제적 문제에 주목한 해외 연구로 Demey 외(2013)는 영국 중장년기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장년초기(35-64세), 장년 중기(45-54세), 장년 후기(55-64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실업률과 임대주택 거주율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 낮았으며, 이러한 특성은 남성의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성은 중-후기 대비 초기 장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초기 장년기 여성에게 아동양육과 가사가 집중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Lin&Brown(2012)의 연구에서는 사별 및 결혼 경험이 없는 미국의 중장년 1인가구의 경제적으로 취약성을 임금, 학력, 건강보험 가입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장년 후기보다 초기에 1인 가구화 경향이 더 높다는 점을 밝혀 초기 장년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Lin&Brown, 2012). Kalmijin(2011)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거주형태와 혼인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저소득에 고용이 불안하고, 일경험이 부족하며, 학력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일수록 1인 가구 비율과 미혼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정서·심리적 문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서 및 심리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보민·이기영(2020)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비교하였는데, 중년 1인 저소득층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요인 파악 결과, 개인체계로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로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낮을 경우 우울이 높았고, 지역사회체계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고 사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미 외(2016)도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우울감이 높고, 특히, 이들 중 비자발적으로 사별,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가 됐을 경우 상실감이 커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가 필요하나 저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조명했다. 박소영 외(2020)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타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비율이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이민홍 외, 2015; 김은정, 2018; 박소영 외, 2020).

특히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중에서도 남성의 정서 및 심리 문제를 중요하게 본 연구들이 많았다. 권혁철·김형용(2017)의 연구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이 다인 가구의 가구원과 비교하였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고 밝혔다. 강나연, 정복미(2018)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교하여 우울증, 음주율, 흡연율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우울증 진단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아(2019)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자살률과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나·이민홍(2015) 또한 중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정신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이 주요 특징임을 밝혔으며, 박건, 김연재(2016)은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가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편임을 주장했다.

김영택 외(2010)의 연구에서는 특히 남성이 주변과의 교류가 적고 우울증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여성보다 우울증 진단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자살률 또한 남성이 높은 것을 발견했다. 김솔지(2019)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적인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장년기의 주된 정서가 외로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실감을 경험하며 외로움이 증폭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주

장했다(Brummett et al., 2001; 엄인숙, 2006; 박소영 외, 2020).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서·심리적 특성을 다룬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emey 외(2014)는 영국의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별 경험(이혼, 파혼 포함)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파트너와의 이별 횟수·이별 후 기간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별 후 1년 동안 여성의 정신건강은 남성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에서 파트너십 해체의 경험은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Sthal 외(2017)의 연구에서는 이웃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이웃의 ‘사회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인 가구의 이웃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이웃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요인인 사회적 질(social quality)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Shaw 외(2021)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거주 형태, 외로움, 정서적 지원의 부재가 자살과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중장년 남성의 독거, 주관적 외로움, 정서적 지원 부재 모두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여성의 경우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것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독거와 배우자 외 사람과의 거주가 불안과 우울장애 발병률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Joutsenniemi et al., 2006). 자해행동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주관적 외로움과 정서적 지원이 위험요인이었으나, 독거여부와 자해 행동 간의 관계는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거주형태, 즉 파트너와의 동거여부가 남성의 자살이나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독 더 큰 이유로 전통적 남성성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 ‘인지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 somness)’의 자살 동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haw et al., 2021; Scourfield et al., 2012; Van Orden et al., 2010).

3) 사회적 문제

저소득 중장년 사회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준범 외(2021)은 중장년 1인 가구 중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어있는 수준이 심각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퇴직 후 급격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고립상태에 빠지게 됨을 강조하였다. 송민혜 외(2021)는 중장년 1인 가구는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빈곤과 함께 고립의 문제에 당면하여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사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임을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은 곧 노년기에 접어드는 생애전환기이기 때문에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영 외(2020)는 중장년 1인 가구 중 특히 남성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배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외로움에 대한 정서가 주된 정서이기 때문에(엄인숙, 2006)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이 심화되고 고립의 문제가 발생함을 주장했다. 특히, 중장년 1인 남성에게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개선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보민·이기영(2020)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비저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발견하여,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저소득층에게는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호(2014)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참여 빈도가 다자구에 비해 8% 낮으며,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사회참여 격차는 더 높아졌으며, 1인 가구 내에서도 이혼하고 학력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건·김연재(2016)는 중장년 1인 가구의 1인 가구 유인이 대부분 이혼과 사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더 취약함을 주장하였다. 김혜정(2015)은 30~50대의 비혼 여성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지지체계 모두 미약하며,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나 대화상대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문제가 심각함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김도희(2021)는 최근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40~50대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과 같이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과 사회적관계의 회복과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권혁철·김형용(2017)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점수가 낮아, 다인 가구에 비해 축소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영국의 사회적 배제 대책실(Social Exclusion Unit)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배제를 7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와 시민 활동(civic activities)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깊고,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사회적 배제의 주요 위험요인은 함께 사는 자녀가 없는 것, 고연령, 유색인종, 나쁜 건강, 저소득, 이동수단 및 통화수단의 부재 등으로 밝혀졌다(Barnes et al., 2007). Hill 외(2009)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중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18개 국가 간 국가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독거 자체가 사회 및 가족체계로부터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낮은 사회적 지위, 낮은 소득, 자녀의 부재, 낮은 건강수준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시키는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가족중심 문화가 강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친족 간의 유대가, 그 외 국가에서는 비친족간 유대가 부족할수록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대책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1)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층 규모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는, 새로운 취약층으로 ① 중년층, ② 1인 가구, ③ 자영업자 1분위 진입 증가를 꼽고 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5-49세 연령층 비중은 +2.4%p 증가하였고, 50-64세 연령층 비중 역시 +2.4%p 증가하였다.

〈표 II-1〉 1분위 연령 분포 변화

구분	평균 연령	65세 이상	50~64세	35~49세	34세 이하
'19.1분기	60.2세	45.3%	28.9%	15.6%	10.2%
'20.1분기	59.8세	45.2%	26.9%	18.0%	9.9%
변동	△0.4세	△0.1%p	△2.0%p	+2.4%p	△0.3%p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장년층 근로소득은 10.9% 하락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38.4% 급증하였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장년층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1분위 내의 전 연령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신중년(50~64세)에서의 증가폭(+1.5%p)이 가장 큰 상황이다.

〈표 II-2〉 1분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변화율

(단위: %)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 변화율('19년대비 '20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비지출
34세 이하	4.8	24.5	△39.2	△97.2	30.0	△22.6	6.3
35~49세	△4.1	△10.9	2.8	△17.7	38.4	△14.4	△10.3
50~64세	△6.7	△18.6	13.7	△66.2	11.8	△18.4	△15.0
65세 이상	1.0	9.7	10.5	△17.9	4.7	△10.9	△4.8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표 II-3〉 1분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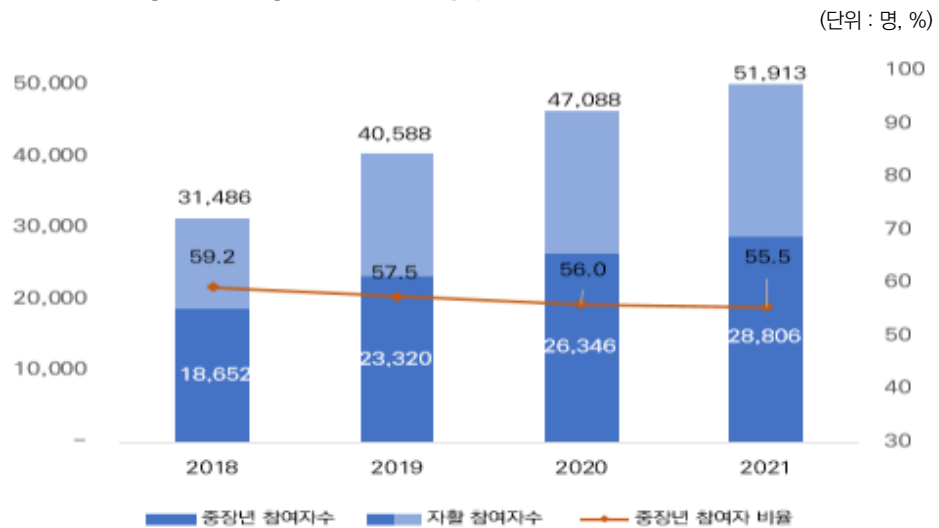
(단위: %)

1분위 연령/가구수별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1인 가구	2인가 구	3인가 구	4인가 구	5인가 구 이상	1인 가구	2인가 구	3인가 구	4인가 구	5인가 구 이상
34세 이하	7.2	1.4	0.8	0.6	0.1	7.4	1.1	0.7	0.5	0.3
35~49세	5.5	2.0	3.0	3.1	1.9	6.3	2.4	3.3	4.4	1.7
50~64세	10.2	10.8	5.7	2.2	0.1	11.7	9.1	3.8	1.9	0.4
65세 이상	21.4	20.5	2.7	0.5	0.2	21.8	20.5	2.5	0.4	0.1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그렇다면, 중장년 1인 가구¹⁾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어떠한가? 전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자활참여자 중 중장년(40-60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40-49세는 2018년에 6,898명에서 2021년 10,000명으로 증가하여 신중년층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II-1] 자활사업 내 중장년 참여자 규모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표 II-4〉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29세이하	2,214	7.0	3,695	9.1	4,525	9.6	4,663	9.0
30-39세	2,506	8.0	3,407	8.4	3,736	7.9	3,964	7.6
40-49세	6,898	21.9	8,436	20.8	9,397	20.0	10,000	19.3
50-59세	11,754	37.3	14,884	36.7	16,949	36.0	18,806	36.2
60세이상	8,114	25.8	10,166	25.0	12,481	26.5	14,480	27.9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1)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계획으로 관련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중장년 지원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중장년 일자리나 재취업 분야의 연구들(윤미, 2021, 송민혜 외, 2020, 변미리 외, 2019)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 40세~60세 미만까지로 중장년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써, 일반 가구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통계청, 2022)로써 자활정보시스템에 초기정보에서 세대유형을 독신가구와 가구특성으로 청장년 1인 가구로 기초정보를 표기한 경우를 1인 가구로 정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청장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비중은 2018년 37.2%에서 2021년 46.3%로 약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자활사업 내 청장년 1인 가구+독거노인 가구 비중



〈표 II-5〉 가구유형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총계	31,486	100	40,588	100	47,088	100	51,913	100
청장년 1인 가구	11,273	35.8	17,143	42.2	20,804	44.2	23,551	45.4
독거노인	427	1.4	483	1.2	487	1	493	0.9
한부모가구	7,044	22.4	9,448	23.3	10,533	22.4	11,340	21.8
조손가구	152	0.5	240	0.6	274	0.6	274	0.5
장애인가구	140	0.4	177	0.4	182	0.4	190	0.4
새터민가구	60	0.2	68	0.2	77	0.2	64	0.1
부부중심가구	4,549	14.4	5,884	14.5	6,457	13.7	6,545	12.6
미혼모부가구	106	0.3	135	0.3	171	0.4	161	0.3
다문화가구	285	0.9	375	0.9	453	1	458	0.9
노인부부가구	61	0.2	70	0.2	83	0.2	91	0.2
공동체가구	245	0.8	355	0.9	419	0.9	453	0.9
기타	1,533	4.9	1,955	4.8	2,237	4.8	2,473	4.8
무응답	5,611	17.8	4,255	10.5	4,911	10.4	5,820	11.2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율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40-49세 자활 사업 참여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4.2%, 50-59세 자활사업 참여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41.9%이었던 것에 반해 2021년 40-49세 참여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34.4%, 50-59세 자활사업 참여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51.4%로 약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 자활사업 참여자 4명 중 약 2명이 1인 가구인 것을 보여준다.

[그림 II-3]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및 추이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표 II-6〉 자활참여자 연령별 1인 가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1인 가구		기타		1인 가구		기타		1인 가구		기타		1인 가구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11,700	37.2	19,786	62.8	17,626	43.4	22,962	56.6	21,291	45.2	25,797	54.8	24,044	46.3	27,869	53.7
29세 이하	287	13	1,927	87	600	16.2	3,095	83.8	785	17.3	3,740	82.7	770	16.5	3,893	83.5
30-39세	486	19.4	2,020	80.6	821	24.1	2,586	75.9	1,006	26.9	2,730	73.1	1,042	26.3	2,922	73.7
40-49세	1,671	24.2	5,227	75.8	2,640	31.3	5,796	68.7	3,162	33.6	6,235	66.4	3,442	34.4	6,558	65.6
50-59세	4,921	41.9	6,833	58.1	7,350	49.4	7,534	50.6	8,561	50.5	8,388	49.5	9,671	51.4	9,135	48.6
60세 이상	4,335	53.4	3,779	46.6	6,215	61.1	3,951	38.9	7,777	62.3	4,704	37.7	9,119	63	5,361	37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중·장년 참여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녀 참여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 참여자 비율이 여성 대비 3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 등이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 자활사업 참여자 중 남성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 II-4] 중장년 1인 가구 성별 현황

(단위 : 명)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2)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우선, 경제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 지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조건부 수급자는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중 57.2%로 2018년 대비 +1.7%p 증가하였고, 일반 수급자는 20.2%로 2018년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유입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 기준 10.5%로 2018년 대비 -5.7%p 감소하였다.

〈표 II-7〉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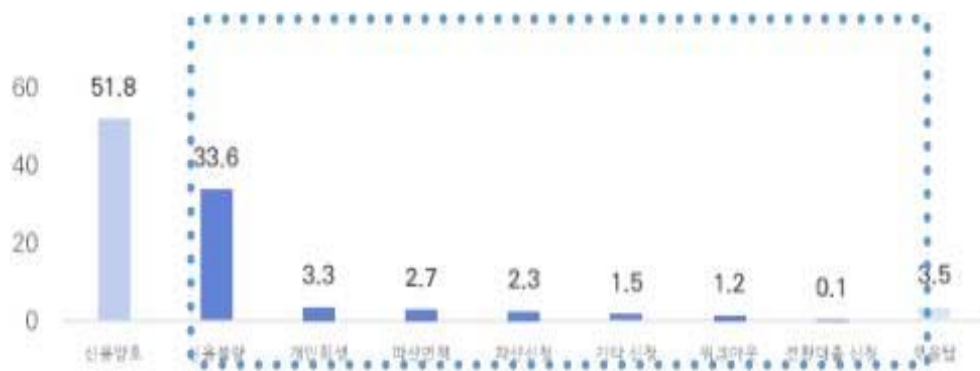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조건부 수급자	3,661	55.5	5,764	57.7	6,528	55.7	7,505	57.2
일반 수급자	1,120	17.0	1,780	17.8	2,279	19.4	2,650	20.2
차상위	1,066	16.2	1,419	14.2	1,572	13.4	1,381	10.5
자활특례	7,38	11.2	1,020	10.2	1,338	11.4	1,568	12
시설수급자	7	0.1	7	0.1	6	0.1	8	0.1

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중장년 1인 가구 중 신용불량 등 신용상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진입한 자활참여자는 중장년 1인 가구 중 44.7%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가구원이 있는 참여자의 신용상태가 문제가 있는 비율이 28.0%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II-5]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신용상태

(단위: %)



자료: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한편,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기타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19.8%, 원룸이 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으로 주거안정도를 확인한 결과, 1년 이내에 이주가 필요한 경우가 19.7%, 당장 이주가 필요한 경우도 7.7%로 나타났다.

[그림 II-6]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주거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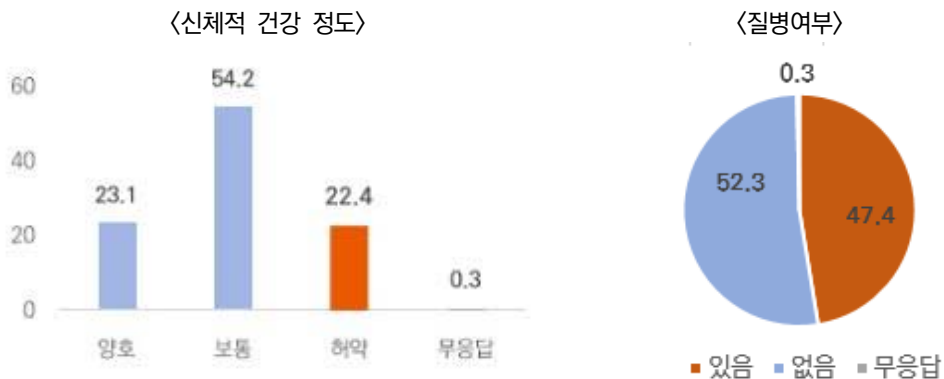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다음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본인이 느끼는 신체적 건강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신체적 건강 정도가 허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더불어 질병 여부 역시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5개 정도의 질병명을 분석한 결과, 당뇨와 디스크, 고혈압, 고관절 질환 등으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참여자의 음주 문제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음주로 인한 상담 및 치료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동일한 중장년층 중 치료경험이 1.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음주 수 역시 중장년 1인 가구 평균이 주당 2.2회로 동일한 중장년층이 1.9회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 정도와 질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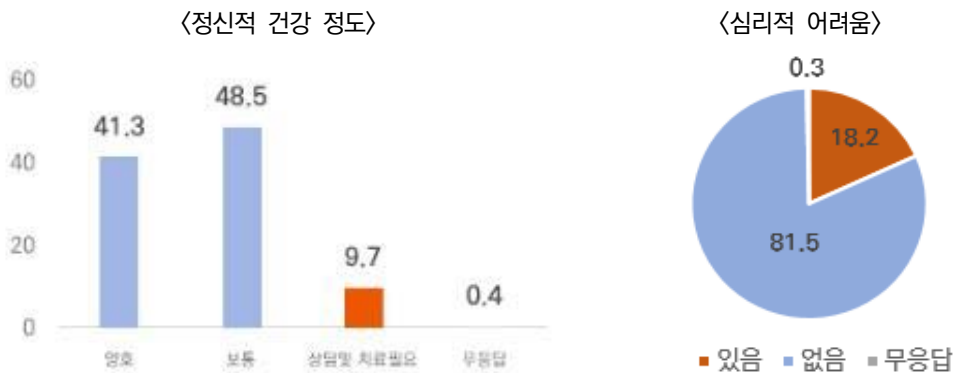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건강 정도를 분석한 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중장년층이 5.7%로 나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심리적 어려움 여부 역시 18.2%가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증상으로 우울증, 불면증, 신경증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중 74.9%가 심리건강 상담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정도와 심리적 어려움 여부
(단위 : %)



자료: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마지막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시 애로사항에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갈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로 인해 자활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로 인해 자활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4.3%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집단이 사회관계로 인해 자활사례관리가 필요한 비율이 3.2%로 나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9]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어려움 여부
(단위 : %)



자료: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정책 사례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III

저소득 중장년 《 1인 가구 정책 사례

1. 해외사례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장년이라는 두가지 특성이 지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중장년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대해 초점을 맞춰 사례를 정리하였고, 사업의 긍정적 측면들을 중점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저소득 중장년 일자리 프로그램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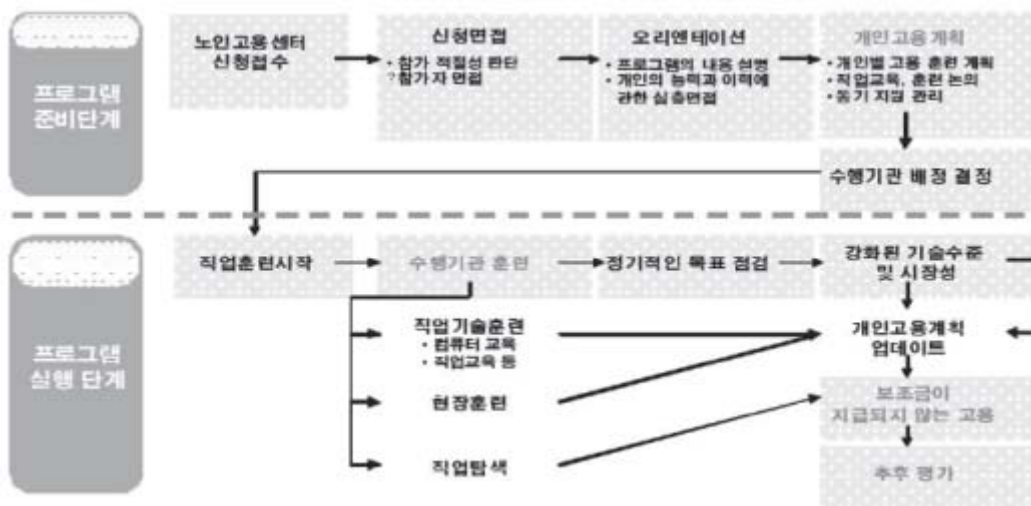
(1) SCSEP :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미국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개인의 책임과 자활을 중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박정우, 2019). 대표적으로 SCSEP는 중장년 저소득 노동자들의 중고령기 안정적 소득 유지 및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work-based training program)으로, 빈곤선 125% 이하 소득을 얻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965년부터 실시되었다(여혜수, 2021; 황덕순, 2005). 2022년 기준 연방예산 약 4억 5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총 56,050여 명의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과 수행은 주/지역정부 및

비영리기구(국가지원단체 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CSEOA, 2022). SCSEP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고령 노동자에게 시간제 지역사회 일자리(또는 봉사경험)를 제공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둘째,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활 역량을 증진시키며, 셋째, 공공 또는 민간 섹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Mikelson, 2017).

SCSEP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에 배정되어 아기돌보미, 고객센터, 보조교사 등의 직종에서의 일할 수 있고, 최대 주 20 시간의 근로를 하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때, 1개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27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수혜 기간 최대 48개월 이후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영구적인 직업을 탐색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VANTAGE, 2018; 민상기 외, 2015). SCSE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자활사업과 유사한 진행절차 가진다.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III-1] SCSEP 진행절차



자료 : 이지연(2017). 미국의 고령자 복지 법제 및 프로그램

가. 초기 사정 및 자격 심사 단계(Initial Assessment and Eligibility Determination)

초기 사정 및 자격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근로 경험, 흥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고용에 대한 의지와 역량, 가구원 및 소득정보 등을 파악하는 면접을 진행하며, 신청자의 참가 자격은 오리엔테이션 세션 이전 심사관(Verifier)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의지 및 역량 심사는 교육(기초 능력), 직업유지, 직업준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초능력 파악을 위해서는 학위 및 검정고시(GED) 자격증 보유여부, 영어 회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직장,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문해력 및 문제해결 능력 보유 여부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한편, 직업유지능력은 지난 1년간 고용주가 있는 직장에서 90일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험 여부, 해고 경험, 과거 수퍼바이저 및 동료와의 갈등 경험, 약물·정신건강·행동 문제로 인해 고용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심사한다. 직업준비 역량 및 의지의 경우 자택에 컴퓨터 또는 프린터 보유 여부, 컴퓨터 사용 능력, 인터넷 연결 여부, 이메일주소 보유 여부, 보이스메일 핸드폰 보유 여부, 이력서 및 커버레터 보유 여부, 지난 몇 년간의 구직경험 여부, 지난 10년간 불완전고용 경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한다.

나. 오리엔테이션 단계(Orientation/Intake)

신청자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가 확인되어 참가자격이 주어진 후에는 지역사업 담당자(Local Project Director)와 개인 고용계획(IEP: Individual Employment Plan) 수립을 위한 심층 면담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훈련과 과제 수행을 위한 각각의 활동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이 수립과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는 고용으로 연계까지의 계획이 수립고, 참가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목표와 기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책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진행된다.

다. 개인 고용 계획 단계 (IEP: Individual Employment Plan)

개인 고용 계획(IEP)의 수립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IEP는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수행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IEP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는 현재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Attainable), 현실성 있고(Realistic), 시기적절해야(Timely) 하

는 SMART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IEP에서 참여자는 직업훈련이나 검정 고시 준비, 컴퓨터 훈련과 같이 과제가 동반되는 “수업형” 훈련과정에 대한 니즈를 제시해야 하며, 각 과정 및 훈련기회의 제공은 지역의 자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IEP를 따르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정정 조치가 취해지며 지속적으로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라. 직업훈련 수행기관 배정 (Assignment to Work-Training Host Agency)

오리엔테이션과 IEP 수립이 완료되면, 수행기관(Host Agency) 배정을 위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이는, 향후 참여자가 희망하는 시장형 일자리의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관을 찾는 과정이다. 참여자의 능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SCSEP 사업관리자는 기관 배정 이전에 참여자에게 사전과제(pre-assignment)를 부여하여 향후 수행기관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마. 수행기관 직업 훈련 (Host Agency Work-Training Site)

수행기관 직업훈련은 SCSEP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참여자는 다양한 기관(지역사회 기반 기관,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배운다. 참가자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직업훈련 관리자와 사업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직장환경’이 조성된 수행기관에서의 훈련과 피드백의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참여자의 성공을 도모한다.

바. 직업훈련 과제 기술서 작성 (Work-Training Assignment Description: WTAD)

참여자 and 사업관리자는 IEP 이행을 위한 개별 과제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직업훈련기술서에는 수행기관정보와 훈련시간, 과제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기재한다.

참가자는 주 약 18시간~23시간의 직업훈련 활동을 하며, 훈련 시간은 주당 3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 시간은 참여자 본인과 프로젝트 스태프, 수행기관 수퍼바이저가 함께 상의하여 정하고 과제 기술서에 기재하며, 지정된 직업훈련 활동 시간에 만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실제 직장환경에서의 훈련을 포함하여 컴퓨터 수업, 분기별 모임 등이 될 수 있고, IEP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자의 승인하에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다.

사. 평가/모니터링 (Evaluation/Monitoring)

평가/모니터링 단계는 SCSEP 프로그램의 성과와 교육의 만족도, 그리고 시장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해 어떤 부가적인 자원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과정이다. 참여자와 수행기관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성공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IEP 수정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수행기관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용으로 연계 (Unsubsidized Employment)

SCSEP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단계로, 취업처는 기존의 훈련기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일자리는 SCSEP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시장형 일자리로의 취업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다.

자. 사후관리 및 성과 관리 (Follow-up)

취업 후 직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돕는 것 또한 프로그램 요소로서, 이를 위해 사업관리자 또는 관리보조인은 참여자의 취업 이후 최대 15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직장생활 및 소득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직장생활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고용기회를 지원하거나 사업관리자-참여자-고용주 간 3자 면담을 하는 등의 추가지원 또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VANTAGE, 2018).

SCSEP 프로그램의 성과는 연방정부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행정국(ETA: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총 제공시간, 취업률, 고용유지율, 6개월간 평균소득, 프로그램 참여자 수, 우선순위 지원자수 등의 핵심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와 수행기관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Kogan et al., 2012;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

2) 일본

(1) 공익재단 법인 동경 일 센터

공익재단 법인 동경일 센터는 도 산하 공익재단 법인으로, 연령 그룹별(청년(34세 이하), 미들(30-54세), 시니어(55세 이상))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미들과정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과정 내용은 ‘종합상담→ Step1(상담, 조언)→ Step2(기술습득 및 기능훈련), Option(대상자별 특별 지원메뉴)→ Step3(직업 소개)’로 구성된다.

미들과정은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개별 상담과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Step2와 Option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데, Step2 과정에서는 취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후 Option 단계에서는 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I-2] 공익재단 법인 동경 일 센터 ‘미들과정’ 운영 절차



자료 :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Step2 과정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유형은 크게 준비, 서류, 면접, 구인으로 구분된다. 준비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인 구직활동 시작에 앞서 본인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취직성공 포인트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서류 세미나에서는 구직서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학습하며, 면접세미나에서는 면접방법 학습 및 실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 구인세미나에서는 구직정보 탐색 및 지원방법을 학습한다. Step2 세미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 Step2 세미나 주요 내용

종류	세미나명	정원	주요내용
준비	취직성공 포인트	50	1. 취직활동 시작에 앞서 '마음자세'를 알 2. 자기이해로부터 취직 목표, 방향을 찾는 희망취업조건순위 결정
서류	응모서류 작성포인트	50	1. 응모서류(이력서, 직무경력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 포인트 학습
면접	면접포인트	50	1. 면접의 목적이 무엇인지 준비의 필요성을 알 2.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
	면접대응력 업	20	1. 면접 포인트 세미나에서 배운 포인트를 실제로 해봄 2. 면접 실천실습(역할놀이)
구인	구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 법	50	1. 구인정보의 종류와 구체적인 탐색방법이나 구인정보의 체크포인트, 응모방법을 배움 2. 잠재구인으로서의 응모방법을 알

자료 :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Option 단계는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크게 7가지 프로그램 (전직활동지원 토요세미나, 자유헌동 지원, 취할 리스타트 세미나, 취할 익스프레스, 동경 일 학원, 커리어 개발 지원 프로그램, 커리어 체인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직활동 토요세미나는 이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Step2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직 정보 탐색, 서류작성, 면접, 입사에 이르는 구직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유헌동 지원 세미나에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지원한다. 취할리스타트 세미나는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또는 퇴직 후 미들과정에 등록한 지 180일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미나이며, 취직에 대한 동기부여, 발상 전환, 이직 및 퇴직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1일 6시간 운영되는 1회성 프로그램이다.

취할 익스프레스는 30세 이상 44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 프로그램이며, 직업 코디네이터가 6개월 동안 함께 일을 찾아주고 5일에 걸쳐 직업 탐색 및 면접능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체인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대상에게 직장체험 및 견학회, 인생설계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표 III-2〉 Option 과정 주요 내용

세미나명	대상자	내용																			
전직활동지원 토요세미나	재직자 대상	재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함. 이직방법을 안내하고 월 1회 3시간으로 운영 ① 취직활동스텝 ② 구직검색과 응모 ③ 응모서류 작성팁 ④ 면접포인트 ⑤ 입사																			
자율활동 지원	그룹워크를 통한 조기재취직을 희망하는 자	취직 및 입사후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익히는 프로그램. 4일간에 걸쳐 총 15시간으로 운영																			
취할리스타트 세미나	이직 후, 또는 미들 코너에 등록후 180일 이상 경과한 자	취직에 대한 동기부여 또는 발상전환, 이직, 퇴직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1일 6시간 운영																			
취할 익스프레스	30세 이상 44세 이하	구직자가 자신의 장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살려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잡 코디네이터(잡코디네이터 1인당 대상자 수 30명)가 6개월간 함께 일을 찾아줌. 세미나 기간은 5일에 걸쳐 적합한 직업 탐색 과정과 면접력 양성과정으로 구성																			
		<table><tr><th>기간</th><th>적직탐색</th><th>면접력 양성</th></tr><tr><td>1일</td><td>자신의 장점 찾기</td><td>나의 커리어 스토리</td></tr><tr><td>2일</td><td>애니아그램으로 적직 찾기</td><td>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서류작성법</td></tr><tr><td>3일</td><td>응모서류로 자기표현</td><td>기업 요구와 면접 롤플레이팅</td></tr><tr><td>4일</td><td>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요구 알기</td><td>기업방문과 프레젠테이션</td></tr><tr><td>5일</td><td>취직활동 계획 세우기</td><td>활동 계획과 커리어 구축</td></tr></table>	기간	적직탐색	면접력 양성	1일	자신의 장점 찾기	나의 커리어 스토리	2일	애니아그램으로 적직 찾기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서류작성법	3일	응모서류로 자기표현	기업 요구와 면접 롤플레이팅	4일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요구 알기	기업방문과 프레젠테이션	5일	취직활동 계획 세우기	활동 계획과 커리어 구축	
기간		적직탐색	면접력 양성																		
1일		자신의 장점 찾기	나의 커리어 스토리																		
2일		애니아그램으로 적직 찾기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서류작성법																		
3일		응모서류로 자기표현	기업 요구와 면접 롤플레이팅																		
4일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요구 알기	기업방문과 프레젠테이션																		
5일	취직활동 계획 세우기	활동 계획과 커리어 구축																			
	세미나 수료자의 80% 가량이 취업																				
동경 일 학원	동경도 산업노동국 고용취업부의 정무원 취직 프로그램																				
커리어 개발 지원 프로그램	스스로 career design을 한 후에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고, 3일간의 직업 체험 후 본인이 마음에 들면, 약 6개월간의 직업훈련을 받음(월 10만원 지급)																				
커리어 체인지 지원 프로그램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 중심																				
	<table><tr><th>기간</th><th>시간</th><th>명칭</th><th>내용</th></tr><tr><td>3일간</td><td>5시간</td><td>인생설계·커리어 체인지 세미나</td><td>커리어, 경제, 건강 플랜을 포함한 인생 플랜을 뒤돌아보고, 장래의 이미지를 계획</td></tr><tr><td>1일간</td><td>5시간</td><td>직종이해 견학회</td><td>직장 견학을 통해 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갖도록 함</td></tr><tr><td>1일간</td><td>3시간</td><td>합동기업설명회</td><td>취직을 목적으로한 합동기업설명회</td></tr><tr><td>5일간</td><td>5시간</td><td>직장체험</td><td>실제 직장을 체험함으로써 취직을 할 수 있을지 확인</td></tr></table>	기간	시간	명칭	내용	3일간	5시간	인생설계·커리어 체인지 세미나	커리어, 경제, 건강 플랜을 포함한 인생 플랜을 뒤돌아보고, 장래의 이미지를 계획	1일간	5시간	직종이해 견학회	직장 견학을 통해 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갖도록 함	1일간	3시간	합동기업설명회	취직을 목적으로한 합동기업설명회	5일간	5시간	직장체험	실제 직장을 체험함으로써 취직을 할 수 있을지 확인
	기간	시간	명칭	내용																	
	3일간	5시간	인생설계·커리어 체인지 세미나	커리어, 경제, 건강 플랜을 포함한 인생 플랜을 뒤돌아보고, 장래의 이미지를 계획																	
	1일간	5시간	직종이해 견학회	직장 견학을 통해 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갖도록 함																	
1일간	3시간	합동기업설명회	취직을 목적으로한 합동기업설명회																		
5일간	5시간	직장체험	실제 직장을 체험함으로써 취직을 할 수 있을지 확인																		

자료 :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3) 호주

(1) Jobactive 프로그램

호주는 최근 고용·복지 연계와 상호의무를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2015년 기존의 고용지원 서비스인 'Job Service Australia'가 'Jobactive'로 전환되어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사회부조 및 급여에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천영민 외, 2016). Jobactive의 지원대상은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등의 각종 정부 보조 급여의 수급자로,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서비스는 아니지만, 지난 8년간 50세 이상 중고령자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만족도 및 장기고용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 모델의 참고 사례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I-3〉 Jobactive 중장년(50세 이상) 참여자 비율

Placement Description	2015	2022
Mature Age (50+) Caseload	183,251	258,081
% of Total jobactive Caseload	24.1%	29.8%
Total jobactive Caseload	760,584	846,140

자료 : Australia Government Labour Market Insight(2020). 홈페이지 자료

Jobactive 서비스는 크게 5개 영역(구직지원, 창업인센티브지원, 공공근로, 농촌일자리 지원, 농촌일자리 정보제공서비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주 전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내방하거나, 웹사이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표 III-4〉 Jobactive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구직서비스(Jobactive)	- 일자리 찾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지원 - 지역 맞춤 일자리 소개 및 직업훈련 제공 - 취업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 지원
창업인센티브 지원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NEIS)	- 구직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3주간 창업 교육과정 제공 - 최대 52주까지 개별 창업 멘토링 서비스 지원 - 관련 업종 근로를 조건으로 최대 30주 창업지원금 지원 - 최대 26주 렌트보조금 지원

구분	내용
공공근로(직장체험)(Work for the Dole)	- 장기실업자에게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원봉사, 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18세~29세는 주당 25시간, 30세는 주당 15시간씩 6개월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를 가짐
농촌 일자리 지원	- 주요 농업지역에 임금보조를 받고있는 수급자 고용시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농촌 일자리 정보제공	- 국가 농촌일자리 가이드(National Harvest Guide) 배포 및 유선상담

자료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2017). 홈페이지 자료

(2) Men's Shed 프로그램

Men's Shed Program은 중장년층 취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 사회적 관계, 기술습득 등의 영역에서의 전반적 웰빙 향상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기반 학습모델(community learning initiatives)이다. 중·장년 남성을 주축으로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인 'Shed'에서 철공, 목공, 원예 등 공동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비영리/비상업 기관에서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권진희 외, 2018).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 및 참여자의 관심사에 따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나, 크게는 노동형(work), 치료형(clinical), 교육형(educational), 레크리에이션형(recreational), 공동체형(communal)으로 구분된다. 노동형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유형으로, 건축 및 복구, 수리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형과 공동체형은 구성원 간 보건 지식 공유 및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레크리에이션형에서는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노동형 공방은 목공기술을 기본으로, 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치료형과 공동체형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소프트스킬'을 서로 배우고, 대화의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연스레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친목 형태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Carragher et al., 2016). 교육형 공방은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Men's Shed를 통해, 참여자 간 정보를 공유 및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권진희 외, 2018).

4) 영국

(1) 뉴딜 50플러스

뉴딜 50 플러스 프로그램은 소득지원수당(Income Support),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 Employment) 등의 복지급여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직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DWP, 2015).

뉴딜 50+의 지원내용은 크게 취·창업 개인 상담지원, 세액공제, 그리고 훈련수당(Training Grant)으로 구분된다. 상담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 신청 단계에서 개인별 상담자(personal adviser)가 배정되며 취·창업을 위한 개인별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서류 작성 지원, 구직 정보제공 등에 이르는 폭넓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표 Ⅲ-5〉 뉴딜 50+ 지원내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분	내용
지원내용	* 개인별 상담사 배정 - 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을 위한 개인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이력서와 취업지원서 등의 작성에 도움 -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주선\ *재정적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Employment Credit 제공(full time 취업수당 60유로, par time 주당 40유로 제공) - 2003년 이후 Working Tax Credit 제도로 대체 통합 * 훈련수당(Training grant) 지원 -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데 사용 - 전체수당 1,500 가운데 1,200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기술 유지 발전시키는데 활용, 나머지 300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사용 가능
서비스전달체계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 노동연금부와 연계 - 고용 지원 직접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 -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지원을 제공

자료: 강소량 외(2018).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플러스 정책사업 실태연구

(2) 주 정부 중장년 일자리 정책 : 북아일랜드 Job Programmes for over 50s

북아일랜드 지역 정부에서는 50세 이상 중장년 직업 프로그램(Job Programmes for over 50s)을 실시하여 직업훈련, 채용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및 창업 및 연령 차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용훈련프로그램인 ‘고용에의 연결(Bridge to Employment)’ 프로그램에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고용기회에 적합한 필수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민상기 외, 2015).

〈표 III-6〉 북아일랜드 Job Programmes for over-50s

Job Programmes for over-50s		
목적		50세 이상 구직자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제공
지원내용	이력서 작성	50세 이상의 이력서 작성 및 이력서 포함될 내용이나 피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훈련 프로그램 (고용에의 연결)	Bridge to Employment - 18세 이상의 성인실직자에게 사전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새로운 고용기회에 적합한 필수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맞춤형 훈련 제공 -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고용 훈련프로그램(2015.8) : 소매상인(전일제/정규직) - 18세 이상의 실직자의 경우이며 1주에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자가 대상 - 지역의 고용사무소에서 지원하거나 온라인Jobcentre에서 지원이 가능함. - 성공적으로 마쳤을 시, 당신을 채용할 회사와 면접이 제공됨. - 참가업체에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혜택, 교통비, 아이수당, 숙박수당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일부 참가업체의 최소 필수 기준)
	채용정보 제공	- 모든 연령대의 채용정보 및 상담, 지침에 대한 문의 - 전문적 자격을 갖춘 커리어컨설턴트의 상담 및 채용정보 제공 - 경력자원센터, Jobcentre, 지역의 고용사무소에서 제공
	자영업	- 자영업의 선택, 시작, 혜택, 체크리스트, 사용가능한 지원, 창업패키지, 기업프로그램 등을 제공
	연령차별	- 연령차별에 대한 보호 및 권한 등의 정보 제공

자료: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조사 연구; 원자료: Niderict(2015). Job-Programmes-for-over-5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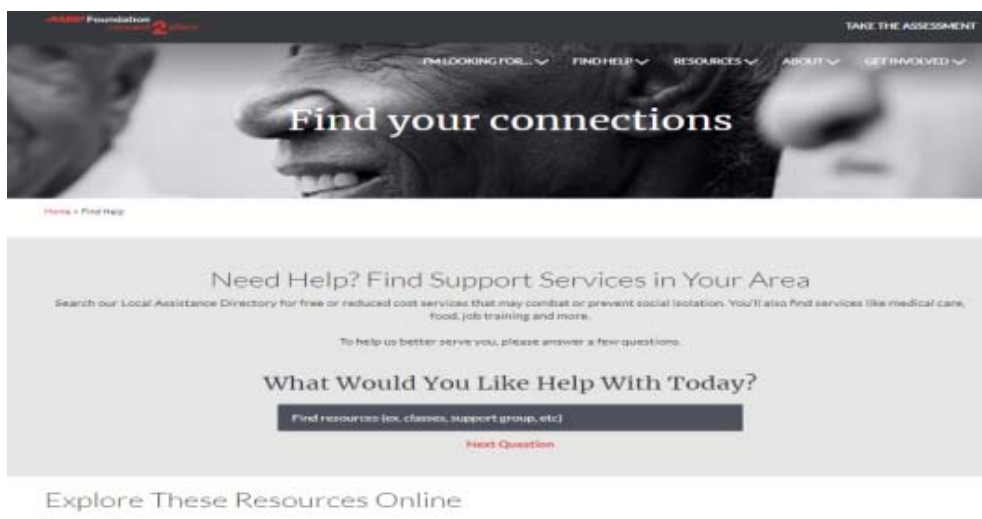
2-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1) 미국

(1)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for Retired Persons Foundation) : Connect2Affect

AARP재단은 미국 최대 비영리단체 중 하나로,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프로그램에서부터 교육, 자원봉사 지원, 구직지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AARP에서 2016년 도입한 Connect2 Affect는 미국사회 증가하는 중장년 자살률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 사회적고립 예방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Connect2Affect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단 온라인을 통해 건강, 교육, 돌봄, 상담 및 자조모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중장년 사회적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기능도 활성화되었으며, 정밀한 사회적고립 진단을 위한 스크리닝(사정) 도구 개발 및 사회적 고립 관련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다(AARP, 2022).

[그림 Ⅲ-3] Connect2Affect 자원연계 플랫폼



(2) 워싱턴 주 Phinney Neighborhood Association(PNA):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 (SCP: Social Connection Project)

‘사회적 연결 프로젝트(SCP: Social Connection Project)’는 미국 워싱턴주의 비영리단체인 Phinney Neighborhood Association(PNA)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한 백업플랜(Backup Plan for Solo Agers Group)’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및 건강계획 등에 있어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서로의 계획을 점검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임은 2주 간격으로 매회 1시간 30분씩 진행되며, 매 모임에서 새로운 개별 백업플랜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피드 프렌딩(Speed Friending)’ PNA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계 맺기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파트너를 바꾸어 대화를 연습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스피드 프렌딩 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자원 연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영국 : 서클 모델

영국의 서클 모델은 영국 맨체스터의 비영리단체 ‘Participle’ 주도로 시행된 사회 서비스 모델로, 50세 이상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서클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각 지역 서클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관계)에 기초하여 공공 영역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권현진, 2021). 서클 모델의 재원은 연회비, 지방정부 지원금, 기부금, 대학이나 기관에 연구기반 자료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인 커미션 등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HRM 서클(Heywood, Middleton&Rochdale Circle)을 사례를 볼 수 있다.

〈표 III-7〉 HRM서클 개요

HRM 서클(Heywood, Middleton & Rochdale Circle)		
대상		50세 이상 장년층 커뮤니티 활동 및 목공, 수리, 보수 작업에 관심이 있는 퇴직 남성 누구나 (숙련기술자 및 비숙련자 모두 참여 가능)
제공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 대학(Hopwood Hall College) 및 지역 단체(Rochdale Community Transport)와 연계한 응급 처치 교육(first aid training), 경영교육(Business administration), 승객 지원 교육(passenger assistancetraining), 세이프가딩 교육(safeguarding adults at risk), 치매 인식(dementia awareness)과 자살 각성(suicide alertness) 관련 교육
	사회활동 지원	식사, 가이드 산책 및 관광, 공예, 음악공연 등
	일상생활 지원	청소, 쇼핑, 애완동물 산책, 가사일, 주택관리, 정원손질, 집수리, 일대일 컴퓨터 강습, 정보화 기술 지원 등
	이동지원서비스, 자원봉사 운전자 서비스	주로 병원 이동을 위해 활용하며, 때에 따라 쇼핑 및 레저 등을 위한 이동지원에도 활용됨

임성은 외(2018). 커뮤니티 케어 기반 영국의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시찰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

2. 국내 사례

2-1.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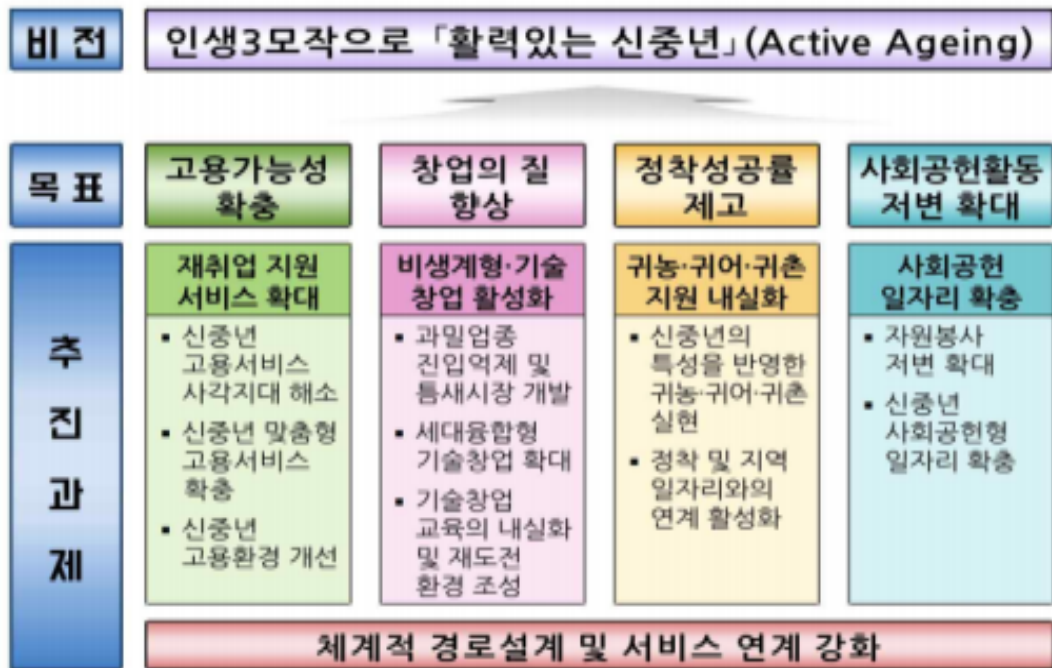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자활사업 외에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국내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경기도와 기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살펴보았다.

1) 중앙정부

본격적으로 2017년 정부부처 합동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통해 각 중앙정부 부처들이 연계하여 재취업, 창업, 귀촌,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장

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2018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통해 관련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다(문정화, 2020).

[그림 III-4]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기본 방향



자료 : 관계부처합동,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2017.08.08.)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① 고용안정, ② 재취업, ③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의 3가지 방향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소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며 40세 이상의 재직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와 취·창업, 사회참여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여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장년 워크넷²⁾을 통해 중장년 중심의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장년워크넷 (<https://www.work.go.kr/senior>)

〈표 Ⅲ-8〉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제도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안정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전국 31개소 운영)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고령자 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퇴직 후 일자리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70세 미만(3년 이상 경력자)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조건부합 해당기업	- 조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기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40세 이상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재직자와 구직자 대상 상담, 교육, 정보제공등 경력개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상연령 차별금지제도	조건부합 해당기업	- 상세조건: 모집·채용 등 각 호의 분야 ①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② 연령을 이유로 ③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는 기업 - 내용: 차별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시 구제절차 진행 및 해당기업 고용상연령차별금지 제도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조건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이직자	- 상세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제공 근로자에게 제공(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장년 워크넷	중장년 재직자, 구직자	중장년 대상 채용정보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통합 정보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한국 폴리텍대학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미취업(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중년 특화과정, 신중년 특화과정(단기)을 비학위직업 훈련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국가지원이 가능하다. 기술교육과 함께 맞춤형 직업 훈련과 향후 취업 알선까지 연계하여 교육부터 취업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표 III-9〉 한국 폴리텍대학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신중년 특화과정	만40세 이상의 실업자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및 취업연계(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주간 1년과정 70% 이수자에 한함),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
신중년특화과정 (단기)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교육비, 실습재료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

자료: 한국 폴리텍대학 홈페이지 참조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장년의 창업지원과 고용안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과 주관하여 전국에 33개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장년 창업지원을 위해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장년의 재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경력 재설계와 직업훈련, 취업 지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령자 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10〉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일자리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장년 친화 직장지원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기업	장년 친화직장을 위한 기업의 프로그램 및 투자 금액등의 비용 지원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재설계, 기업 맞춤 직업 훈련, 취업준비지원 등 재취업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제정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부처의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례를 기반으로 중장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지원, 통합지원, 일자리지원, 이모작지원의 4가지 방향으로 일자리 관련 조례를 정리할 수 있다. 생애재설계와 일자리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의 경우 각 조례명에 맞게 교육과 일자리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년지원의 경우 건강부터 가족생활 지원까지 중장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4가지 조례의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례명에 따른 내용과 방향성은 유사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45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취업 및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 사회공헌, 문화 여가활동,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 등 중장년 교육과 노후준비를 지원한다.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문화 및 여가지원, 건강증진, 가족생활 지원, 상담서비스, 취·창업 일자리 연계, 관련 연구활동, 사회참여 등으로 일자리 외에 중장년의 삶의 질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

차업교육, 일자리 창출, 재취업 연계, 사회공헌,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주로 취창업과 관련된 지원이 주를 이루나, 순천시와 같이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과 문화, 여가까지 모두 포함한 곳도 있다.

④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지원, 취·창업현황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중장년 여성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예외적으로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III-11〉 각 지자체별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중장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조례 제정 지자체 (연도)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안성, 용인, 나양주), 강원도 인제군, 전라북도, 제주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전라남도(광양시, 담양군), 대전시, 전라남도 목포시, 부산시 중구, 전라남도 해남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경기도, 군포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충청남도, 천안시)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와 시내 모든 구, 부산시 연제구, 대구시, 인천시 연수구, 광주시 서구, 경기도(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평택시), 강원도 속초시, 충청남도(충청남도, 아산시, 부여군), 전라북도(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전라남도(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경상북도(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장년 지원 조례 검색(2022.10.22.) 참조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6년 6월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자치구에 50+센터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직업교육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통해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2016년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장년들에게 배움과 탐색, 일과 참여, 문화 인프라의 3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50+재단을 컨트롤타워로, 권역별로 50+캠퍼스를 허브로 두고 지역기반 플랫폼인 50+센터를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50+일모텔을 발굴한 사회공헌일자리, 커리어전환·취업, 창업·창직, 앙코르 전직지원의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Ⅲ-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지원체계



자료 :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자료

50플러스 재단의 일자리 사업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공헌 일자리로는 서울시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기관과 연계하거나 이야기 할머니 지원사업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리어 전환·취업으로는 만45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창직 분야로는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과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앙코르 전직지원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업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표 III-12〉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사회공헌 일자리	서울시50+ 보람일자리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월 57시간 이내, 참여자 활동비 지급)
커리어 전환·취업	서울50+ 인턴십	만 45~67세 서울시 거주자	파트타임형 인턴십 (활동비, 교육실비, 상해보험 등 지원)
	서울50+ 뉴딜인턴십	만 45~67세 서울시 거주자	풀타임형 인턴십 (인건비, 4대보험, 수당 등 지원)
	굿잡5060	45세 이상의 서울·경기지역 퇴직(예정)자	사회적경제 기업, 스타트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멘토링
	50+적합일자리 발굴 채널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단체	50+적합일자리 발굴 및 사업 운영
	50+적합 일자리	세부사업별 상이	시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50+세대 취업 연계형 일자리사업 운영
창업·창직	점프업5060	만 50~64세 전국 (예비)창업자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을 위한 교육·실습 및 사업화 지원
	공유사무실	만 40~69세 서울시 거주자,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 공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 입주단체간 네트워크 지원
	50+단체 지원	서울지역 예비·초기 50+단체	단체 설립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앙코르 전직지원	앙코르 전직지원	공공·민간기업 퇴직(예정)자	기업별 맞춤형 교육, 1:1 상담, 일·활동 연계

자료: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참조

나. 서울시 기술교육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업교육 기관인 기술교육원은 동부, 중부, 북부, 남부로 4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다. 중장년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교육원에서는 ‘중장년 ICT’ 과정을 개설하여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위해 컴퓨터 활용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Ⅲ-13〉 서울시 기술교육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중장년 ICT	중장년 재직자	중장년층이 취약한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엑셀, 1인 미디어 영상제작과 활용 등)을 주말의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 서울시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2)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2018.03.20.)를 기반으로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중장년 행복캠퍼스, 각 시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만 40~64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사업을 운영 중이며, 중장년 경기도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중장년층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 해주는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중장년 무료 모임공간 대여와 1:1 직업상담, 월간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창업, 커뮤니티, 사회공헌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표 Ⅲ-14〉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사업	정년 퇴직 예정 도 공무원	재취업지원사업 운영, 취업상담 및 컨설팅, 사후관리서비스 진행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상세조건 해당, 만 40세 이상~65세 미만 도민 채용기업	상세조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에 중장년 채용지원금 지원(인턴십 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4060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	도내 40대 ~ 60대 중장년층 구인기업 및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고용유지 지원금(근속지원금, 면접수당)제공

사업명	대상	내용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	도내 40~64세 중장년	무료 모임공간: 교육, 창업, 회의, 모임공간 지원
		1:1직업상담 : 이직 및 직업상담, 취업교육 (이력서 코칭, 자기소개서 및 면접 코칭) 지원
		월간 취업특강 : 자격증교육, 직무 및 기술교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특강

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참조

나.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

경기도의 중장년 행복 캠퍼스는 각 경기도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교내 유휴시설에 중장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고 만 50세~65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평생 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초기 입소 시에 모든 중장년 대상자들은 초기 접수 면접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각자 사정된 욕구에 따라 인생 설계 진단과 취·창업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 과정을 모두 종료해야만 행복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 취·창업, 동아리 활동,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로드맵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6] 경기도 행복캠퍼스 초기 입소상담 로드맵



자료: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행복 캠퍼스 내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은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직 지원아카데미,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아카데미, 경기도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및 지원, 경기 중장년 인턴십, 세대융합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상담과 경력진단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일자리까지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7] 경기도 행복캠퍼스 중장년 일자리사업 로드맵



자료: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각 대상자별 종합상담과 경력진단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취·창업일자리 교육 및 연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직 지원 아카데미와 세대융합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아카데미는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경기도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및 지원으로 일자리 탐색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직업 및 기술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들에게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Ⅲ-15〉 경기도 행복캠퍼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전직지원 아카데미	행복캠퍼스 초기상담과정을 완료한 50~64세 경기도민	전직지원컨설턴트의 창업이론 및 창업실무교육, 창업프로세스 수립, 창업커뮤니티 결성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아카데미		일자리 취약계층(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창업 실무 전문가를 통한 창업교육, 최신 선호 창업업종 체험 기회 제공
경기도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생애전환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일자리 탐색 등), 전문가 초청 및 일자리 자문단 운영
경기 중장년 인턴십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들에게 직무체험 제공
세대융합 인큐베이팅 사업		창업을 위한 공간대여,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시니어 컨설팅 및 강사파견 지원, 행사를 통한 세대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지원

자료: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홈페이지 참조

다. 도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시와 부천시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장년 은퇴자, 은퇴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취·창업 상담,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사회공헌 및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부천시에서는 50세 이상의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커피머신관리사, 치매돌봄교육, 이미지브랜딩, 셀프인테리어 필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부천시 내 공공기관 위주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의 노인복지관과 일자리 관련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신중년이 지역 내의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중장년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표 III-16〉 도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센터명	사업명	대상	내용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재취업·창업 교육	시거주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커피머신 관리사 양성과정, 치매돌봄교육, 신중년 이미지 브랜딩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자격·기술교육
	채용정보 제공		부천시 내의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보 홈페이지 게시
	기관 네트워크		부천시 내에서 채용 정보 및 일자리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정보 홈페이지 게시
수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경력개발 및 취업특화교육	시거주 만 50세 이상	수원시 내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과정 운영,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및 기술교육
	채용정보 제공	만 65세 미만	수원시 내의 공공 및 민간기관 관련 채용정보 홈페이지 게시

자료: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각 시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바탕으로 이모작지원센터와 같은 지역별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의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인 ‘50+부산포털’과 경남 이모작지원센터를 예시로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기타 센터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50+부산포털'

부산시에서는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50+부산 포털로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50+포털에서는 부산 내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50+생애재설계대학을 운영하여 경력개발, 재무, 일자리탐색과 같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50+ 인턴십사업을 통해 일자리 교육이 실제 인턴십과 이를 통한 고용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여 중장년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표 Ⅲ-17〉 50+부산포털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50+생애재설계대학	만50~64세 부산시민	- 일자리: 생애재설계, 경력개발, 재무, 일자리탐색 - 기타: 건강, 여가, 인문학, 사회적경제, 자치활동 지
부산 50+인턴십 사업	만50~64세 부산시민 및 5인 이상 민간기업	참여자에게 일자리 교육 후 현장체험을 위해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이후 취업 독려.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고용시 기업지원금, 고용 유지시 채용성 과금 지원
경력형일자리사업	만50~70세미만	인공지능감성케어매니저, 신중년부산시티투어 가이드, 장애인 일자리 시설지원단, 부산근대문화자산 활성화 사업단, 신중년 드론안전 관리단, 신중년 생애재설계 컨설턴트, 신중년 박물관 도슨트, 장애학생 학습지원단
공공일자리사업		부산시, 각 구청, 공공기관 구인정보 제공

자료: 50+부산포털 홈페이지 참조

나.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경상남도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중장년층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동아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재취업지원의 3가지 방향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건강을 대상으로한 7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상담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게 영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는 동아리와 우리지역산업안전지킴이라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생애경력설계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취업 교육과 전략을 세우고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표 III-18〉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만 50세 이상~만 65세 이하 중장년	초기상담을 통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지원으로는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혼합형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안내, 취업상담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 보람일자리 (우리지역 산업안전지킴이)
신중년 인생이모작 성공을 위한 재취업		인생 이모작 설계: 생애경력설계, 직업적성 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 및 지원: 생애경력설계를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 연계, 취업전략 수립 취·창업 실행: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 연계, 창업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 사후관리: 취업자 모니터링, 필요한 정보 연계

자료: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2022.10.22.)

특히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성공을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4단계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취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8]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재취업지원 사업



자료: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2022.10.22.).

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서 운영 중인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도 심각해지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 후 재취업, 창업 등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전직스쿨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도약프로그램, 취업알선까지 중장년의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19〉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생애경력설계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생애경력 점검하기, 생애경력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 수립, 경력관리 지원
전직스쿨	40세 이상 퇴직예정자	퇴직 후의 진로 계획 및 준비, 재취업, 창업,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해 및 교육 지원
재도약프로그램	40세 이상 구직자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등의 재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취업매칭서비스	40세 이상 구직자,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	중장년층 구인 의향이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구직자 인력 추천, 알선.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참조

2-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들은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내에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국내의 중장년 대상 사회관계망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해서는 중앙단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여 가족 정책으로써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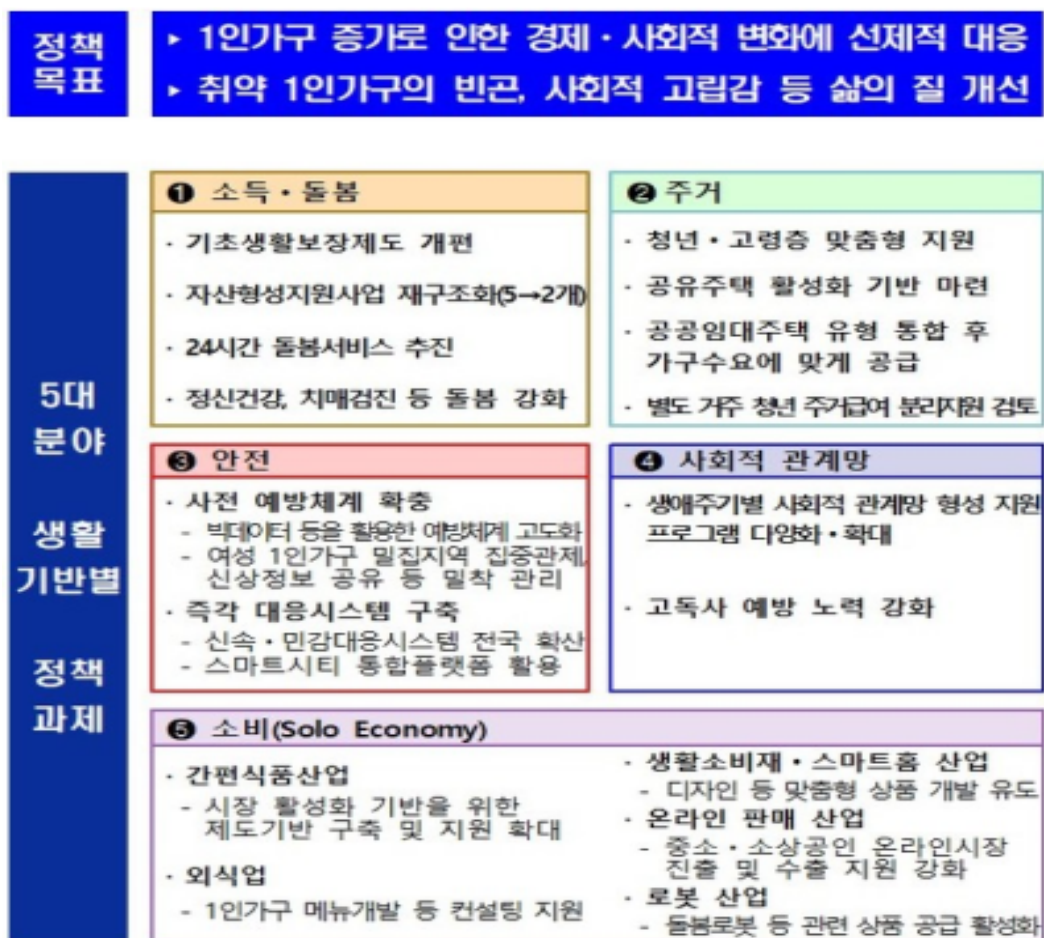
1)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06.25)’을 통해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5가지 분야에 대한 1인 가구 지원을 계획하였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외로움이 우울감으로 연결되어 자살 및 고독사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사회관계망 지원’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04.01)’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2022년 1인 가구를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가족센터(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위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주요 중장년 1인 가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림 III-9]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자료: 기획재정부(2020),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및 대응방향

(1)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2년 처음으로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각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에 대한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전국 지자체 가족센터 12곳(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다.

관련 사업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자 다른 1인 가구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을 지원하며,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리수납 및 건강한 식사를 위한 요리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안전지원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Ⅲ-20〉 여성가족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시·도	센터명	사업명	대상자	사업내용
여가부 각 지자체별 가족센터 전체		중장년 수다썰롱	40세~ 65세 미만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매월 동아리 활동비 지급
		서로 돌봄 생활 나눔교육	중장년 1인 가구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	같이 가치	중장년(만50~64세) 1인 가구	가족공예, 반려견 케어, 문화체험 모임(도보해설관광, 영화관람, 미술관 전시관람)지원
		도시농부	중장년(만50~64세) 1인 가구	용산가족공원 및 센터 내 텃밭 가꾸기 및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월1회)
		소셜다이닝_나에게 선물을 주는 건강한 밥상	중장년(만40세~만64세) 1인 가구	사업명 :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 대상 : 내용 : 중장년 1인 가구의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한 저염·저당식 건강한 집밥 만들기 및 소통
부산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마음사이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여가와 문화 등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활동
		황금빛 내 인생	40~60대 초반 1인 가구	내용 : 생애설계, 이미지메이킹, 홈파티요리, 마음상담, 여가생활

시·도	센터명	사업명	대상자	사업내용
대구	서구 가족센터	아띠	1인 가구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유대관계 및 사회적 관계형성 도모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비 지원
		슬기로운 1인생활_중장년 편	중장년 1인 가구	정리수납교육, 여가생활 탐색 및 계획
	북구 가족센터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종합 프로그램	여성 중·장년층	대상 심리·정서 상담, 호신 등 여성 안전교육
인천	중구 가족센터	주식마스터 YES	중장년층 및 노년층 1인 가구	경제 및 자산형성 관련 주식 교육
		스마트라이프		스마트폰 사용법 및 키오스크 이용법 교육
		찾아가는 상담		방문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내마음 보고서		집단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지원
광주	동구 가족센터	움직이는 마음속 아트	동구 거주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뮤지컬, 전시회관람, 인문학 강좌, 영화, 클래식 감상 등의 문화활동 지원
		남도문화 아카데미	동구 거주 1인 가구 전체	의재허백련길 체험, 수목화 배우기, 남도 향토 문화 체험, 광주 속 문화 탐방, 북아트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하나다움’ 랜선-솔로랜드	청주시 거주 1인 가구	비대면 삼부바, 가루세탁세제 만들기 활동
충남	공주시 가족센터	사소한 즐거움	공주시 거주 50~60대 1인 가구	목공예(꼭두인형만들기)를 통한 활기찬 1인 가 구 일상생활 지원, 소통채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소박한 한 끼	공주시 거주, 40~50대 1인 가구	건강한 식생활 유도, 참여자간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밀키트 지원, 요리 교실 운영
경북	경북 문경시 가족센터	중장년층 1인 가구 꽃꽂이 수업	중장년층 1인 가구	꽃꽂이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 교류 지원
	문경시 가족센터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경제교육‘인생 가계부’, 소설 다이닝 ‘일주일 반찬 만들기’, ‘책을 읽읍시다 ‘함께하는 북리딩’, 함께하는 산행 ‘야호 프로 젝트’, ‘함께하는 관계연습’, ‘나와 친해지는 관 계연습’
경남	양산시 가족센터	간부들의 경제수업	40~70대 1인 가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행복하게 나이먹기

자료: 여성가족부(2021.10.22.). 보도자료 ‘1인 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2)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만들고 2017년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1〉 각 지자체별 1인 가구 중장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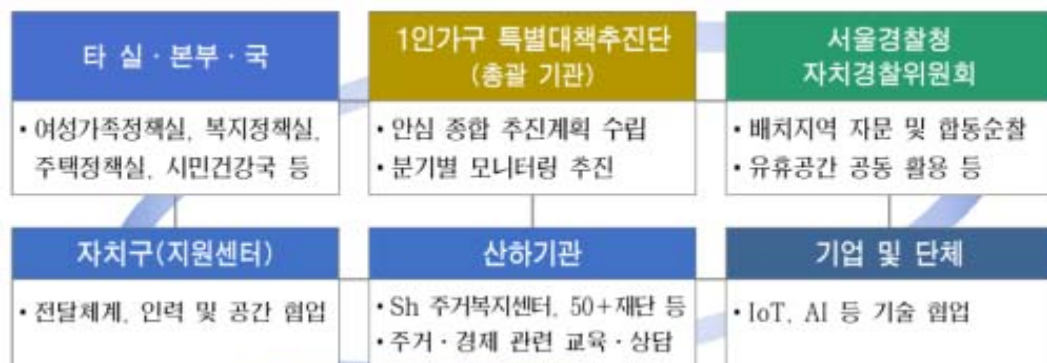
1인 가구 조례 현황	조례 제정 시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부산시(동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영도구), 대구시(대구시, 서구), 인천시(남동구, 부평구), 광주시(광산구, 남구), 대전시(대덕구, 서구, 유성구), 경기도(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강원도(속초시,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부여군, 태안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전라남도(광양시, 순천시, 담양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창원시, 산청군), 제주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광역시(동구, 부산진구, 서구), 광주광역시(남구, 동구), 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울산광역시(동구, 중구), 경기도(광명시, 구리시, 성남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도 속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라남도(여수시, 영광군), 경상남도(김해시, 창원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가구 중장년 검색(2022.10.22.) 참조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20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향후 5년간 ‘중장기 종합대책(20.01.18)’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안심 정책으로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의 4대 분야를 중점으로 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이를 기반으로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22.02)를 통한 계획을 살펴보면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총괄 기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산하기관 등 각 유관기관과 함께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III-10]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추진체계



자료: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보고(2022.02) 발췌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1인 가구 플랫폼 ‘쌍글병글 서울’과 1인 가구 여가활동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생활관리를 해주는 ‘AI 생활관리 대화 서비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솔로 NOT솔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III-22〉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1인 가구 포털 ‘쌍글병글 서울’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제도 및 참여 프로그램 등 1인 가구 지원 관련 통합 정보제공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서울시 1인 가구	1인 가구 취미활동, 여가 관련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모임비 대관 지원, 지역사회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지원 및 공간활용 프로그램 지원
AI생활관리 대화서비스	중장년 1인 가구	AI가 주기적으로(주 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위기징후가 발견시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
1인 가구 지원센터 ‘솔로 NOT홀로’	1인 가구 20~50대	일반 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모두의 식당, 생애설계), 사회적 관계망 지원(1인 가구 자조모임 지원)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가. 각 자치구

서울시의 각 자치구 또한 서울시의 1인 가구 안심정책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4대 안심분야 정책을 기반으로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사회관계망 지원, 식생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과 함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지원까지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는 1인 중장년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뛰어넘어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행복한 도선동 돌봄이웃’이라는 의미의 ‘행복도돌이’ 사업을 통해 사업에 함께하던 1인 가구 7명을 주주 살피미로 위촉하여 이웃돌봄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주주살피미는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구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주민을 발굴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그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였으나, 주주살피미 활동을 통해 더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활동가이다. 그간 성동구는 이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년 1인가구들의 주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표 Ⅲ-23〉 각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중랑구 ‘마음으로 키우는 꽃밭’(고독사 예방 치유농업 프로그램)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어르신	상자 텃밭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 텃밭가꾸기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망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양천구 50스타트센터 ‘희망의 징검다리’	양천구 만50~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	5060아는형님(사회관계망 형성 집단 프로그램), 나비카페 운영(50대 독거남 소통공간) 외 식생활 지원, 맞춤형 상담, 정보화 교육 진행
서울시 성동구 ‘슬기로운 1인생활’	40세~59세 1인 가구	- 우드카빙' 을 통해 1인 가구가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을 공유, 이에 따른 대인관계 향상 -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한 한끼 식사’ 를 주제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과의 추억과 더불어 1인 가구로서 힘든 점을 공유 - 1인 가구 맞춤형 미래설계교육을 통해 당당하고 멋진 미래 계획
서울시 성동구 무엇이든 모여보살 (1인 가구 자조모임)	중장년층 1인 가구	- 전시관람, 역사체험,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주제로 1인 가구 자조모임 월 1회 이상 정기적 모임 활동 진행 - 여러 지역 및 장소에서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모임별 커뮤니티 활동
서울시 마포구 ‘더-이름 프로젝트’	구내 40~64세 1인 가구	건강코디네이터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영화관람, 취미활동 등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명	대상	내용
서울시 성북구 '중장년을 위한 희망메시지'	고시원(원룸) 거주 중장년층	지역방문활동가 방문, 자살 고위험군 사례개입 및 전문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서울시 동작구 '중장년 1인 가구 안부 확인 및 건강식, 음료지원사업'	50세 이상 1인 가구	대상자 중 고독사위험 중장년과 식이조절이 필요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중심으로 건강음료, 영양식을 제공하며 주기적인 안부확인 실시
서울시 광진구 '행복한 밥상'	40~64세, 1인 가구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식생활 지원 및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성동구 '행복한 도선동 돌봄이웃(행복도돌이)'	성동구 중장년 1인 가구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 7명을 활동가로 위촉하여 중장년 1인 가구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자료: 서울시 쌍궁벙글 홈페이지 참조

(2) 경기도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 계획에서는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해 '중장년 수다살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중장년마음돌봄 전화상담을 추가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경기 중장년 마음 돌봄 전화상담', '중장년 수다살롱', '1인 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부엌'이 있다.

〈표 Ⅲ-24〉 경기도 중장년 1인 가구 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1인 가구 중장년(만50~65 세미만)	전화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 및 정서지원, 심리검사, 사례관리, 온마음편지, 마음돌봄 특강 및 집단상담 지원
중장년 수다살롱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취미 동아리 공간 및 활동비용 지원 (동아리1개당 90~150만원, 월 2회 활동)
1인 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 부엌	1인 가구 중장년 5인 이상 단체	지역 내의 조리시설을 연계한 공유부엌, 요리교실, 식사프로그램 지원 및 식사 공동체 활용 여가문화 지원(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금액지원, 15공동체 지원)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의 2020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의 각 시군구들도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생활환경조성, 웰다잉지원에 맞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광명시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뉴라이프 공작소 썸(save;발굴)-썸(safe;안전망 구축)-썸(secure;안전체계확보) 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라이프키퍼(마을지킴이)를 양성하여 사각지대의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해주기 위해 우리마을세이프, 이웃상점을 지정하였으며, 마을안심앱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Ⅲ-25〉 경기도 내 시군구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내용
평택시 '공동체 공동부역 지원사업'	평택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중 1인 가구	반찬 만들기, 공동체 저녁 밥상
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안전알림서비스(IOT)	40~64세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중장년층 수급자 1인 가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문제 발생 시 1:1 매칭자가 대상자에게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원
성남시'우리동네 같이 부역'	중장년 및 전체 1인 가구	지역 공간 내의 부역공간을 공유부역으로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 식생활 지원 및 새로운 공동체 형성 지원(건강레시피를 활용하여 함께 모여 음식만들기,같이 만든 음식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성남시 판교동따르릉 안부전화사업'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주 1회 밀반찬 지원으로 인한 식생활 지원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
성남시 위례동'위례희망찬(饌) 건강지킴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1:1 매칭하여 주기적인 안부확인,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증진
광명시 ' 뉴라이프 썸-썸-썸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뉴라이프키퍼(마을지킴이)양성을 통한 1인 가구 발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웃상점, 마을안심앱설치 24시간 도움 요청 지원

자료: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홈페이지 참조

(3) 전국 지자체 및 센터

전국적으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주목하여 중장년 1인 가구에 공동부역,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였으며, 고립 가구 맞춤 사업으로 여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에서는 ‘홀로 함께 삶’이라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중장년 1인 가구 인식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안심마을 운영, 심리상담지원, 건강지킴이, 외로움 극복, 홀로서기 지원, 경제적 자립지원, 고립가구 주민발굴단 운영, 고립가구 맞춤사업, 고립가구 옹호사업의 10가지 사업을 운영하였다.

〈표 III-26〉 전국 지자체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시	(센터명) 사업명	대상	내용
전주시	‘홀로함께 삶’	중장년 1인 가구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1인 가구 안심, 건강, 여가, 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부산시	‘ 중장년 취약 1인 가구 Go Go 프로젝트 "마음 똑똑!! 건강 톱’	중장년 취약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관계망 지원
	(해운대구) ‘인생이모작 새로운 도전! 나도야 영화감독!’	중장년 1인 가구 남성	영화제작 및 촬영 교육, 영화제작 지원, 연말 영화상영회 실시
대구시	‘클로바 케어콜’	중·장년 취약계층 1인 가구	시가 안부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상태를 확인함, 이상자로 분류시 담당공무원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평 프로그램’	중장년 1인 가구(50~64세)	쿡 아지트: 1인 가구 건강한 식생활 교육
			나도 바리스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행복동아리: 주제별 동아리 활동 지원
			전문상담: 개별 및 집단 심리검사, 상담
	(구산사회복지관) ‘리스타트 아카데미’		긴급지원: 정리수납 등 생활개선 지원 색채심리, 라탄공예, 야외체험학습, 음식만들기, 댄스, 원예, 청춘 특강, 리스타트 졸업여행

자료: 전주시, 부산시, 대구시,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1-4. 자활사업 내 1인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자활사업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2022년 자활사업 내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1인 가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1)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 지역자활센터 협회는 중장년 1인 가구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평소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2024년 2월까지 2개년 진행 계획을 기반으로 전국 5개 지역자활센터(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에서 2022년 1차년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에 집중하여, 직업훈련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자활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자의 사업 전달체계로는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 현황 및 사례관리 욕구조사를 진행하며, 참여자 의뢰와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담당자와 사례회의를 주관한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최대현 드라마심리상담연구소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지원과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한국자활연수원은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연계를 지원한다.

〈표 Ⅲ-27〉 기관 연계협력 전략

협력기관	협력전략	협력기관 역할
지역자활센터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조사, 사례관리 욕구조사 ▶ 참여자 의뢰,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사업 담당자와 사례관리 회의, 참여자 변화 공유	참여자 의뢰, 사례관리
최대현드라마 심리상담연구소	▶ 자활참여자 1인 가구 현황 및 욕구조사, 분석 ▶ 척도 개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정신건강 향상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지원 ▶ 프로그램 슈퍼바이징 ▶ 사업담당자 직무향상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전문가 그룹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자료: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내부자료 참조

〈표 III-28〉 사업담당자 역할

구분	중앙	지역
역할	▶ 전체사업 총괄(사업 및 예산관리 총괄) ▶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 정례적인 사업 점검회의 준비, 주관	▶ 지역사업 진행 전담 ▶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 기획, 진행 ▶ 참여자 사례관리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 업체선정 및 관리 ▶ 프로그램 진행 점검 및 필요시 현장방문	▶ 프로그램 진행 모니터링 ▶ 업체선정 협조, 관리 및 만족도조사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교육 기획 및 전문가 소통 ▶ 프로그램 매뉴얼 사전협의 ▶ 프로그램 진행점검 및 모니터링	▶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 현장 진행 ▶ (지역별 맞춤) 정신건강 향상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채용형태	▶ 기존 사회공헌담당인력 보직변경하여 전담관리	▶ 해당 지역에서 신규채용 - 중앙에서 지역과 협조하면서 관리

자료: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내부자료 참조

사업은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과 정신건강향상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사빈곤 예방,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실시하며,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지역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표 III-29〉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1인 가구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식사빈곤 예방: 주 2식 밀키트 제공, 지역별 소셜다이닝 혼밥인의 만찬(온라인 요리교육 및 참여자 대화 나눔)
		주거환경 개선: 청소, 집수리, 정리정돈, 방역 등 개인별 필요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교육:
		지역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 자기돌봄강좌(영양교실, 인문학특강), 교류프로그램(나들이, 영화관람, 미술관 관람)

자료: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내부자료 참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1인 가구의 신체 건강을 위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한 식사빈곤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였다.

① 식사빈곤예방 프로그램은 주1회(2식) 밀키트를 6개월 동안 제공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자활센터 외식(식품)사업단과 연계하거나 시중 밀키트 상품을 구매하여 지역 자활센터 사례관리자가 각 센터에 전달한다. 주거환경 개선프로그램은 6개월간 월 10회 한도 내에서 집수리, 청소, 세탁, 정리정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전신청서를 통해 우선대상자를 선정 후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② ‘정신건강향상프로그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인 고립감 해소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교육과 지역별 욕구에 맞춘 교양,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증진 교육은 주 1회씩, 총 8회 기간 진행하며, 참여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자기관리 의지향상을 위해 전문강사가 지역별로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인생질문으로 나를 만나기, 나의 강점 탐색하기, 긍정회상 자기소개, 윈터플라이프(시간, 관계, 공간)여행을 통한 자서전 만들기, 틈 사이로 빛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5개 지역이 참여한 만큼 지역별 욕구에 맞춘 정신건강 향상지원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혼밥인의 만찬³⁾, 자기돌봄프로그램⁴⁾, 교류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각 프로그램당 2회씩 제공되었다.

2) 지역자활센터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혼자서 먹는 혼(single)밥이 아닌 섞어서 어우러지는 혼(混)밥’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 중 식생활이 취약한 남성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건강 식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원하였다.

경기성남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슬기로운 1인 생활, 홈트’ 사업을 실시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한 식단관리를 위한 식단교육과 함께 건강한 반찬과 과일을 지원하였으며, 운동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식이와 운동을 활용하여

3) 혼밥인의 만찬은 홈파티 전문강사가 온라인을 통해 각 대상자에게 제공된 밀키트를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대화의 장을 만든다. 지역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요리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4) 자기돌봄프로그램은 지역별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식사교육을 위한 영양교실이나 인문학 특강과 같은 요구에 맞춰 진행 가능하다.

5) 교류프로그램은 고궁, 영화관, 미술관 관람과 같이 참여주민들이 함께 지역 인근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나 참여주민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대상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경기부천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는 ‘쓰담쓰담 콘서트’사업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중 특히 사업단 부적응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적응력을 높이고자 자립, 공존, 연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문제를 확인하고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후 자립, 공존, 연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먼저, 자립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공존을 위해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익혔고 연대를 위해 소통 및 협동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강원춘천 지역자활센터는 ‘식(食중), 톡(talk)’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 외에 청년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도 함께 모집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 내에서 요리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한 식사를 직접 챙기는 것과 더불어 2인 1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세대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요리경진대회도 나감으로써 대상자 간에 돈독한 관계 형성을 돕고자 하였다.

대구달성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나혼자 산다’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자활역량 증진과도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리수납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활역량을 증진하고자 대상자들이 추가교육을 통해 정리수납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식물기르기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우울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 생활능력향상’사업을 진행하여 중장년 1인 가구 중 취약한 주거상황에 놓여있는 고시원,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생활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재무관리, 주거환경의 4가지 목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II-30〉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대상 중장년 1인 가구 우수사례 프로그램

지역 센터명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서울 광진지역 자활센터	혼자서 먹는 혼(single)밥이 아닌 섞어서 어우러지는 혼(混)밥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중 식생활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 대상자 맞춤형 메뉴 선별 후 2인 1팀 요리실습
			공동체 조성 : 소감 및 음식 나눔 시간 및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유지 지원
경기 성남지역 자활센터	슬기로운 1인 생활, 홈트	중장년 1인 가구	식단관리 : 식단교육, 반찬 및 과일지원
			운동관리 : 운동실습
경기 부천나눔 지역 자활센터	쓰담쓰담 콘서트	부적응 호소 1인 가구	자립 : 스트레스 관리 집단상담
			공존 : 갈등해결 기술 교육
			연대 : 대인관계 소통 및 협동 역량 강화 교육
강원 춘천지역 자활센터	식(食)톡(talk)	중장년 및 청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건강한 식습관 형성, 세대 간 관계형성을 위한 요리요리교육 및 경진대회 진행
대구 달성지역 자활센터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거주지 관리: 정리수납 및 위생교육
			자활연계 : 거주지 관리 교육을 통한 정리수납자격증 취득,
			우울관리: 식물기르기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부산진 지역자활 센터	주거 취약계층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및 고시원, 쪽방 거주자	신체건강: 요리교실, 간편식제공, 안과검진, 치과검진
			정신건강: 심리진단(우울, 알코올중독), 목공체험, 자원봉사활동
			재무관리: 신용관리교육, 재무관리교육
			주거안정: 사례관리자 현장방문, 개인상담

자료: 각 시센터 별 '2021년 자활사례관리 우수사업 결과보고서' 자료 참조.

IV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및 현장종사자 FGI 조사

1. 조사 개요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FGI 분석결과
3. 지역자활센터 현장종사자 FGI 분석결과

IV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및 현장종사자 FGI 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의 1인 가구 중장년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FGI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경험 및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1인 가구 형성 배경과 자활근로 경험, 자활사업의 만족도, 정책지원 욕구 및 탈수급계획,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에 적합한 사업모델 등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현장종사자로부터는 각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험과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인적 특성,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에 적합한 자활사업 아이템 및 필요한 정책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 참여자는 전국에 산재한 자활센터의 규모나 사업, 인적 특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도시형과 농촌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로 도시형에서 3곳, 농촌형(도농복합형)에서 3곳을 선정하였다.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청취하고자 FGI 참여자 선정은 세평적 사례 선택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였는데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이란,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연구 참여자 소개를 의뢰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세평적 사례선택을 위해서 사전에 참여자 선정기준을 센터에 설명하였으며, 중장년 1인 가구라는 특성 외에 혼인상태와 학력, 자활사업 재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활센터 실무자의 추천을 받았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총 1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6개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는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약속된 날짜에 해당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센터의 회의실이나 교육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명 혹은 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FGI 진행일정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일정

센터 유형	인터뷰 날짜	지역	참여자 수 (명)
도시형	2022년 7월 12일 ~ 7월 15일	경상권	2
		수도권	3
		전라권	2
농촌형(도농복합형)		경상권	3
		수도권	2
		충북권	3

한편, FGI에 참여할 현장종사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자활센터 유형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도농복합형 포함)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 총 9명의 종사자를 추천받았다. 종사자 선정기준은 자활사업 실무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이며 현재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실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인터뷰는 9명의 종사자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따라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표 IV-2> 참조).

<표 IV-2> 현장종사자 초점집단인터뷰 진행일정

센터 유형	인터뷰 날짜	지역	참여자 수 (명)
도시형	2022년 8월 10일 ~ 8월 16일	서울, 수도권	3
농촌형(도농복합형)		전라권	3
		충청, 경상권	3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참여자와 현장종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이 설명된 자료를 배포하여 인터뷰 목적 및 방법(심층인터뷰 및 녹음 진행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된 내용의 비밀 유지 및 인터뷰 과정 중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도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자필로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원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은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IV-3〉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FGI 질문지

구 분		질문 내용
귀하가 1인 가구로 지내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1인 가구로 지내게 된 원인, 기간, 생활상의 문제점 등
귀하가 현재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현재의 자활사업 참여 경로 • 자활사업 참여 전과 후에 나타난 변화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에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담, 교육, 훈련 등	• 상담 경험 여부와 만족도 • 일반적인 소양교육 경험 여부와 만족도 • 자활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훈련 경험 여부와 만족도 • 취·창업 관련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 경험 여부와 만족도
	근로환경, 근무조건 및 인간관계	• 센터의 물리적 환경 • 센터의 자활근로 조건 (직무, 근무시간, 급여, 업무량 등) • 직원 및 동료와의 관계 •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겪는 전반적인 어려움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귀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 경제적인 변화 • 개인적인 변화 • 건강상의 변화 • 가족관계 및 사회적 변화
귀하에게 자활사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자활사업이 귀하의 삶에서 갖는 의미 •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예: 건강, 학력, 경력, 기술, 사업정보와 자금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 경제적 보상 차원의 욕구 • 자활지원서비스 차원의 욕구 • 일자리 차원의 욕구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차원의 욕구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신규 사업 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욕구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를 해보십시오.		• 귀하가 생각하는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 가능성 • 자활사업 종료 후 귀하가 생각하는 자립(생계대책) 형태 • 3년 후 예상되는 귀하의 삶의 변화나 계획

〈표 IV-4〉 현장종사자 대상 FGI 질문지

구 분	질문 내용
센터의 자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의 자활사업 시행여부 • 센터 내의 교육 운영 및 문제점 • 센터 내의 사례관리 및 문제점 • 자활사업 수행상의 어려움 • 종사자 처우 문제
자활참여자의 특성과 역량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특성 • 참여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사자 개입역량 • 자활참여자의 근무역량 강화 방안
자활참여자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역 협력망이 있습니까?	• 자활참여자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망
자활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자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참여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 센터와 사업단 등 물리적 환경
중장년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의 전개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향후 자활사업의 전개 방향 • 자활사업의 방침- 참여자의 고용과 복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사업 유형을 제안해주세요.	•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 •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 제안시 고려사항 • 중장년 1인 가구에 필요한 자활사업 유형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FGI 분석결과

1) 참여자 인적 특성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하였기에 모두 1인 가구의 저소득 중장년이며, 남성이 11명, 여성이 4명이었다. 연령 은 40~60대 사이로 40대가 1명, 50대가 8명, 60대가 6명이다. 혼인관계를 보면, 기혼 1명, 사별 1명, 미혼 3명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이혼한 상태였다. 참여자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를 소유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월세 형태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 참여자들은 농사, 청소용역, 스팀세차, 도시락 판매 및 양곡 배송 등 다양한 사업단에서 활동 중이었으며 자활사업에 재진입한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신규 참여자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별 특성은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참여자 인적 특성

센터 유형	구분	성별	연령	혼인 관계	거주형태	자활사업 참여경험
농촌형 (도농복합형)	1	남자	68세	이혼	임대	재참여
	2	남자	64세	사별	전세	재참여
	3	남자	65세	이혼	임대	신규
	4	여자	62세	미혼	월세	신규
	5	남자	52세	이혼	임대	신규
	6	남자	59세	이혼	임대	신규
	7	남자	58세	기혼	월세	신규
	8	여자	61세	이혼	자가	신규
도시형	9	여자	53세	이혼	월세	신규
	10	남자	59세	미혼	임대	신규
	11	여자	57세	이혼	월세	신규
	12	남자	59세	이혼	기타	신규
	13	남자	53세	이혼	월세	신규
	14	남자	42세	미혼	월세	재참여
	15	남자	66세	이혼	임대	재참여

2) 1인 가구 형성 배경 및 자활사업 참여 과정

(1) 1인 가구 형성 배경

참여자들이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 어려움’, ‘지난날의 과오’ 혹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혼, 사별, 미혼을 제외하면 참여

자들이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은 이혼이었으며, 이혼의 원인 제공자는 참여자 자신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었다. 이혼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였다. 원인제공 면에서는 참여자가 종교에 빠져 가출하는 등 귀책 사유가 참여자에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한 배우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행위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등 가정불화를 경험하면서 가족해체-1인 가구 구성의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배우자가 사별한 참여자의 경우는 뜻밖의 재앙처럼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암 선고와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해체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녀들 성장 이후 1인 가구로 남겨진 경우이다.

저는 원래 종교에 좀 미쳤었어요. 제가 36살에 쇼핑백 하나 들고 00(지역)을 혼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랑하고 애들이랑 연락도 끊고 죽었다고 소문내고 그랬죠. (참여자 9)

저는 남편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생활비를 다 탕진하고 제가 집을 제 이름으로 했는데 인감을 제 것을 떼어다가 제 앞으로 빚을 1억 정도 지고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중략) 애 아바랑 이혼소속 밟았는데 막 애 아바가 이혼 안 해준다고 저희 친정집 가서 다 죽인다고 그렇게 경찰서도 오고 가고 그러다가 이혼을 했죠. (참여자 11)

저는 부인하고 15년 전에 합의이혼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요. 남매가 있는데 딸은 가슴에 묻고 아들 자식은 병원에 있고. 제가 끝까지 품어야죠. (참여자 7)

저는 00(지역)에서 인쇄업을 25년 했어요. 세무조사 한 번에 끝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집사람은 평생 집안일만 했던 사람이라 돈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얹혀놓고 이혼하고. (참여자 6)

저는 다리에 약간 장애가 있는데 젊을 때는 사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가정도 탄탄대로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실직 상태로 10년 이상을 있다 보니 가정이 힘들어졌죠. 병원에서만 11년 있었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참여자 12)

나는 먼저 1인 가구가 된 게 개인사업하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고 저도 집사람이 아프니까 간병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돈도 다 까먹고 부인은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서 완전 거지가 됐죠. (참여자 2)

(2) 자활사업 참여 경로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인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자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진입하게 된 경로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스스로 자활센터를 방문하였거나 자활사업에 대해 잘 아는 주변 지인의 추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청, 군청,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직원의 추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건강 악화, 가족돌봄, 가정불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의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20년 전에 이혼하고 가정불화 때문에. 그리고 잠시 노숙생활을 하다가 수급자가 되어가
지고 00교회 다니는 아는 동생이 자기 여기 있다고 얘기해서 센터에 들어왔어요. (참여자 13)

저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전에 택시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한 5개월간 손님도 없고
방 구할 돈도 못 만들고 기름값도 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요. (중략) 복지사님이
이러면 안 되고 수급자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수급자는 어렵지 않냐 했는데... 단절됐고,
부양의무자도 없고, 집에 어르신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
시원에 2달 있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구청에서 차상위가 됐죠. 게이트웨이를 구청에서 받아서
자활센터로 오게 된 거죠. (참여자 12)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면사무소에서 찾아와서 자활로 오고 수급신청 하라고. (참여자 3)

저는 사업을 하다 안되어서 상황이 힘들어졌는데 지인이 동사무소에서 상담받으라고 해서 상
담받다가 수급자 되고 동사무소에서 여기 연결해줬죠. (참여자 10)

저는 장사를 했어요. 할머니들이랑 계를 했는데 계주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파산하고
주거급여 받으러 동사무소 갔다가 거기에서 연결해줬죠. (참여자 11)

저는 음식장사 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하면서 다른 곳 일을 다녔는
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상위라 의료급여를 받는데 지나가다가 자활 간판 보고
 물어보려고 들어왔는데 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참여자 9)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니까 수급자 신청을 하니까 구청 가보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
랬더니 여기를 소개시켜 준 거죠. (참여자 14)

4년 전에 환경미화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뒤로 일을 제대로 못 하다가 복지과를 통해서 자활에 오게 됐어요. (참여자 7)

예전에는 00(지역) 살다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몸이 아파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서 먼 복지과에 가서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군에서 연락이 와서 자활을 처음 알고 오게 됐어요. (참여자 8)

저는 도시 살다가 2015년도에 내려왔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나이도 걸리고 없어서 인력사무소 다니다가 동네 이장님이 자활센터를 소개시켜 주셔서 면사무소에서 설명 듣고 여기에서 면접 봐서 오게 됐습니다. (참여자 6)

00 군에서 타지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수급권자이면서 후배 일을 하다 보니 까 수입이 많을 때는 한 500만 원, 덜 할 때는 400만 원이 잡히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어떻게 수급자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수급권 탈락해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아프면 의료급여를 못 받으니까 돈을 벌어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 가지고 그냥 일하던 걸 접었어요. 대신 복지과에서 나를 00(지역) 자활센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동생이랑 하던 일 관두고 00(지역)으로 왔어요. (참여자 1)

00 고용센터 가서 배움카드 받아가지고 학원 다녀서 타일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해 볼라니까 알아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이랑 동사무소 가서 000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중략) 집세, 연료비, 애들 학비 대줘야 하는데 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 주민등록번호랑 다 찾아보더니 LH주택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이것저것 도와줬어요. (중략) 그 동사무소 선생님이 자활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2)

(3) 자활사업 재진입 경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중장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종료 이후 다시 진입하게 된 것은 주로 질병 등 신체적인 건강 악화가 주된 이유였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종료하게 된 형태는 참여 기간의 종료, 자활기업으로 창업,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등 다양했지만 대부분 신체적인 건강 악화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다시 자활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거부감없이 자활 재진입을 선택하는 저변에는 이전의 자활근로 경험이 유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나서 다리를 다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참여자 14)

저는 2011년도 5월에 처음 자활 참여해서 2018년 2월 정도에 종료를 했다가 그 이후에 내일키움통장 시도를 해서 가입들을 하고 그랬는데... (중략) 청소, 방역을 맡아서 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나갔다가 하지정맥 수술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체에서 그만두라고 한 건 없는데... (중략) 작년에 제가 척추시술도 하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일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술 끝나고 게이트웨이 하다가 다시 자활로 들어왔죠. (참여자 15)

농사도 열심히 하고 자활에 몸담은 지 11년째인데... (중략) 어느 순간에 여기서 1년에 한번 하는 국가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병간호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5년간 운동 열심히 해서 완치판정받고. (중략) 자활팀장이 자활에 다시 와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들어왔어요. (참여자 1)

재진입자 중에는 1인 가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가 있었고, 자활사업 제도가 참여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희망키움통장 등을 이용하여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재진입한 참여자도 있었는데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가 높지는 않아 자활 재진입이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라 빨리 들어왔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죠. 제가 혼자 있으면서 아침에 눈 뜨면 갈 곳 있고 그게 크거든요. 자활로 돈은 안 벌어. (참여자 1)

저는 그냥 희망키움통장으로 목돈 만들려고 온 거예요. 저는 애 키우고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쓸 시간도 많아요. (참여자 2)

(4)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처음엔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가족, 친구나 이웃 등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로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라고 인식되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색다른 시선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활사업 근로는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가족 및 주위에 자신의 자활근로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처음에 창피해서 차상위라고 말도 못 하고 자활 다닌다고 말을 못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나를 멀리하고 이상하게 볼까 봐. 지금은 오히려 여기 다니는 게 더 당당해요. (중략)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식사 대접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월급이 작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참여자 11)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얼마야, 몇 시야, 뭐 얼마야 이런 식으로 너무 꼬치꼬치 사적인 걸 다 캐물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이웃이랑 얼굴은 10년 이상 살아서 알고 친구도 있는데 통상적인 이야기나 하지. (참여자 8)

저는 그냥 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들 나한테 도움받던 사람들이라 제가 사업 안 되고 저한테 연락 안 오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궁해서 연락을 안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먼저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참여자 6)

지금 해요. 자활한다고. 그래서 1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죠. 다들 자활을 잘 모르거든요. 왜 그거밖에 안 받고 일을 하냐고 더 받는 곳 가지, 그렇게 말을 해요. (참여자 13)

(5)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려움

빈곤이라는 특성, 1인 가구의 특성, 그리고 노년기로 접어드는 50~60 중장년의 특성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이다. 즉, 이런 특성을 가진 개인은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거니와 건강, 정서, 사회적 관계 면에서도 복합적으로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라는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닌 참여자들은 당연히 다양한 어려움 혹은 배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 규칙적인 식생활의 어려움

FGI 결과,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특히 퇴근 후 귀가하여 혼자 먹어야 하는 저녁 식사를 힘들어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업장에서 먹는 점심 식사가 하루 세 끼 식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식습관이 불규칙하였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참여자도 많았다. 집에서 취사 및 식사를 거르는 행태는 취사 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식사하는 순간의 정서적 고립감 및 외로움과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

한 끼는 여기서 해결하고 집에서는 내가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못 만들어. 그냥 술이나 먹는 거지. 안주나 좀 사다 먹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먹을 때가 많지. (참여자 3)

집에 가면 밥 잘 안 먹게 되거든요. 혼자 챙겨먹기도 싫고 혼자 먹는데 챙기는 것도 좀 그 렻고. 우울증이 있다 보니 혼자 밥 먹다 보면 슬프고 우울해져요. (참여자 11)

혼자 먹으니까 외로워서 잘 안 먹어요. (참여자 9)

저는 아침 안 먹고, 점심 여기서 먹고, 저녁은 사 먹어요. 요리를 할 수는 있는데 방이 요 리할 만한 방이 아니라서. 그래서 혼자 살아도 밖에서 사먹으니까 돈이 모자르게 되더라고 요. (참여자 14)

의식주지, 나는 식사 챙겨 먹기도 힘들어. 그리고 외롭죠. (참여자 12)

나. 정서적인 어려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들의 심 리·정서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근로 후 남는 여유시간을 텃밭 농사도 짓 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다수는 자신 앞에 놓 인 생활사 및 시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살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두려움, 불안, 고독감, 외로움 등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힘들어하였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서럽고 무서운 감정을 크게 느낀다고 말하였는데 지역 내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지리적 접근성 이 떨어져 즉각적인 위기대응이 힘든 농촌형 참여자의 경우, 두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외롭고 고독해요. 여기 아니면 집에서 말할 상대가 없어요. 무슨 일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 어요. 내가 언제든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울증 걸리고 그러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떠들어요. (참여자 9)

서로 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몸 아플 때 연락하기는 어렵죠. 다들 불편하거나 힘든 상 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참여자 6)

절친하고 찾아오던 친구들은 저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기 끝나면 그냥 집에서 티비 틀어놓고 티비 보고 소주 한잔 생각나면 한 잔 먹고 그렇죠. (참여자 7)

아플 때가 제일 서럽고 무서워요. (참여자 8)

다 외롭죠. 여기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는데 퇴근하면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생각도 더 많아지고. (참여자 10)

제가 얼마 전에 열도 나고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병원 가보래서 병원 갔더니 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누가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든 다시 결혼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다. 사회적 관계망 유지의 어려움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소득, 1인 가구, 노년을 앞둔 중장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위축되는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 앞에서 언급한 불규칙한 생활과 정서적 고립, 소외감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축소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정서적 고립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넓히는 것인데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속된 사업단을 기반으로 동료들과 심리·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관계망도 긍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이나 야유회 활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FGI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립감이나 소외감, 외로움을 해결하길 바라면서도 동료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거부하는 딜레마 혹은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센터 내에 공식적인 동아리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부정적이었으며, 대신에 사업단별로 자율적이고 간헐적인 야유회나 모임을 할 수 있는 활동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개성이 너무 강해요 여기는. 자기 생각이 다 법이고 타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옛날에 앞만 보고 달려왔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그게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붙여놔서 더 힘들죠. (참여자 2)

(질문자: 1인 가구 분들끼리 모여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건 잘 안될 것 같아요. (참여자 4)

내가 필요로 했을 때 가야지. 문이 항상 파출소처럼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가서 얘기할 곳이 필요해요. 동아리는 시간 정해서 가야 하니까 어렵고. 있어도 안 갈 것 같은데 밖에서 어울리면 어울리지 여기 안은 아니죠. 자의로 해야지 누가 강제로 뭘 하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참여자 9)

모임비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그나마 얼마 전에 야유회 한 번 간 거에서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돈만 지원해주면 다들 힘들게 살아서 열심히 참여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임 만들려고 돈 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내자고 해도 다들 싫어해요. (참여자 6)

3)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1) 상담,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

자활사업 진입 이후 제공되는 상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길고, 지루하며, 비현실적인 도돌이표’라고 인식할 정도로 만족도가 낮다. 먼저, 소양교육 혹은 직무교육 관련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상담받은 경험이 없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교육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교육내용이 너무 길고, 지루하며, 사업단의 현실과 안 맞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소양, 보건, 안전 교육 등이 1년에 평균 4번 정도 실시되고 있으나 내용에 변화가 전혀 없는 다분히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의 특성상 일방적인 집합교육 보다는 사례관리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지역자활센터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사례관리사가 없는 센터도 많아서 각 참여자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보다는 획일적이고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자활사업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보다는 근로를 통한 자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타나는 제도적, 구조적인 결함일 수도 있어 보인다.

지겨워요. 너무 딱딱하고. (참여자 3)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한 거는 처음이에요. (참여자 7)

너무 길게 해서 지겨워요. (참여자 4)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여기 교육은 안 맞아요. (참여자 14)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이 반복이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15)

3년째 받고 있는데 똑같은 강사, 똑같은 주제라 녹음기 틀어놓는 것 같아요. 토씨하나 안 틀려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그냥 시간 채우기죠.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참여자 14)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단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미래의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 교육 및 기술훈련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양교육 이외에 참여자들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위해 실질적으로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직업교육이나 기술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상황을 모르잖아요. 와서 일을 해보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고 그런지 알지 교육은 너무 현실이랑 거리가 멀어요. (참여자 11)

우리 처지가 취·창업 하고 싶어도 막막하니까 어렵죠. 차라리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낫죠. (참여자 10)

우리가 꿈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거죠. 딴 세상 얘기 같아요 교육은. (참여자 9)

기술습득은 딱히 없어요. 제가 그냥 배달하고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뵈고 인사 정도 하니까 그냥 제가 사회복지 쪽 가면 만날 분들이니까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참여자 2)

(2)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활사업은 센터의 규모나 위치, 사업단 내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 사업단의 종류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직무 배치, 업무량, 근무시간 및 급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FGI 결과, 참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단 유형이 무엇인지, 자활근로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업단의 환경이나 직무, 업무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은 힘들고 여기는 할만해요. (참여자 5)

저는 자활 전이랑 지금이랑 일하는 건 비슷비슷해요. 힘들 때는 힘들고 수월할 때는 수월하고. (참여자 4)

일이 너무 힘들거나 고될 때도 있죠. (참여자 8)

근데 크게 힘든 건 없는 게 노동력이 그렇게 심하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피로가 쌓이면 힘들긴 하지만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거 힘들면 어디서도 일 못 해요. (참여자 6)

저는 청소팀으로 일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힘들죠. 시간 내에 끝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청소팀은 노동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참여자 7)

카페나 판매 쪽은 일하는 장소가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좋은 자리를 내주는 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일을 해야죠. (참여자 8)

(3) 직원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듯이 자활사업단은 가구 특성, 학력, 일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생애이력을 갖고 온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근무하는 장소이므로 센터의 종사자, 특히 사업단 내 동료와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FGI 결과,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처음 진입하면 동료와 친근한 의사소통 및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스스로도 사업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직무 유형이나 근무시간, 업무량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사업단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여도 같은 사업단 내에서 별도의 동아리가 형성된다거나 사업단을 벗어나 외부에서 교류할 정도의 친구 관계로는 확장, 발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각 개인의 성격 차이, 인식 차이도 있지만 주로 사교 비용 발생 등의 경제적 부담감 때문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우리끼리도 많이 싸워요.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한다고 싸우고. 자활은 업무 강도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또 힘들어요. 다들 처음에 많이 싸우고 힘들어 하거든요. (중략) 지금 일하면서 이것저것 다 겪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단은 행복해요. 처음 6개월은 힘들었는데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소통이 되니까 다 알아서 자기 일 하거든요. (참여자 12)

서로 안 맞을 때 스트레스 받고 하죠. 다 좋을 순 없으니까. (참여자 4)

동아리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식하고 대화하고. (참여자 10)

작년 초까지는 좀 토요일에 쉬니까 금요일에 다 같이 끝나면 한 만원 정도씩 건어서 회식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11)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면서 가족 같은 그런 걸 느끼고 하죠. 지금 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지금 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연배에 따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있죠. 같이 어울려서 좋은 것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참여자 15)

좀 어울리는 파가 나뉘어있기는 해요. 그리고 정보를 같이 많이 나누는 것도 있어요. (참여자 14)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참여자 7)

팀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밥이라도 한끼 먹고 그래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각자 각출해서 돈 얼마라도 내는 걸 다들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생길 일이 없다고 봐요. (참여자 6)

우리 팀이 5명인데 그 5명이 맘이 또 잘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팀 사람들끼리 마음 공유가 되어서 좋아요. (참여자 1)

사업제안했다가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충돌이 있었죠. (참여자 2)

참여자들이 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용인할 만한 정도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에 모든 부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만한 곳도 없고... 저희 반찬 배달 이런 거 할 때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참여자 4)

전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단장님이 시키는 일하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지. (참여자 5)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억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일하는 절차도 맘에 안 들고 월급도 적고. (참여자 3)

여기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재기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죠. 농사도 열심히 하고 자활에 몸담은 지 11년째인데 다른 사람들은 개척정신이 없으면 자활에 못 있어. (중략)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자활이라고 나쁜 점이 있겠어요. 하기 나름이지. 그걸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여기 자활 내에서 참여자들에게도 윗사람에게도. (중략) 자활 있다가 나간 사람 보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싫은 사람도 많아요. 자활이라고 월급이 적고 많은 걸 떠나 자활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정을 받고 저 아는 사람도 72세인데 자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참여자 1)

4) 자활사업 참여 후의 변화

(1) 경제적 측면의 변화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나타난 개인적인 변화는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건강 측면, 그리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 측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활근로가 자신들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급여의 크기를 떠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되었고, 규칙적인 생활 및 장래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규칙적인 출퇴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뜻이며, 또한 자신들의 미래의 삶이 좀 더 예측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외에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감보다도 부수적으로 해결된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문제 해결을 더 큰 혜택으로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활 참여 기간이 한정적인 점과 함께 참여자가 자활 종료 후 취·창업에 대한 걱정도 많아 자활제도가 갖는 정책 운용상의 한계도 엿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활하면서 도움 많이 받고,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토닥이고 하면 다들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저는 5시 출근이어도 4시에 가거든요. 출근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돈 얼마 못 받아도 주변 사람들 커피 사주고 친해지면서 재밌고 그렇죠. (참여자 13)

그렇죠. 도움받았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건 있지. (참여자 12)

그치. 돈도 좀 생기고 여유도 생겨서 좋지. 천만 원 저축했어요. (참여자 3)

근데 저희가 한 달에 많이 받아도 200만 원이라 저희가 5년밖에 못 있는데 자활을. 5년 후에 창업을 하기에는 이 액수로 많이 어렵죠. (참여자 10)

돈을 크게 못 받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지금 여기서 여럿이 어울려서 일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돈도 모으고 나름대로 계획은 조금 세울 수가 있으니까. (참여자 11)

금액이 적던 안정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아니라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어 만족도는 좋습니다. (참여자 6)

원래 일하던 곳에서는 220만 원까지 받고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다쳐서 일을 못 한 이후로 동생들이 병원비도 해결해주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아직 빚이 2,700만 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넣어서 됐죠. 여기는 여기 급여에 맞춰서 살고 있고요. 아들이 28살인데 장애 2급이라 병원비를 한 달에 50씩 낼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여기 센터 다니는 걸 알고 10만 원으로 줄여준 점이 또 도움이 많이 됐죠. (참여자 7)

저는 주거해결이죠. 이혼하면서 돈 40만 원 가지고 나와서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참여자 1)

급여는 대부분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급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지출 비용 중에서는 월세 등 주거비와 의료비를 특히 부담스러워하였다.

집세 내고, 전화요금 내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쓰다 보면 돈이 모자라. 10만 원 넣는 거 여기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여기 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집값도 25만 원 내고 하면 생활이 힘들어요. (참여자 4)

1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죠. 다들 자활을 잘 모르거든요. 왜 그거밖에 안 받고 일을 하냐고 더 받는 곳 가지, 그렇게 말을 해요. (참여자 2)

한달 밥값 정도가 주거비로 없어지는 거죠. 식비랑 먹기만 해도 담배도 피고 하고 하니까 돈이 안 남죠. (참여자 14)

네 거기 두 달 됐고 한 15만 원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질병이 많아서 병원비만 한 20, 30만 원 나가요. 의료급여를 못 받으니...(참여자 11)

자활제도 안에는 정기적인 급여 외에도 미래의 자활을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있다. 참여자들은 자활 종료 후 장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혹은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개인적인 빚 탕감 등을 위해 급여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GI 결과, 자활사업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가 있음에도 참여자들이 가입을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거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통장압류 혹은 의료급여 자격의 탈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중 일부는 희망키움통장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자격조건이 해마다 까다로워져서 가입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저는 그래도 몇십만 원 저축해요. 여기에서 하는 10만 원은 몰라서 안 했어요. (참여자 3)

통장 하면 자활 차상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일을 다닐 수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참여자 11)

파산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상 좀 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씩 빚을 개인적으로 갚고 있어요. 큰 덩어리는 면책받았지만 양심상 힘든 분들은 제가 드리고 있죠. (참여자 9)

저도 1억의 빚이 있어요. 합의를 보거나 갚아야 하는 데 합의를 하려고 조금씩 돈 모으고 있어요. (참여자 10)

압류가 들어와요. 빚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은행 말고 제2금융권에서도 빚이 있고 여기저기 빚이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 됐어요. 제가 통장에 돈 모으고 싶어서 돈 얼마씩 갚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제2금융권에서도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참여자 14)

저축 하나 해요. 국가지원 말고 일반으로. (참여자 2)

자활 원래 3년인데 희망기움 하면 2년 더 해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돈 좀 더 벌어서 나가라고 5년이 됐잖아요. 근데 5년 하다 보니까 우리 때는 까다롭지 않았는데 자격증도 따야 하고 뭐가 많아졌어요. (참여자 1)

(2) 심리적 측면의 변화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주는 긍정적 변화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은 물론,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나 사회를 바라볼 때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시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자신도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람은 일은 못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우게 되거든요. 이상한 손님 와도 오죽하면 그러겠냐 생각하고, 누가 일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참여자 12)

저도 그냥 여기 자활에 계속 있어야지. 기술이 좀 늘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 집에 있으면 나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것 좋아지고 토요일이랑 일요일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현금도 내니까 보람이 있지. (참여자 5)

내가 기업으로 나간 건 사업단 하면서 여건도 맞고 충족이 되면 나가게 되니까 나갔는데 장점은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오픈을 하고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되는 게 있죠. (참여자 15)

배달출근이라 좀 출근 시간이 애매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은 되죠. (참여자 14)

진짜 부모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어요.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제가 살아나갈 방법을 배우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실수는 안 하겠다 싶고 음식 하나 할 때마다 책임감도 느끼고. (참여자 9)

손님들이 드시고 가실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주시고 단골분들도 생기고 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죠. (참여자 10)

내가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부터 살 숨통이 트였죠. 그전에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중략) 지금 와서 보면 여자친구 만들고 싶죠. 사교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3)

(3) 건강 측면의 변화

건강 면에서 자활사업이 참여자 개인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우울 감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신체적 건강 증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 남성 참여자의 경우, 규칙적인 근무로 인해 술 마실 기회가 줄어 몸이 건강해졌다고 하였고, 수입은 적어도 일반 직장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서 좋다고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무엇보다 내 편이 있다는 심리적 위로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이 밝고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근무 중에는 술을 못 마시니까 낮에 술도 안 마셔요. 그래서 몸도 좀 건강해졌어요. (참여자 3)

일하러 다닐 때는 일반 직장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수입은 적지만 꾸준하게 다니는 직장이라 마음적으로 좀 편해요. 일 못 한다고 잘리거나 욱하진 않으니까. 다른 직장은 가면 피곤하잖아요. 여기는 수입은 적어도 편안하다는 안정감이 있죠. (참여자 4)

내 편이 있다는 게 크죠.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해주고 할 테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큰 위로가 되죠. (참여자 11)

저는 남편이 길게 아팠어요.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고 한 달 만에 남편이 죽고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으면 우울증이나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외롭고요. 근데 자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사교성이 좋지는 못해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기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참여자 8)

혼자 시골 내려오면서 애들하고도 5년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아빠가 되어서 해준 게 없어서요. 제가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원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애들이랑 연락도 하고, 소통도 되고, 해주고 싶은 것도 해주고,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성격도 많이 밝고 좋아져서 오기 좋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게이트웨이 들어와서 겪은 정서적 안정감이요. 한 달에 얼마가 나오니까 다른 건 없더라도 내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준 게 가장 크죠. (참여자 2)

그러나 건강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진입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심리적,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다수가 여전히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적인 문제를 지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치료 다녀요. 여기 정신과 약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도움은 되는데 잠은 여전히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있죠. (참여자 11)

우울증은 좀 나아졌는데 잠은 못 자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 일이라도 너무 공감해서 자면서 생각이 나버려요. 정서적인 건 많이 나아졌어요. 정신적인 건 사람도 여기서 많이 만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참여자 9)

저도 불면증이 심해요. 한쪽은 피곤한데 한쪽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들 상담받고 약도 먹고 다 그래요. (참여자 10)

(4)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의든 타의든 배우자와 자녀 등 원가족과의 교류가 여전히 단절된 참여자도 있지만, 배우자와는 단절되었어도 자녀들과는 전화나 왕래를 통해 가족관계를 지속하는 참여자도 있다. 일부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관계가 단절되어 소원했던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정기적인 급여와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근로활동에서 오는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의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들은 2년에 한 번 보려는 와요. (참여자 3)

물질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다시 만나려고 해도 좀 어렵고 그렇죠. (참여자 4)

교류가 없어요. (중략)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형제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참여자 10)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게 딸이 시집가는데 전화 한 통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게 마음 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자활에서 할 일이 생겨서 버티는 거죠.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참여자 9)

아들이 엄마랑 전화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인이랑 교류는 없죠. (참여자 7)

애들 도와줄 기반이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활하면서 좀 나아져서 이 정도면 아빠 노릇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됐죠. 딸이랑은 연락 안 하고 아들하고만 연락이 되고 있어요. (참여자 6)

가족들에게 해방됐죠. 가족들이 저한테 기대를 아무도 안 해서 좋아요. 지 엄마하고는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죠. 돈도 한 5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택시하면서 돈이 아예 없고 하니까 그냥 애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키우고... 이혼했으니까 연락할 일이 없죠. (참여자 12)

가족관계는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고 있고 아예 단절이 되어서 아들도 내 얼굴을 몰라요. 20년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32살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 (참여자 13)

저희가 8남매고 동생이 6명이고 누나가 있는데 부모님과도 담쌓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겼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형제는 하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그 이후로 형제 들은 다시 화해해서 연락하고 왕래하고 살고 있어요. (참여자 7)

하지만 참여자들은 원가족보다는 같은 사업단 내의 동료들을 통해서 정서적 위안이나 위로, 삶의 재미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동료들과 일하고 소통하면서 인생의 재미를 느꼈다는 참여자도 있고, 처지가 비슷한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울타리가 있다는 감정에서 오는 위로와 안심이 크다고 말한다. 또한 센터 종사자는 물론 동료들 모두가 자신을 동등하게 상대하고 차별을 안 하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이 센터 종사자나 동료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토닥이고 하면 다들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중략) 돈 얼마 못 받아도 주변 사람들 커피 사주고 친해지면서 재밌고 그렇죠. (참여자 13)

일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미가 있죠. 지금은 재미있어졌어요. 전에는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참여자 12)

좋은 점은 남과 대화도 하고 말 상대도 하니까 좋죠. 나쁜 점은 별로 없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참여자 4)

자활 얘기하니까 눈물나려고 해요. 그전에는 장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벽을 쌓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깐 저랑 처지가 다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가 울타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를 보호해준다는 생각도 있고 일도 규칙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위로와 안심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비슷해서 말도 편하게 하고. (참여자 9)

여기서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하는 게 없잖아요. 다들 비슷하고 상황도. 팀장님들도 일하는 사람들 동등하게 상대하고 차별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곳은 좀 부족하면 사람 취급도 못 해요. 몸이 아프면 다른 곳 가면 몸 아픈데 뭐하러 나오냐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한쪽 눈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일 할 때는 편잔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게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내가 내성적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활발하고 장난도 잘 치고 밝게 일하고 소통도 많이 해요. (참여자 11)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당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감싸줘서 좋죠. (참여자 10)

같이 일하는 분들 형님, 누님 하면서 가족 같은 느낌 드는 게 가장 커요. 여기에서 정을 느끼거든요. 정 느낀 곳은 여기 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제가 친구랑 있어도 그런 적은 없는데 여기 있으면 연락도 하고 하니까. 정이 있어요. (참여자 14)

우리도 사업단 사람들이 식구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작은 일로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식구고 정도 있고 그렇죠. 일에 대한 큰 성취가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고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5)

저도 2년 정도 몸담고 있는데 여기 일하는 분들과 단합이 되어 같이 일하니 마음이 즐겁고 좋습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직장생활을 저는 안 해 보다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끼리 일하니 고독한 것도 풀리고 좋습니다. (참여자 7)

그럼에도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고 사업단 위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매우 협소함을 볼 수 있다. 센터 종사자, 특히 사업단 동료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그들을 가족처럼 인식하고 식구 같은 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마음속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에는 자활사업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그 원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자활에 온 참여자들의 성향, 근로의욕이나 근로능력 등 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단의 인원 배치 방식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자활제도나 자활사업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자활센터마다 진입하는 참여자의 근무 동기와 역량이 다르고 사업단의 종류가 적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는) 넓어졌는데 그래도 좁아 1인 가구니까. (참여자 1)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친구 만나러 어딜 가거나 그런 건 어렵죠. (참여자 2)

(속내를 털어기) 상당히 힘들어요. 자활이 사사건건 작은 거라도 다 보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쉽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못 해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분류가 빨리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참여자 2)

5) 취·창업 등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

(1) 개인적 걸림돌

자활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workfare)정책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립 등 자활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의 성공적인 종착지가 되어야 할 취·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이며 개인적으로 현재 취·창업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우선 50~60대의 중장년이다 보니 자신들이 연령이 나 건강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신용상태와 경력이 미흡하여 일반 시장에 나가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스스로 인지한 이런 한계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취·창업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도 다른 곳은 내가 일할 곳이 없고 일도 너무 힘들지.
(참여자 4)

일 하기는 너무 힘들고 다른 일자리가 없고. (참여자 5)

여기에서 일하면서 받는 게 많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참여자 3)

(취업에 가장 걸림돌은) 신용이죠. 신용회복을 해야죠. 선배 따라다니면서 룸살롱도 하고 돈 좀 벌다가 용산에 집장촌 없애면서 저도 걸렸죠. 그때 빚이 아직도 6, 7천 정도 있어요.
(참여자 14)

빚 탕감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죠. 월급이 뽕뽕해서. 땅이 240평 있는데 누가 거기 건물에서 살다가 사망했는데 제 건물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위임시켜버렸죠. 그래서 시골 땅을 재산으로 잡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참여자 7)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원래 거의 폐가였어요. 전기나 가스 화장실,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되어있던 걸 제가 수리해서 들어가서 살고있는 건데 땅 주인 되는 사람이 와서 나가라고 해요. (중략) 여기 그만두면 문제가 제가 거기서 나가게 될 텐데 살 곳이 걱정되죠. 면사무소 상담하면 무료로 하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참여자 6)

(2) 자활사업의 구조적 걸림돌

상대적으로 자활 종료 후에 창업을 원하는 참여자도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창업을 하기 힘든 이유를 보면, 같이 동업할 사람이 없다거나 창업자금 및 아이템 부족, 창업을 위한 실습교육장 마련 등 훈련을 위한 인프라 부족, 창업의 지역 제한 등을 창업하기 힘든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적은 급여와 창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희망키움통장에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주위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80%들을 보면 너무 게을러요. 수급자니까 여기서 이 돈만 받고 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여자 13)

일단 팀웍이 문제거든요. 팀웍이 갖춰지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안 되거든요. (중략) 창업했을 때 팀워크만 있으면 돈은 그냥 쫓아와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거든요. (참여자 2)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애들한테 일하자면 하는 애들이 없어, 누가 좀 끼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애들이 그렇게 흥미도 없고. (중략)... 내가 취업해서 나간다고 해도 00(지역)보다는 좀 나가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혜택을 안 준다니깐 곤란하지. 생각은 있어도 쉽지 않지. (참여자 4)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업하면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걸 받으려면 키움통장이 있는 사람들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어렵죠. (참여자 10)

통장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자활에서 일하다가 창업하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키움통장을 안 했더라도. (참여자 9)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대출도 못 받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하고 거래하기가 좀 꺼려지죠. 저금리로 창업자원 대출을 받거나 통장이 없어도 임대료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 지원해주면 충분히 바로 창업이 가능하죠. (참여자 6)

경력을 좀 배우고 쌓을 실습기회가 없어요. 창업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내가 기술을 그만큼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자격증 딸 때 자랑하려고 땀 게 아니고 노후생활이랑 그런 것 다해서 땀 거죠. (참여자 2)

한편, 참여자들은 최장 3~5년으로 자활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나 참여자들에게 자활기간 중에 취·창업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취·창업은 개인 역량 외에 자활센터가 위치한 지역 특성 즉, 인구 수, 산업 현황 및 노동시장 여건이나 인프라 등 외부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자활센터 및 참여자 개인의 노력으로만 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근데 저희가 한 달에 많이 받아도 200만 원이라 저희가 5년 밖에 못 있는데 자활을. 5년 후에 창업하기에는 이 액수로는 많이 어렵죠. (참여자 10)

지금 살기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서를 생각하면 막막해요. 여기 사람들은 사회에서 적응이 어려워 온 건데 여기서 적응해도 나가서 적응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참여자 9)

구치소에 20, 30번 들락날락한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 5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 집도 우리가 자격이 갖춰져야 하니까. (참여자 11)

나라에서 봤을 때 자활 기준이 없고, 아프고, 모자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버리면 갈 데가 없어서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활을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략) 창업이나 취직은 쓸만한 사람들 갖다 놓고 취직을 바래야지. 뭘 정신이랑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무슨 취직이랑 창업이예요. 10명이면 8명이 그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활에서 다 안고 가자고 하는 거죠. (참여자 1)

6)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자활사업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경제적 차원, 자활사업 교육프로그램 차원, 의식주 및 사회안전망 차원, 일자리 차원,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1) 경제적 차원의 요구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참여자들이 현재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과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은 불공평하고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사업단의 매출 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사업단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된 급여를 받다 보니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고 퇴직금이 없는 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제도의 지원이 축소된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활근로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인건비는 말 그대로 급여(benefit)의 성격을 갖다 보니 일반 노동시장의 임금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며 자활근로제도의 발전 방향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급여의 수준이 자활제도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의 인적 자본 수준과 근로의 지속성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일이 힘들어서 못 할 정도는 아니라 하는 거지 월급 받아서 이 정도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월급 많이 주는 일반 사업하는 데 가서 일하기에는 우리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해. 힘들어서.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것 같아요. 월급을 올려줘야죠. (참여자 4)

기름값이나 전기세 이런 거 수급자들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1인 가구는 정말 지원이 다 부족해요. 뭐든지 다 식구가 있는 사람보다 다 뒷전이에요. (중략) 내 새끼를 내가 키우지 않는 한 경제적인 지원이 너무 없어요. (참여자 12)

퇴직금도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최근에 자활해서 15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20, 30만 원이 날라가거든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도 기를 쓰고 나오는 게 다들 그 돈 욕심에 그런 거예요. (참여자 2)

저희가 원래 성과급 20만 원 받았는데 수익이 4배가 올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더 주면 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는 건데 자기들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성과급이 같은데 뭐하러 일을 더 해요. 인센티브를 줘야지. (참여자 6)

청소팀 회의를 했는데 배는 못 올려주고 1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4배를 더 했는데 반영이 좀 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제가 여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키움통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불합리 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저금하면 나라에서 20만 원 해주고 센터에서도 성과급처럼 돈이 들어왔대요. (중략) 여기가 퇴직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걸로는 생활비나 필요한 것 쓰고 희망키움만 모아서 나가도 성공하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온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중략) 그걸 없앤 게 자활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제 생각은 나라에서 이 자활에 사람을 보내서 자활급여를 받고 어떻게 하던지 이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가게 해야 나라에서 성공하는데 그냥 여기서 조금 주는 돈 가지고 받으면서 룰 대로 오라고 묶는 게 목적인지. (참여자 2)

한편, 참여자들 간에 자활사업 운영시스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엿볼 수 있는데 운영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참여자도 있었다. 사업단에 배치되는 참여자들의 인적 특성, 일의 종류 및 숙련도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동료 간 급여의 차이나 현재의 급여 수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으나, 자금 운영 면에서 무언가 동료 간 위계서열이 존재하고 있어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사회에서 일하면 돈이 높고 낮아요. 일 잘하는 기술자들은 10만 원이면, 도와주는 사람은 5만 원이야. 자활은 그런 게 없어. 제가 10년을 하고 기술이 더 많아도 막 들어온 사람이랑 돈이 같아. 그런 걸 여기는 두지 않아. (중략) 서비스형을 가면 혜택도 없고 월급이 끝이지. 그런 곳은 나이가 좀 든 분들이 가는 거지. 나이를 생각해서. 식당가서 일도 못 하고 하니까. 근데 그걸로 투정하는 사람도 많지. 자활에서 먹여 살리는 건지 돈 70만 원으로 뭐 하라는 건지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하냐고 싸우고 수급비가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활을 몰라서 그래. 자활을 알고 시스템을 알면 떠다 밀어도 안 나가지.

(참여자 1)

자활이랑 시청이 자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게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센터에서 좀 더 귀여움받는 사람들은 더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나 여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안에서 그렇게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2)

(2) 자활사업 교육프로그램 차원의 요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 자체를 수정 및 추가하거나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엿보인다. 자활제도가 참여자들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찾아 탈빈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노년기로 가는 50~60대의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임을 고려하면 취·창업업을 위한 무조건적인 직무교육 보다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입이 더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근로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사전 경험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사업단에 배치받은 후 자신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실습, 특히 사업단별로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은 실생활에 맞는 걸 해야죠. 교육받는 사람들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거의 다 자요. 실제로 와닿는 교육이나 실습을 하는 교육이 나올 것 같아요. 사업단별로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사업단 안에서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좀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단 내에서 관계를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참여자 13)

삶에 있는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내가 자활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왜 해야 하고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람 신의나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참여자 2)

실습 위주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장 위주의. (참여자 7)

여기 직원들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요. 기계를 만지거나 사업단에 맞게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르쳐줄 강사나 전문직 인력이 부족해요. (참여자 6)

저희는 커피라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것 말고 일하는 건 같이 일하는 사업단에서 배운 거예요. 선배님들에게. (참여자 8)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인적 특성과 역량, 현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길 원하였다. 참여자들은 중장년과 젊은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창업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창업교육의 제공이나 중장년층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습득 강조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표시하였다.

여기는 연령대나 신체조건이 기술습득을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15)

청년들은 뭐 배울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나이대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배운다는 건 없어요.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게 없어요. (참여자 14)

50대인 사람들은 5년 끝나고 60 딱 되면 막노동도 못 들어가요. 여기 끝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돈 다 까먹고 또 노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번 돈으로 도박하고 한탕만 노려요. 경마장 가고 그래요. (중략) 그래서 젊은 애들이랑 나이 먹은 사람 분리해서 서로 필요한 교육을 해줘야 해요. 젊은 애들은 다른 교육을 받아야죠. 내용도 달라야 하구요. (참여자 12)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스터디가 있거나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있으면 좋죠. 분명 여기 일하는 젊은 사람 중에 자살충동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참여자 14)

여기 참여를 해도 내가 노가다 일당이 얼마데, 이런 생각하면 여기에서 못하고 여기 하는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면 참여를 잘하죠. 근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기술습득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오든 쉽게 잘 할 수 있는 걸 하거든요. (참여자 15)

따라서 연령과 건강, 근무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장년 참여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습득이나 직무훈련보다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 건강이나 금융, 자산관리 등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 및 정보제공이 더 절실히 필요해보인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참여자들이기에 특히 중장년 남성 참여자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법이나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방법 등 새로운 가족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나가면 60대 나이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전문인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 찾기도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구청이나 나라에서 홍보를 해서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도 알려줘야 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나 기분, 감정을 생각해주고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사업단 내에서도 사사로운 갈등이나 충돌이 많아요.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참여자 2)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신용 관련된 게 중요해요. 창업 교육은 창업 안 할 사람들이 많아서 잠만 자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창업 안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5년 후에 어디를 가야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노후준비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참여자 12)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산이나 노후관리 직접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죠. 어려운 건 이해를 못 해도 쉽게 설명해주면 금융권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중장년들 건강 관련 프로그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여러 사람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고.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좋죠. (참여자 15)

여자친구 사귀는 교육 같은 것도 해주면 좋겠어요. 데이트하는 법이나 그런 거요. 자녀들과 대화하고 이런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잘해요. (참여자 2)

(3) 의식주 및 사회안전망 차원의 요구

참여자들은 의식주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이므로 가사 및 돌봄 관련한 요구,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요구가 컸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를 직접 배우길 희망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반찬도우미, 청소도우미 등 직접적인 가사서비스를 지원받기 원하는 참여자도 많았다. 또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음성인식 의료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사다 먹는 건 다 달고 한두 번 먹으면 질려요. 음식해서 먹는 게 나오니까 김치통 들고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하죠. 그래서 식사 관련된 부분이 커요. 남자들은 해 먹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교육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배울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사서 먹는 거지. (참여자 3)

반찬 도우미, 청소 도우미 같은 거 생기면 좋지. (참여자 4)

혼자 있다 보면, 몸 아프고 심할 때 못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알릴 조건도 안되니까요. 그런 걸 의료계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119도 못 누를 때도 있는데 비상시에 음성서비스 같은 거 설치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4) 미래 일자리 차원의 요구

자활참여 종료 후 모든 참여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단의 사업을 발판으로 한 취·창업은 아닐 것이다. 참여자 중에는 현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장래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자활 종료 후 경제적 자립이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들에게는 자활근로 기간 중에 교육 기회나 비용 등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지역내 접근이 가능한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고용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상담이나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걸... 나이가 되니까 안전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싶어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안전 같은 거 중요한 부분도 알려주고 어려운 사람 상담도 해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참여자 13)

자기 연금이 얼마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더 연금도 잘 받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싶죠. (참여자 13)

지금 심리상담도 공부하고 있고 그쪽으로 따고 인정받게 되면 그냥 어딘가 취업을 할 수 있겠죠. 보건소 2층 심리상담 같은 곳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하면 저 같은 사람들 자살이나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도 안 나가고 가출청소년이랑 지내면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다가 자살시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14)

같은 맥락에서 취·창업 외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정보제공이나 상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혹은 스터디모임의 조성을 원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창업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창업 준비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마음 맞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좋지. (참여자 4)

도시락 사업단 하는 다른 분들이랑 정보공유 하는 게... 그런 게 낫지. (참여자 9)

저는 대학갈 목표도 있어서 스터디그룹 같은 거 있으면 정보도 공유하고 학교 다니거나 준비하는 사람끼리 정보공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통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끼리 스터디처럼 얘기 좀 통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나 소모임 같은 거요. 뭐 비슷한 거 배우고 싶은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4)

7)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신규사업 모델

(1) 근로의욕 제고 프로그램

다양한 생애 이력을 가진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활사업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이라는 특성상 근로의욕이나 동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단에 배치된 후로는 교육받은 내용과 현장업무의 차이 및 업무 미경험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 외에도 서로 다른 역량으로 인해 동료간 갈등이나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처음에 오는 분들은 의지력이 강해요. 과장님들 상담하면서 의욕이 있는지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뽑았는데 들어가서 일하다가 텃세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이든 늦게 들어오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람 때문에 관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랑 부딪혀요. 왜냐하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듣고 왔는데 사업단에서는 일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부딪히죠. 매뉴얼과 다르니까 그런 걸로 삼자대면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부딪히서 그만둔 사람도 많죠. (참여자 12)

그러나 현재의 자활제도 안에서 자활사업이 발전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근로의욕과 직무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GI 결과, 자활사업에 진입하기 전부터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피해의식, 정신적인 문제 및 신체질환, 매너리즘에 빠진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근로의욕 고취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심신수양 등 심리적 지원이나 의료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참여자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져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자활이니까 대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직장이고 내 일이면 안 그럴 텐데 70~80%가 그래요. 월급 이거 받고 뭐 하겠어 싶고, 50대 넘으면 이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일에 대한 고마운 걸 느끼고 특히 여자분들은 열심히 해요. (중략) 심신수양이 필요하죠. 어떻게든 자립을 잘 시키려면 심신수양이 필요하죠. (참여자 12)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잘해주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그걸로 나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들 상처가 깊으니까. 한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어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참여자 11)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받고 그래요. (참여자 9)

다들 상처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참여자 10)

똑같은 수는 없는데 팀워크를 짜면 되거든요. 5~6명이 팀이 되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2, 3명만 맞춰도 그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일단 오는 사람 다 받아주고 추후에 추려내야죠. 희망키움을 왜 안 하려고 하나면 이걸 하면 의료급여 못 받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안 할라고 하거든요. (중략) 의료급여 혜택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는 풀어주는 거죠. 수급자 돈 까지는 안 주더라도 65세~70세 되면 의료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참여자 2)

신규로 사업단에 배치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멘토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한 참여자도 있었는데 신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처음에 오면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참여자 13)

저희도 잘 어울리려고 좀 배려를 해주죠. (참여자 11)

일에 대한 것 빼고는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나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민한 분들도 계시고. 아픔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참여자 15)

(2)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자활사업 아이템

우리나라는 해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물론 1인 가구 중 중장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활사업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에 적합한 별도의 사업모델이 필요한지, 중장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지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FGI 결과, 자활사업은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농촌형의 경우에도 농업 등 1차 산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시형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사도 규모의 효과가 있어 크게 지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농촌형 자활사업이어도 도농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은 기존의 사업 경험을 살려 스텝세차, 회사 및 아

파트 청소, 아울렛 매장 내 햄버거 가게, 배달사업체 등 고수익 창출 사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신규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다.

시골도 농사짓는 사람이 다 70대 이상이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짓는 사람들 한두 명이 농사를 짓지 우리가 거기서 농사지어서 희망은 없어요. 나 먹으려고 짓는 텃밭 정도겠죠. 그래서 시내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죠. 자활참여자 중에 농사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씨도 뿌려서 키워야지, 종자도 다 사다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참여자 6)

저도 농사 짓는 일 해봤지만 농촌 일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청소팀이 수익을 제일 많이 올려요. 문화센터나 자연드림, 아파트 입주나 개인집 청소 등으로 해서 많이 수익을 받죠. 성과금을 좀 많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저희 세차팀이 출장 스팀세차만 하는데 00시에 영업 중단된 세차장이 많아요. 여기에서 거기를 사가지고 세차를 하면 이익이 배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출장세차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다 못가거든요. (중략) 인구대비 차가 많아요. 차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세차 팀도 수입 많이 올리고 있고 여기 수익 제일 많이 올리는 곳은 청소팀이고, 그다음이 쌀 배송이고요. (참여자 6)

아울렛 식당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햄버거 가게는 해놓으면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장소 제한도 없고 다들 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식당 자리 없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인원이 적어도 되고요. (참여자 2)

배달하다 보니까 3달 동안 3주를 배달했거든요. 야간으로. 차라리 밥집은 밥집이고 배달사업체를 하나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멀리 갈 수도 있게 배달사업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4)

관리만 제대로 해도 벌에서만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나올 텐데. 벌 관리를 누가 가르쳐 주면 됐을 텐데...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참여자 2)

8)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미래 설계

(1)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의 탈수급이나 자활기간 종료 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은 사업단에서의 경험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자 다수는 언젠가는 자활사업단을 벗어나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꿈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단 안에서 저축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동료들과의 갈등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마찰 등 안 좋은 경험들은 참여자의 성공적인 탈수급이 아닌 무계획 상태에서의 자활사업 종료라는 부정적 기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해야 하죠.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탈수급도 하고. 나는 형사 건도 걸려있고 신용불량자 벗어나려면 합의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돈을 좀 모아 가지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싶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죠. (참여자 10)

저는 조리사 자격증 따고 요양보호사 3년 안에 따면 어느 정도 이룰 것 같아요. (참여자 9)

저는 반반이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밖에서 적응이 어려워서.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참여자 11)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참여자 11)

어떤 경로로 여기 온 것뿐이지 다 하고 싶은 게 있지. (참여자 12)

자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이라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요. 여기는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일의 흐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들 일하면 제가 다른 부분 채우느라 제 몸만 망가지고 더 힘들어요. (참여자 2)

(2) 자활사업 종료 후의 경제적 자립계획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3년에서 최장 5년의 자활기간이 종료되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활사업의 목표 자체가 사업단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형성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취·창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참여자들은 자활기간 종료 후의 미래 자립계획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FGI 결과,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취업이나 창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혹은 자격증, 면허증 취득이나 못다 한 대학교육을 마무리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자활사업에 진입하기 전 쌓았던 자신의 경력을 살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은 창업자금 마련이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1급만 있어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뭐 식품이나 물건 납품하고 그런 것만 해도 배달만 해도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면허증 1년 따고 3년 안에 어떻게든 해야죠. (참여자 13)

저는 가구장식 다시 하고 싶은데 꿈만 있지 희망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압류 때문에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있는 돈 집세 내고 하면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월급이 적으니까. (참여자 10)

여기에서 요리 자격증 따고 영양보호사 따서 어르신들 딸이나 가족이 되어서 먹고 싶은 것 해드리고 좋은 곳 데려가 드리고 하고 싶죠. 창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여자 9)

자격증 따는 거요. 지금 한식 자격증 준비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11)

4학년까지는 대학교를 마쳐야 하니까. 대학교의 학력이 목표죠. (참여자 14)

자활이 기한이 5년이래서 제가 2024년도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산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가면 61세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57세라 일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7)

인쇄업을 다시 하자니 지금 개인이 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서요, 그냥 세차사업을 하나 할까 싶어요. 차량 청소용품이랑 사가지고요. 사업단에서 3명 정도 모아서 투자도 같이 하고 하려고요. 00(지역)이 세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팀을 더 만들자. 우리 성과금 남을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참여자 6)

여기는 못 들어오는데 자활교육으로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빛이 보이죠. 저는 그냥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려고요. 지금 새로 들어와서 4년 남았으니까 4년 일 해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려고요. (참여자 2)

대형운전도 따서 다녀봤는데 그건 좀 어려워서 접었고, 경비를 가도 괜찮고. 저는 희망키움 때문에 자활에 들어온 거라, 경비도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여기는 퇴직금도 없잖아요. (참여자 14)

3. 지역자활센터 현장종사자 FGI 분석결과

1) 현장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현장종사자의 경우에도 자활참여자와 같이 먼저 도시형과 농촌형(도농복합형 포함)으로 지역 안배를 한 후 도시형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3명, 도농복합형을 포함한 농촌형 중 전라권에서 3명, 충청·경상권에서 3명 총 9명의 현장종사자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다방면으로 자활사업 실무 경험이 많은 종사자로서 현재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Gateway 혹은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종사자들의 인적 특성은 아래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현장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센터 유형	지역	종사자 구분	종사자명	성별	주요 업무
도시형	서울, 수도권	1	양 ○ ○	여자	시장, 사회서비스
		2	이 ○ ○	여자	시장, 사회서비스
		3	김 ○ ○	여자	사회서비스
농촌형 (도농복합형)	전라권	4	김 ○ ○	여자	시장
		5	이 ○ ○	남자	시장
		6	설 ○ ○	남자	사회서비스
	충청, 경상권	7	오 ○ ○	여자	Gateway전담
		8	이 ○ ○	남자	Gateway전담
		9	이 ○ ○	여자	자활사례관리

2) 자활사업 운영의 전반적 특성

(1) 자활사업단 운영의 문제점

종사자 FGI에 의하면, 다양한 생애이력을 가진 50~60대의 중장년 참여자를 주축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다 보니 자활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참여자의 취약한 근무역량, 건강문제, 불공평한 업무분장과 불성실한 근태, 성과금 배분

문제가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갈등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단 내에서는 심각한 음주 문제로 근로의욕과 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근태마저 불성실하여 동료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반대로 근무이력이 오래된 일부 참여자는 그 안에서 완장역할을 하려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분기별 성과급 배분시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사업단 인원수대로 나뉘는 평등한 성과급은 미숙한 동료로 인해 불공정한 업무량을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단 안에서 무능력한 참여자들을 소외 혹은 배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성과급이 분기별로 나오니까 300만 원 넘게 받는데 배제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다른 사람 오면 수당을 나눠야 하고 일이 떨어지면 나눠야 하잖아요. (종사자 8)

저희도 그래요. 원래 7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참여자가) 근로능력이 미약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일은 많이 못 하는데 성과급만 나눠야 하니까. (종사자 7)

그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사람 일까지 해야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폭언으로 인한 갈등도 많죠. 그게 근데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종사자 8)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센터에 따라서는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근로미약 참여자들을 모아 단기적으로 게이트웨이와 사업단을 순환하게 하는 관리방식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단을 꾸리거나 혹은 1인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 역시 또 다른 양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근로능력 미약자들을 위한 사업단을 또 만들었는데, 본인들도 매출이 있으니까 또 안 받고 싶어 하고. (종사자 7)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요. (종사자 8)

그런 사업단은 그 안에서 너무 근태부터도 문제가 많아서 담당자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완장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사자 7)

게이트웨이 3개월 하고 사업단 돌리고 종결하고, 다시 게이트웨이, 다른 사업단 돌리고 종결하고. 정 안되면 1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소구역을 지정해줘요. 자활사업단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폭력사건도 있어서 그렇게 계속 사업단을 실습으로만 다 돌리고 그렇게 하죠. 또 7,8개 사업단 돌아보면 하나는 나오고 정 안되면 1인 일자리 만들어요. (종사자 8)

(질문자: 이분들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형 사업단을 만들고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보호 프로그램 듣는 것도 근로로 인정해주면 어떨지...) 저희가 디딤돌사업단이라고 그런 근로미약자들만 모아놓은 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사자 7)

(2)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자활사업 여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중장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FGI 결과,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사업이 없기에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운영되는 내용과 방식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업 성과는 센터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센터가 중장년과 1인 가구란 특성에 맞추어 관계성 개선이나 건강, 식생활,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고, 후원금을 통해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 센터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들은 센터별로 자체의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효과성을 가진다 해도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희 센터가 1인 가구 중장년층 대상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3년차예요. 1인 가구 중에서 관계성 개선이 필요하거나 본인 욕구가 있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목공교육, 스마트폰 활용교육, 사진교육, 건강교육, 반찬 만들기 교육을 시켜요. 시작은 6월에 해서 10월까지 진행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 또 하고 싶다고 하세요. (종사자 1)

1년에 한 번 주에 1회 하고 있고 2022년은 하고 있고 근로 내 시간에 하고 근로로 인정을 해드려요. 이 교육을 하면 이 교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시샘을 하세요. 교육 끝나고 나면 자기 너무 이런 거 알게 되어서 좋다고. (종사자 1)

저희는 1년에 한 번 참여자들 모아서 제주도로 여행가고 이런 걸 후원금으로 운영하는데 다녀오면 참여자들이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녀오면 잠시 일도 열심히 하고, 만족도 되게 높고 좋아하세요. (종사자 7)

저희는 몇 번 하다가 술 때문에 사고가 터진 뒤로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술을 너무 먹으니까.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어요. (종사자 8)

(3) 센터 내 교육 운영 및 문제점

센터에서는 자활에 진입하는 참여자의 근로동기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게이트웨이 단계부터 참여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참여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FGI를 통해 길고, 반복적이며, 자활근로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교육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면, 종사자들의 경우는 재정이나 전문인력 부족 및 센터의 열악한 상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FGI 결과, 센터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보였는데, 종사자들은 사업단 내 잦은 성비위 문제 발생으로 인해 의무교육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에게 필요한 여타의 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사 섭외는 물론 자체 교육 조차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여건은 사업단내에서 요구되는 직무교육 외에 참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을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 전달의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보통 성희롱, 성폭력을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종사자 2)

효과를 떠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야죠. 최근에 성희롱 관련된 문제가 사업단에 많아요. 미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방지해야죠. 방지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사자 1)

게이트웨이 하다가 사업단 들어가면 사업단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시키려면 자체교육을 해야되는데 자체교육을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광역교육 정도 참여하는데 자체교육은 곤란하죠. 인건비 기준도 있잖아요. 광역에서는 교육비 맞춰서 진행하는데 교육비가 낮아서 저희한테 교육을 오는 분들도 사실 구하기 어렵죠. 강사비 기준에 교통비도 따로 넣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 자체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자체 기금이 있어도 그걸 그렇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종사자 8)

교육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전문적인 분을 초빙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을 해도 강사님을 강사비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종사자 9)

개발원에서 강사분들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저희는 신청만 하고. (종사자 8)

(4) 센터 내 사례관리 운영 및 문제점

자활제도 시행 이후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현재는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관리사 배치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센터의 규모나 위치,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례관리사가 없는 센터도 많다. 따라서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곳은 종사자가 사례관리까지 떠안아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사례관리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배치된 센터는 센터대로 사례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열악한 농촌형 센터의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를 할 여력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되는 사례관리는 관리기간의 설정은 물론 목표 설정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자활사례관리가 5년이라는 장시간의 자활근로 기간 내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근로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활기간 내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너무 무리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자활기간을 사례관리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저는 느끼는 게 자활사업 자체가 이 참여 기간 설계를 할 때, 자활 경로를 설정하고 할 때 5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길게 사례관리로 끌고가는 게 부담이죠. 사례관리 할 때 일반 기관은 집중이나 위기 중심으로 치고 빠져서 명확한 성과나 결과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정을 사례관리 측면으로 보고 계속 끌고 가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들도 5년 동안 버티기 힘든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렵죠. (종사자 2)

그때 그때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사례관리죠. (종사자 1)

목표설정 자체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취창업을 자활사업의 목표로 두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참여자분들의 근로능력을 봤을 때 무리한 목표인 것 같아요. (종사자 2)

저희는 이분들이 자립, 자활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오시면 게이트웨이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농촌형은 특히 게이트웨이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면 바로 시장진입이나 사회서비스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종사자 4)

기준들이 너무 높아요. 하루 근태도 어려운 양반을 탈수급이나 취창업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죠. 이 분이 하루 나오고 하루 술 먹고 그런 삶을 사시는데 한 달 만근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무조건 창업이나 취업, 탈수급 해야 하니까 목표가 너무 높아요. 제가 자활에서 일을 하면서 2005년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알코홀릭 심한 분들을 여럿을 만났는데 알코올을 이겨내고 취창업 성공한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천 명의 사람을 봐 왔는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종사자 2)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한 참여자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집중사례관리 사업단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자활근로 중 시장진입형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단계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사자들은 이런 방식이 사례관리 전문가로서의 종사자 역량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전제조건으로 센터 자활근로의 평가방식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네. 그러면 기관 근무자 역량도 올라가요. 각 전문가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우리가 실무자나 창업전문가 모습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종사자 6)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기본세팅 인원이 있어요. 많고 적고가 아닌데 자활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략) 참여근로 인원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사자 4)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는 50명 중에 시장형 비율이 20%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 20%만 자활근로 하고 나머지 80%는 촘촘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종사자 6)

자활 사례관리는 일반 사회복지 사례관리랑 달라야 해요. 자활은 이분들은 어떻게든 자활에 근접하게 사례관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자원연계도 중요하지만 유형 다변화 기관이 있듯이 프로그램 다변화를 시범사업으로 돌려야죠. 1, 2년에 창업해서 자립 가능한 분들은 10%예요. 나머지 분들은 자활 프로그램을 과정을 밟으면서 한 계단씩 나가야 하죠. (종사자 6)

(5) 자활사업 수행상의 어려움

자활사업 수행과정 중의 문제나 어려움은 참여자, 종사자, 자활사업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활사업에 들어오는 참여자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자활에 진입하기 전부터 지녔던 알콜, 불면, 우울, 경계성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은 자활근로 과정에서 미숙한 직무역량과 불성실한 근태로 이어져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켜 사업 자체를 마비시킴은 물론 기존 수요처와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활근로는 일반시장과 비교하면 노동강도가 반도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건강 괜찮으시면 별도의 케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알코홀릭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문제의 요지가 커서 그 사람이 3명이나 있으면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종사자 6)

저희는 공공 영역의 일을 해요. 모든 00지역 쓰레기는 다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가 선별장을 운영을 해요. 중장년층 한 분이 어제 술 먹고 전화가 와서 가족도 있는데 일 힘들다, 반장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선동을 또 해요. 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선동되면 힘들거든요. (종사자 5)

진짜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는 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 자체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로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알코홀릭이랑 대화도 안 되는 분들에게 근로를 어떻게 시켜요. (종사자 7)

(우울증이나 조현병은) 그런 분들 1명이 20명 사업단보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알코홀릭은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힘을 쓰시고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대부분 관리해야 하는데 여성이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죠. (종사자 8)

공공에서 물량을 주고 성실하게 일만 해주면 수익도 나는데 이 일마저도 이런 문제로 신뢰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도 한 두 분 술 먹고 안 나오면 신뢰가 깨지고 나머지 사람이 과부화되는 게 악순환 되거든요. (종사자 6)

한편, 자활사업의 어려움은 사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사업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장성 혹은 경쟁력 부족, 시장개척 및 매출에 따른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센터와 사업단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영업이나 홍보, 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전담할 인력의 부재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아니면 사업단에

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민간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하여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자활 근로는 결국은 시장하고 결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붙으면 백전백 패예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늘려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야죠. 전체 참여자가 자활근로를 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 과정과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뉘어야 해요. (중략) 자활근로를 통해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시장으로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자활에 참여하면 자활에 안주해버리거든요. (종사자 6)

우리가 시장개척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1000개 팔린다고 납품하라고 하면 센터들에서 다 안 된다고 할 걸요. 근데 OEM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제품 만들면 될 수 있죠. (종사자 5)

일반 농가는 꽃이 싹하고 좋은데 우리는 죽어가요. 그걸 누가 사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고추 키우면 다 죽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농사 짓는 것도 그분들이 배운 게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로 배웠어요. 여기는 수익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종사자 6)

우리 편백이랑 영농이랑 진짜 힘들거든요. 서로 매출 경쟁 엄청하고. 가장 문제가 영농은 작물이 팔 때만 수익이 나니까, 키우는 기간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게 되게 문제가 커요. (종사자 5)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다중역할 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현장 종사자들은 자신이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과 자활사업 현장, 그리고 자활사업이 추진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 사이에서 모순 내지는 충돌을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조직 내 정체성이 행정실무자인지, 취·창업전문가인지 아니면 사례관리자인지 모를 정도로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은 전문가로서 참여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부 종사자는 단기간의 게이트웨이 이후 바로 자활근로에 투입되어야만 참여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0명 중에 괜찮은 분 한 분만 있어도 그분들로 인해서 작물도 재배되고 관리도 되는데 그런 사람 없으면 다 실무자가 직접 해요. 지금 퇴비 주세요, 지금 이거 자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서 직접 다 해야 해요. 나머지는 몰라요. 다들 유튜브 보고 있다가 지금 이것 해야 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 학습기관인데 돈 벌라고 하잖아요. (종사자 5)

게이트웨이 3개월 만으로 근로해야 수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업단 돌면서 계속 내부에서 갈등 있어서 옮기는 게 반복되다가 경고장 3번 받아서 밖으로 나갔다가 지자체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게 반복되니까. (종사자 7)

3)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역량

(1)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참여자 특성

지역 자활사업에 소속된 참여자들은 대부분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근로미약에 지적 장애, 음주 및 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종사자 FGI에 따르면, 현재 자활참여자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은 소수이며 이들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고용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이 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거 이탈함으로써 자활사업에 진입하는 사람들 중 근로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활사업의 성과는 강한 근로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현재 자활사업은 설정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할 사업수행 체계 간에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희 센터는 50, 60대, 근로미약, 술 및 주거문제와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거의 단절된 분들이시죠. 보통 일용직으로 일을 근근이 하시다가 조건부 생계수급자로 센터에 오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종사자 2)

전체 참여자 중에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67:33입니다. 남성이 33%이고 40대 이상이 111명 60%에 해당합니다. 전체 자활 중년층 중에서도. (중략) 신체적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알코홀릭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중 장애가 있으신 분이 4% 있으시고 건강 양호하신 분이 전체 2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디가 한 군데는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 1)

그분들이 알코올도 갖고 계시죠. 복합적이죠.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은데 대마를 하면 담배를 하잖아요. 우울이 있으면 알코올도 있고. (종사자 3)

제가 2006년에 입사를 했는데 자활참여자가 100명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2012년도 취성폐부터 급격하게 들어온 분들 근로능력이 떨어지더니 지금 바닥을 쳐버렸어요. 걸러지는 거예요. (종사자 5)

10명에 2명이나 3명은 괜찮으시고 그분은 사업단의 허리 역할을 하시죠.

2:8이죠. 업무하는데 (근로미약자가) 3명 포진되어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종사자 5)

중장년 참여자 중 본 연구대상인 1인 가구 참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인 가구 참여자들은 기존 중장년 참여자가 지닌 부정적 특징들이 좀 더 강화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자활제도권 내에는 근로능력을 가진 중장년보다는 근로와 취·창업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미약자의 진입이 훨씬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활사업에 새로이 진입하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음주, 우울, 조현병 등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물론, 교육이 불가능한 지적 장애가 있으며, 개인 위생 등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되고 자활의지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1인 가구 분들은 거의 알코홀릭이고 사회성도 떨어지시고. (종사자 2)

대부분 알코홀릭이지요.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자활로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은 1인 가구 중장년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와요. 지금 시점은 다 알코홀릭 80%, 조현병이나 지적 장애인 분들이 20%예요. (종사자 5)

1인 가구 특징은 불성실해요. 주위에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근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건강관리나 개인위생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자활 의지력도 떨어져요. (종사자 6)

저희는 중장년층을 40~60세까지 보거든요. 40대가 60% 이상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6:4로 높아요. 사회서비스형 근로가 1인 가구 참여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치료나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혼, 사별로 인한 문제와 문맹이 있으시고 학력이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알코올이나, 우울증, 조현병이 많으세요. (종사자 9)

신용불량과 남성분들은 알코올에 가깝고 신체, 정신건강이 나쁘고 고령인 분들이 많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언어표현이 너무 거칠고 소통이 어려워요. 그리고 학습 정도가 어려워요. 저희가 운전을 좀 시켜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종사자 8)

결국, 현재 자활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의 현실은 20~30% 정도의 근로 가능한 1인 가구 참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동기 및 직무능력은 최하인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은 센터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졌고 도시형인지 농촌형인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창업이라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근로역량을 강제하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로동기와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해 보였으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사업을 차별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센터와 종사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주축으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알코홀릭이거나 범죄자이신 분이시죠. 극과 극이에요. 알코홀릭은 5, 6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로 겨우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들만 모아놓고 사업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분들만 대상으로 사업단을 만들면 도시는 괜찮지만 농촌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종사자 5)

00은 장년층 1인 가구가 대부분이죠. 남자분들 대부분이고 여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8정도 되고 남자분이 2였는데 지금은 남자분이 8이고 알코홀릭, 이혼가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칙적으로 이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종사자 6)

알코홀릭이 가장 많아요. 상담하면서 자활센터에서 근태나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 대상으로 자활에서 근무한다고 자립을 못 하는데 징검다리거든요. 사업장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힘든 분들은 3:7이에요. 3은 상위권이고 7은 조건부 수급이고 계속 나갔다 들어오고 반복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30%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자립해서 나가야 한다고 기술 방향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기술도 정말 배우려고 하세요. (종사자 7)

20~30% 사업단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자활센터에 오래 계셨고 안 나가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다른 곳보다 자활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여기가 나오니까. 본인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일하기 어려우시죠. (종사자 8)

(2) 참여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사자 개입역량

앞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특성에서 언급하였듯이 1인 가구 참여자 다수는 자활근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음주, 우울, 분노조절 장애, 경계성 장애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지니고 있고, 자활근로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지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의식주 등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센터의 종사자들은 자활사업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참여자의 근로동기를 높이고,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이들의 규칙적인 근태가 가능하기 위한 첫걸음인 일상생활의 정상성 회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사자의 참여자 문제에 대한 개입역량은 센터가 위치한 지역이나 활용가능한 주변 자원의 유무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정신과적 소견을 지닌 참여자들의 경우, 유사시 법적 제재나 병원 의뢰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단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 전문기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문제 외에 규칙적인 섭식 및 사회적 이동 등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참여자에 대한 개입과 문제해결의 경우에도 제도나 매뉴얼 미비로 곤란을 호소하는 종사자가 많았다. 결국 현재 종사자가 발휘할 수 있는 개입역량은 자활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제도적,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알코올 측정기 넣어놓고, 측정해서 나오면 기준을 정해놓고 이 수치가 되면 돌려보낸다고 하고... (종략) 그니까 주중에는 좀 적게 드시고, 주말에도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이니까 조금 조절은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요. 넘어가면 경고장 날리고, 세 번 경고장 날리면 해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많죠. (종사자 7)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어렵죠. 법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종사자 8)

저희도 사례회의 가고, 수퍼비전 받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토론을 하고 결정했어요. 어쨌건 이끌어 가야하니 그렇게 선택했어요. (종사자 7)

저희는 정신과 상담 통해서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 다시 발병되면 시간을 조금 드리고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종략) 근데 워낙 저희는 의료원이 없으니까 정

신보건센터에 거의 의뢰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종사자 9)

조현병인 분이 환청 들린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랑 대화할 때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종략) 00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서 상담을 했는데도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사자 7)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비가, 수급비가 된다고 설득해서 병원 가도록 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병증이 없으시면 아예 개입이 어려워요.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다들 미쳤다 하고 끝이에요. (종사자 8)

그분들이 우울증 겪으면 식사를 아예 안 하시고 술만 드셔서 영양결핍이 심한데 1인 가구이고 하다 보니 더 상황이 어려워요. 가전제품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양결핍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지역적으로 연계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종사자 9)

버스타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밀키트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종사자 8)

(3) 자활참여자의 근무역량 강화 방안

가. 자원으로로서의 외부기관 연계 및 협력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의 큰 취약점인 근로동기를 고취하고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센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망과의 연계를 통한 훈련 및 취·창업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FGI 결과, 센터 자체의 발굴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외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종사자들은 다양한 외부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자활참여자와 일반 중장년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그리고 이런 협력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과 고용 창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역량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외부자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물론, 자활기업 창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을 갖는 종사자들도 다수였다.

(질문자: 예를 들어 50+센터나 중장년지원센터와 연계하면) 교육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듣더라도 수료가 확인이 되면 가능하니까요. (종사자 2)

취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나 중장년 지원센터 참여자분들과 견주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상으로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사자 1)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많은 삶의 부분이 공유가 되잖아요. 8시간 근로를 한 공간에서 하니까. (중략) 교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땀 흘리고 하면 친해질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종사자 2)

지역자활에 참여하면 다문화센터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자원과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순기능이 뭐냐면 우리는 목표가 자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외부 센터에서 필요하면 연계를 하면 되죠. (종사자 6)

그렇게 프로그램하다가 기업으로 창업하실 때 그 선생님들이 저희 참여자랑 같이 하는 게 가능할지... 50+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수급자가. (종사자 1)

번외로 자활기업이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나가는 것 말고 다른 경로를 센터 내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기업이 구성만 갖추면 되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인정받을 때도 형태만 갖추는 것처럼 자활기업도 그런 형태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기업 실적사항을 위해 쪽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활기업으로 볼 수 없는... (종사자 2)

외부자원으로 연계해서 기업을 꾸리면,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이 많은데 외부에서 얼마만큼 유지할지, 외부에서 소통은 원활할지가 걱정이 되고. 자활기업의 참여주민 고용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요. (종사자 1)

근로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고민되는 게 자활기업으로 연합되고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창업교육이나 여러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지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활기업쪽에서 쫓는 거거든요. (중략) 실제로 기업들은 참여자들 고용을 안 하니까. (종사자 2)

나. 사례관리 체계 개선

그간의 사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종사자들이 현재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FGI를 통해 도출된 종사자 의견을 보면, 차후 자활 사례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자활의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례관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사례관리는 자활 근로와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심리정서상담-직무교육 혹은 ISP-인턴십-자활근로 준비 등의 순서로 단계별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례관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활이 가능한 상위 10~20% 정도의 참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를 받은 참여자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이 기존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자활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도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적 속성이 급격하게 변화해 온 만큼 제도의 비전과 목적, 실천방법은 물론이고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활 사례관리는 일반 사회복지 사례관리랑 달라야 해요. 자활은, 이분들은 어떻게든 자활에 근접하게 사례관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자원연계도 중요하지만 유형 다변화 기관이 있듯이 프로그램 다변화를 시범사업으로 돌려야죠. 1, 2년에 창업해서 자립 가능한 분들은 10%예요. 나머지 분들은 자활 프로그램을 과정을 밟으면서 한 계단씩 나가야 하죠. (종사자 6)

사례관리랑 자활근로로 세분화를 해야 해요. 1단계는 심리정서그룹으로 하고, 2번째 그룹은 직무교육이나 ISP를 하고, 다음 단계는 인턴십프로그램 하고, 4단계는 자활근로 준비단계라고 해서 사업단마다 게이트웨이 식으로 하고요. (종사자 6)

10% 되는 자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죠. 시장과 동등하게 갖추고 기업에 나갈 뭔가 만들어서 그 10%를 가고 싶게 해야죠. 자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가 원하는 만큼 투입이 어려워서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더 예산을 오픈해주면 되는데 비율 때문에 오픈을 더 못하는 거예요. 도시랑 농촌이랑 지역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사자 6)

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소

본 연구대상인 참여자들은 생애주기상 중장년이란 특성 외에 1인 가구의 특성도 지니고 있기에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활만큼 사회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인 가구 참여자 대부분은 전월세, 원룸, 고시원, 쪽방 등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혼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주거형태는 자활근로는 물론 건강 회복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망 확보를 통한 정서적 고립 방지란 측면에서 전혀 긍정적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경험에 의하면, 다수의 1인 가구 참여자들은 사업단 근무시간을 벗어난 사적인 공간에서는 언제라도 자활근로 진입 전의 흐트러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성을 보여주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 외에 사회적, 정서적 자활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공동체 생활이 유용한 대안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종사자들은 참여자 대상으로 시간제 사업단을 꾸리고 오후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자조모임을 진행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자 자조모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단주거 방식인 공동체 생활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일부 종사자는 LH와 연계하여 생활형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이 지역사회 자원이 별로 없는 센터의 경우에는 자원확보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생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자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의 용이성을 기할 수 있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 자체별로 이미 이런 주거방식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타진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처럼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사업단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시쯤에 끝나서 6시까지의 자조모임을 구성해주는 사업단이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분들이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남자들이라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자조모임 하자면 안 하실텐니 근무시간으로 당겨서 자조모임을 갖자고 하면 관창을 것 같아요. (종사자 3)

이분들 특성이 저희는 고시원에 많이 사세요. 그래서 고시원을 하나 사 가지고 이분들 모셔놓고 저녁에는 프로그램도 하고, 실무자들이 돌아가면서 고시원 총무를 하고, 숙식제공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활비는 적금을 들여드리고 그 자금 모아서 LH연계해서 독립해서 나가시도록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공간에서도 자활을 위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사자 2)

이어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이 마련될 경우, 이곳을 거점으로 그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생활프로그램과 자활사업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사업단의 매출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저는 몇 개의 포인트로 모델을 삼아 해보고 긍정적이면 전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LH에 전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00도에서 노숙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착안을 했었거든요. (종사자 2)

LH가 매입임대로 공간을 사서 저소득층에 공급을 하잖아요. 이것을 직접 관리를 LH가 하기도 하지만 관리주체를 위탁으로 주기도 해요. (종략)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관리비를 받아서 집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활센터가 받아서 관리하면서 생활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저녁에는 프로그램 해서 생활교육하고. (종사자 2)

그거를 매입임대로 하고 자활임주해서 생활하고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주거가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도 안락하게 꾸며놓고 하는데 규칙과 규율을 안 지키고 퇴소 조치 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지키시고. (종사자 2)

00구는 00마을이라고 아파트촌을 원룸형으로 지었어요. 거기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해서 자활로 가져오면 되죠. 거기 주민들이 꽤 있으신데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거기 입주비용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거기를 친구한테 주고 자기는 다시 쪽방에서 살고 그래요. 그걸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운영하면 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종사자 3)

종사자들은 현재 자활의 수요처는 주로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이 모델을 시범 사업으로 하여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유지한다면 1인 가구 참여자들에게는 주거 안정, 생활안정이 되어 좋고,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와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지며, 역량 높은 사업단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업모델 역시도 재정이나 전담인력 인건비 등 사업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사람들이 관리비로 얼마를 내면 비용을 매출이 아닌 별개로 모아서 유지보수로 쓰고 그걸 자활사업단이 그 유지보수를 도와서 하고. 이거는 사람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 돈이 모이는 거고 그 돈에서 보수비용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종사자 2)

거기에 청소사업단도 들어가고 주거복지도 되고 외식사업단 운영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종사자 3)

주거지 안정과 알코홀릭 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면서 어떻게 자활에 이바지할지, 매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거둬들일지... 아파트 한 동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사자 1)

건물 자체 관리나 청소, 유지보수나 식사 관련해서 사업단이 연계할 부분이 많죠. 이걸 하게 되면 이거 관련된 실무자나 예산이 일정 부분 확보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던져주면 센터 부담이 크니까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을 보려면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이걸 보기보다 그 안에 별개의 프로그램 형태로 보고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사자 2)

라. 참여자의 정신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활참여자의 정신보건 문제는 자활 진입부터 종료 이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개인 자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자활 진입 전부터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방치된 상태로 있던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진단은 도외시된 채 단기간의 게이트웨이가 끝나면 자활근로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자활 진입 후에도 종사자들의 스크리닝을 통한 전문가 의뢰와 진단 및 치료가 신속, 용이하지 않은 현실로 인해 정신과적 징후를 가진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다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먼저, 지역사회 내에 해당 기능을 충족시킬 자원 부족과 참여자의 의지 부족이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소수의 도시형 자활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현장종사자들이 이들을 의뢰할만한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전혀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내에 정신보건 관련 지원 센터가 있다해도 참여자의 증상을 회복시킬 만한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결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타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원거리에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마저 없다면 자활사업 자체나 여타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방치되어 있다가 오시니까요. 이미 조현병이나 알코홀릭이 많이 진행이 되셨거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병원에 계셔야 해요. (종사자 5)

진단을 받고 와야죠. 사례관리사가 얘기하다 보면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중략)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지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분들은 환자예요. (종사자 6)

저희는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00(지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상설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알코홀릭이었다면 지금은 자살이 집중되어서 알코올을 관련 상담이나 서비스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고요. 사업단이나 모니터링 수준에서는 연계하지만 알코홀릭 의심되고 초기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알코홀릭 쪽으로는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데 본인 의지가 없다보니 연결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원들을 좀 제공받고 같이 가서 초기상담도 하고 그쪽의 관리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2년 내에 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사자 2)

지역 안에도 보면 보건지소에서 케어가 안되거든요.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분이 계시지만 실은 다니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중략) 나중에 이게 주기를 정해놓고 방문상담을 간호사가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외부자원이 오면 더 쉽지 않죠. 자원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종사자 4)

농촌에 있는 지원센터가 전문성이 높을까요? 그냥 케이스 관리만 해요.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한 걸음 나아가는 케어를 못해요. (종사자 4)

다른 문제는 정신과적 징후를 가진 참여자에 대한 진단이 자활사업 진입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못하고 게이트웨이 이후의 교육단계를 밟는 과정 중에 현장종사자나 사례관리자에 의해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례관리자 등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 참여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령 전문기관에 연계되어도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있죠. 저희가 상담을 빨리 받아야 하고 개입이 시급한 분들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 연계를 해요. 그래서 사업비 지출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급자라 의료급여를 받으니까 비용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진료 받고 약을 받아먹도록 합니다. 근데 초기 연계 이후에 지속성은 부족한 것 같아요. (종사자 2)

00(지역)에 00 지원센터가 있어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요. (중략)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고 중재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끼리 배척하고 자활기업 투표에서 그분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뒤로 속상해서 술 드시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종사자 3)

방치죠. 사례관리사가 약 드셨어요? 그런 거나 물어보고 하는 건데 그 정도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자활 1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종사자 5)

게이트 과정에서 술 문제 있으신 분은 근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관련된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상담 이력을 통해서 과거에 우울증 약을 복용했거나 그런 걸 보거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 안내를 하고 모시고 가죠. 근데 진단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죠. (종사자 2)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개입도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도 알코홀릭인 분들이 저에게 쌍욕을 했거든요. 누군가 자해나 타인을 해할 때만 동의 없이 개입할 수 있어요. (종사자 8)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은 참여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인력 부족과 매뉴얼화된 전달체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원가를 개발하고 싶어도 지역 여건과 센터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러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기 인원이 적든 많은 상관없이 똑같은 풀과 인력이 갖춰지면 다 똑같이 가능해요. 이 지역이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원에 요청할 수도 있고 광역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연계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종사자 5)

쉽지 않죠. 그래서 자활사업이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로능력이 미약하니까 의지나. 근데 그런 부분이 전 센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것도 아닌데 그런 요구가 있죠. (종사자 2)

이처럼 정신보건 문제를 지닌 참여자에 개입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보니 현장종사자들은 센터의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대응,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에서는 사업단에 배치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양 과정에서 우울증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센터의 경우, 초기 상담에 검사지표를 넣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의 기능만 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종사자간에도 개입 방식에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자활근로에 오는 참여자에 대한 종사자간 통일된 인식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지침이 구축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걸 소양 과정으로 넣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참여주민들 교육 내에서 우울증 자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인자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전체 소양과정으로 다룹니다. 게이트웨이 통해서 입문교육으로 사업단 할 분들이 배치가 되시면 사업단에서 하시다가 한 달 뒤 직무소양교육을 받으세요. 그때 해요. (종사자 1)

제 생각에는 소양교육이나 교육으로 받기보다 이걸 하려는 취지가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초기상담에서 알코올중독이나 우울검사 같은 검사지표를 넣어요. 몇 점 이상의 위험단계로 구분되어있는데 그렇게 넣고 점수화 했을 때 자원들 연계를 해서 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요? 교육을 불려서 한다는 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요. (종사자 2)

4) 자활사업의 일자리 연계와 정책적 지원

(1) 자활참여자들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망

제도가 정한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으로서 이는 현장종사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자활참여자들의 취·창업 실적을 통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어쩌면 참여자들보다 더 절실한 목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활근로 기간 동안 참여자들에게 취·창업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직업훈련,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 관, 산, 학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은 절실히 보인다. 종사자 FGI 결과, 지역사회 내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을 실시하는 센터도 있긴 하였지만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에 1인 가구이며 직무역량마저 충분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자활 종료 후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인력파견이나 실습 등 직업교육을 받는다거나 일자리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취업이) 구성원 중에 한두 명 정도요. 1인 가구 중에서는 한 명 정도 사업단별로. (종사자 1)

기준점은 잘 모르겠지만 100명 중에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종사자 3)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5%이고 많이 잡아도 10%는 안 될 것 같아요. (종사자 2)

저희가 인적자원 자체가 너무 없어요.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 하거나 그런 정도로 버티다가 다시 오거나 공공근로로 대부분 가세요. 가끔 젊은 분들이 요 양보호사나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셔서 기관이나 활동 쪽으로 가세요. 근데 고용상태가 불안 정한 분들이 많죠. 일용직이나 공공일자리로 많이 가세요. (종사자 8)

직접적으로 파견을 했을 때 오케이 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여러 군데 매칭을 해봐야 해요. 저희가 인력파견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잘하면 고용도 가능한 업체에 파견을 하는 거죠. (종사자 1)

제가 올해 만든 게 컴퓨터 교육을 업체 하나랑 협약해서 무료로 하거든요. 나스에다가 명단 을 넣어놓으면 팀장님들이 선착순으로 집어넣어서 보내고 있어요. (종사자 3)

저희는 연초에 교육까지 업무분장을 해요. 누가 무슨 교육 하겠다고 나누고 사업단별로 특 화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기는 하죠. (종사자 1)

저희 자활은 지금 취업 정보를 연계하기가 어려워요. (종사자 8)

특히 남성 1인 가구 참여자의 경우, 음주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직업훈련, 인턴십 및 일자리 연계가 더 어렵고, 연결되었어도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참여자라 해도 일자리 성격은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장 눈 앞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야 하는 참여자들에게는 그것도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었다. 따라서 현장종사자들은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취·창업보다는 오히려 소양교육, 인간관계 교육 등이 더 적절한 목표인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00(지역)이라도 차이가 많아요. 00(지역)에서 근로능력 최하위인 사람이 00(지역) 가면 에이스거든요. 00(지역)은 공단도 있고 취업자리가 있는데 역량이 좋아서 본인들이 자발적으 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00(지역) 경우에는 무조건 알코올 문제가 있거든요. 부 채량 알코올 문제가 무조건 있어서 그 분이 알코올 때문에 종결을 결국 하게 되셨어요. (중 략) 제가 반장 급으로 대우할 정도로 역량이 좋아서 업체에서 취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알코 올 때문에. (종사자 3)

이분들이 디지털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제공받기가 어려워요. 고용센터 자체가 실직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활을 그만두고 가야해서 거길 가려고 안 해요. 고용센터가 취업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활은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종사자 8)

연계가 지역 내에서는 좀 어려워요. (중략) 00(지역)은 예전에 연계했던 곳이 잘 안되니까 다 끊어졌어요. 연계해도 제대로 출근 안하시고 하시니까. (종사자 3)

취창업 교육보다는 소양이나 관계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죠. (종사자 2)

(2) 자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현재의 자활제도 안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노후 모습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전문 돌 듯 자활센터 주변을 맴돌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 정착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참여자들이 자활센터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변에는 자활근로 자격은 물론 자활근로 기간이나 진입 횟수가 명확한 기준없이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자활제도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했던 교육이나 훈련 및 근로경험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활사업은 근로미약자들이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나 훈련없이 근로에 바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일자리 지원제도에 비해 더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활제도와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재탐색하고, 변화하는 시류에 맞게 목적과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귀기울여 볼 가치가 충분하다.

늘 고민하는 게, 중장년 1인 가구가 지역마다 특색은 있지만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60년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면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활에 있다가 자립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의 제도 자체를 바꾸면 좋겠어요. (종사자 7)

국취과정에서 자격증을 따면, 그거를 자활에서 경력을 쌓고 기술훈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면 좋겠어요. 자활에서 훈련이랑 연습하고 3년 그러면 일반 노동시장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사업단 하나하나 만들고 그걸 반복하기보다 자활이 그런 기술훈련 센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종사자 7)

자활센터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개발원에서 그런 기능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이상 중장년 분들이 국취 이후에 자활센터에서 기술훈련을 하거나 20대는 검정

고시를 딸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활이 지금처럼 매출에만 신경 쓰면 실습이나 훈련의 장이 되기는 어려워요. 자활센터에서 좀 더 그런 역할을 크게 하면 좋겠어요. 50대 중장년 분들은 계속 나가도 다시 들어오니깐 기술습득이 중요하죠. (종사자 7)

5)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1) 참여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지역별, 센터별 차이는 있겠으나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자활사업단을 구성하는 참여자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들이 있는데 근로미약 참여자의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다. 지역자활센터 중 농촌형의 경우에는 자활대상 참여자가 없거나 고령의 근로미약 노인으로만 구성된 반면, 도시형의 경우에는 참여 대기자가 너무 많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사자들은 자활이 근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지전달체계로서도 기능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지역 특성과 자활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함을 물론 자활근로에 무리가 있는 참여자에게는 센터가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거기가 노인밖에 안 살아요. (종사자 5)

농촌은 다들 그래요. (종사자 4)

(지역자활센터가 없다면) 지역자활을 규모로 하지 말고 해야죠. 그분들은 지역자활에 나오는 것 자체로도 중요하거든요. (종사자 6)

이분들은 그냥 집에 계시고 나오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하고 돈을 주던지, 밖으로 끄집어내서 소일거리라도 활동 하면서 생기를 넣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그 분들 그렇게 술 먹다가 죽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일하시던 분도 집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나오다가 (자활) 기간 끝나고 나서 한 달... (종사자 5)

복지전달체계로 봐야 하는데 그분들을 시장으로 몰면 안 된다니까요. (종사자 4)

자활사업에 진입하는 참여자가 점점 고령화되는 만큼 현재 탈수급 혹은 취·창업이라는 단일한 성과중심 목표도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종사자들은 경험상 자활사업의 목표는 취·창업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활사업은 정서적 자활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종사자들은 참여자들의 특성과 사업 현실은 도외시한 채 센터의 성과평가가 참여자 수, 교육이수 시간, 취·창업 수 등의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큰 부담을 나타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프리랜서로라도 하시면 성과에는 안 잡혀도 속으로는 뭔가 해냈다는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라도 하시니까. (종사자 3)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네요) 그죠. 취창업이 기준이 아니죠. (종사자 2)

성과평가에 차별화를 두거나 정서적 자활에 많이 초점을 뒀야죠. 교육이수시간은 너무 부담이 돼요. 참여자 수량.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반드시 정해져있어서 그게 부담이 되고 교육 시간이 부족한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교육시간이 성과평가에 들어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종사자 7)

(2) 물리적 환경 개선

종사자 의견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자활사업 내용을 근로와 함께 정서적 자활에도 초점을 맞출 경우, 각 센터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담당할 인력과 예산,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신규 사업으로서의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인력과 비용 등 제반 여건의 구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센터가 인력이나 사업비, 인프라 등 환경 면에서 열악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제도적으로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는 종사자에게 또다른 업무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6) 중장년을 위한 신규 자활사업모델 방향

(1) 향후 자활사업의 전개 방향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근로에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사업은 현재 제도가 갖는 가치만큼이나 많은 한계도 노출시키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발맞추어 자활 목표, 참여대상, 사업의 속성 및 종사자의 역할 등 제도 전반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함에도 발 빠르지 못한 대처로 인해 제도와 실천 현장 간에는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FGI를 통해 현장종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와 향후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자활근로를 통한 취·창업과 경제적 자립은 대부분 도달 불가능한 목표이며, 대신 그들의 생애주기와 인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즉, 근로에만 초점을 맞춘 취·창업을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자활근로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일상에 나타난 사소한 변화도 자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사자들은 또한 정서적 자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도 가능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역량강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좀 어긋나는 얘기지만 질문지 보면서 그냥 조건 안 달고 돈 주면 안 되냐? 싶더라고요. 개념처럼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면 안 될까 싶은 거죠. 이 정도 분들은. (종사자 2)

정서적 자활과 역량강화가 되어야 경제적 자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자활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게 되면 경제적 자활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죠. 나도 남들처럼 출퇴근하면서 살아야하겠구나 그걸 얻어야죠. 그래서 역량강화나 정서적 자활이 우선되어야하죠. (종사자 7)

저는 경제적 자활을 위해 정서적 자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장년층은 시장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 8)

이분들에게 단계를 만들어 주고 단계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자활근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자활근로를 생각하기 전에 사례관리를 보강해야죠. 이분들이 본인이 가진 정신질환, 근로능력 미약, 건강요인과 같은 장애요소를 해결해야죠. 이분들에게 그냥 자활사업을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종사자 6)

저희는 힘들잖아요. 아예 없게 하면 좋겠지만 그나마 저희 쪽에 와서 생계급여 받다 죽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목적이 자활이고 탈수급만 보고 갈 게 아니라 뚫기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지만 대구까지만 가도 인정을 해줘야죠. (종사자 3)

자활에 진입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은 무시한 채 참여자 수, 교육시간, 매출액, 취·창업자 수 등 계량화된 수치에만 매몰된 사업 목적과 성과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다. 종사자들은 현재의 운영성과 평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이 가능해지기 위해 먼저 단계별로 전제되어야 할 많은 부분을 평가가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장 경험이 많은 종사자들은 참여자들의 자활근로와 경제적 자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일상생활의 회복’을 지적하였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생활의 영위가 자활에 참여한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너무나 도달하기 힘든 목표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를 위한 신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면 자활근로 진입 전 혹은 자활사업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복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하니까요. 성과평가만 하니까. 질적 성과평가도 하고. (종사자 2)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이거예요. 근데 이 역량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알코홀리즘 회복한 분들이 다섯 분이나 되는데 그걸 성공사례로 안 치잖아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라포형성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종사자 5)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그게 문제죠. (종사자 4)

단계가 있으면 우리가 와서 소통하고 연계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사자 5)

센터 기관장이 이 사람들을 정말 자립시키려고 해서 자립을 위한 사업단도 있는 반면에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곳도 있다 보니 매출에만 집중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력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종사자 7)

(2) 자활사업의 방점-고용인가 복지인가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전개될 자활사업은 비전이나 정체성 확립에 있어 고용과 복지라는 두 축이 동시에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활 진입이

점점 늘어나는 중장년들의 다양한 생애 이력과 직무역량을 고려한다면 이 세대 안에서고 고용으로 갈 것인지 혹은 복지로 갈 것인지 두 가지 경로로 집단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에 참여하는 중장년 중에는 분명 진입 전까지 사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자활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참여자의 경우, 기존의 자활사업은 본 연구의 관심인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계를 가질 것이다. 즉, 이들은 강한 자립 동기와 근로능력을 가진 반면,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수준에 만족하기 힘들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한 경제적 자활이 불가능함을 느끼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사회에서 기존에는 직업을 잘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와 경제적인 부분으로 자활에 오게 되셨거든요. 그 분들은 전에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나가겠다는 목표치가 있으시거든요. 기존의 자활은 저희 사업단 14개에 게이트웨이로 와서 사업을 경험하는데 세탁이나 급식 위주라 오는 사람들이 그 사업단을 둘러봐도 기존에 하던 일에 비해서 이 자활사업과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종사자 7)

이처럼 자활 진입 전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자활에 들어온 참여자에게는 향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그들의 과거 경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센터가 실질적인 기술교육장 내지 직업훈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참여자가 제안한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웠다면 자활사업단은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품을 만들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의 장 또는 실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게이트웨이 상담하신 분이 자활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술을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소자본으로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오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에서도 하지만 거기서도 1년간 따는 자격증으로 취업이 어렵거든요. 일이나 경력 없는데 자격증 하나 있다고 50, 60대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서 자립을 정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국채에서 먼저 배우고 여기에서 기술을 갖고 닦아서 나갈 수 있도록, 식탁이나 뭘 만든다거나 사업단에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업단은 거의 없는데 그런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종사자 7)

반대로, 자활에 유입이 점점 많아지는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당연히 복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종사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근로미약 중장년에게는 경제적 자활에 앞서 정서적, 사회적인 자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현장의 현실은 제도가 가진 한계 속에서 사업단 매출액 신장과 정량적 성과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작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회복에는 종사자들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카테고리들 연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평가도 받아야 하고 매출도 올려야 해요. 알코홀릭은 최고 2주 병원에 입원해있어야 하는데 입원치료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 관리하면서 약 먹으라고 하고 술 먹지 말라고 하고 희망을 주고 푸시하면서 바뀌어야 하는데 복지부나 개발원이 원하는 목표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다고요. 저희는 복지기관이에요. 이분들이 따라오기 어려우면 버려지게 되거든요. (종사자 5)

나이가 들면 나가라고 할 거고. 이 사람들은 노후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빚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방법도 없고 제도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려우면 그분들이 찾아와도 저희가 지원이 어려워요. (중략) 공공사업장 하면 최소한 보호는 어느 정도 해주고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이런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우리도 돈을 벌고 매출을 올려야 해서 맞지가 않아요.

(종사자 5)

지금은 제도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저는 일자리가 자활센터는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이분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일로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지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냥 취업이랑 창업으로 내몰리면 센터나 대상자들은 어느 순간에는 5년이나 3년 안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한계가 있죠. 복지적으로 할 부분도 아니고. (종사자 4)

이 사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5년 됐다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연장을 원해도 지자체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몸을 움직이면 사람이 활력이 생기니까 자활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창업이랑 취업으로 연결은 어려워요. (종사자 5)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니까 목적을 복지전달체계로 봐야 하는데 그분들을 시장으

로 몰면 안 된다니까요. (종사자 4)

그분들이 단계만 올라가도 그게 성과죠.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발전한 거니까. 지역자활센터 이름도 자활복지센터로 하든가 바뀌야 할 것 같아요. 자활복지가 나온 것 같아요. 자활복지개발원처럼 자활복지센터로 가야죠. 정확하게 이거는 자활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체성을 갖고요. (종사자 6)

7)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자활사업 개발

(1)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

현재 자활에 진입하는 참여자의 특성, 사업단 유형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면 자활사업의 목표는 분명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수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직무능력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FGI 결과, 종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자활사업의 내용은 물론 목표와 성과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차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중장년의 능력에 맞추어진 최소한의 목표와 특화된 맞춤형 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장년 1인 가구만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사업단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상 힘들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앞으로 자활이 살아남으려면 농촌과 도시는 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해요. 농촌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층이세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노동해서 매출을 만들지 생각해봐야 해요. 일반시장에 진입을 해서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를 투자해도 이분들은 다시 돌아와요. 일반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돌아오시죠. 우리가 일반인을 생각한 목표치가 아닌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야 우리도 시간이 생기죠. 농촌은 새로운 사업 발굴도 어려워요. 그 원인이 도시형 때문인 것 같아요. 도시형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농촌은 배제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저희 현장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구나 싶어서. (종사자 5)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도농형이에요. 도시형도 도시형 나름 고충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실무자들이 찢쩍매고 다들 막 창업을 원하고 그래요. 역량도 높고. (종사자 6)

저희는 이미 근로능력이 바닥이거든요. 농촌은. 와서 보시면 심난해요. 재활용도 그냥 반복

이고 단순화되어서 가능하지만 생각해야 되고 고도화된 거는 못 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열어주셔야 해요. 그쪽으로 가야만. 이 분들이 일반 시장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올라가면 올려 보내고, 못 올라가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종사자 5)

중장년 1인 가구만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현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시자마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어렵기는 해요. 단순히 중장년 1인 가구라는 이유 만으로요. (종사자 2)

(2)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 개발시 고려사항

종사자들이 판단하기에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계획할 때의 핵심은 참여자가 자활진입 전부터 갖고 있는 알콜이나 우울 등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고려할 것과 참여자들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더디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사자들은 중장년 1인 가구만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단을 꾸릴 경우, 기저질환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역동을 특히 신경써야 하며, 사업 종결 후의 종착지로서 시장형 일자리 진입을 계획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표를 기대하기 힘든 참여자를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알코올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다를 것 같아요. 교육할 때 알코올 문제 있으시면 멀쩡하실 때는 적극적이고 하시려고는 해요. 근데 우울만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적극성이 너무 낮으셔서 끌어올리기가 힘들죠. 단순 프로그램 하듯 그룹작업 할 때 알코올 계신 분들 섞이셔도 그룹역동이 잘되는데 우울이 모이면 역동이 힘들더라고요. (종사자 2)

저도 아이디어 낸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인과 같은 노동 강도는 못 하지만 한 달 안에 이만큼만 가면 된다고 하면 갈 수 있죠. 늦게 가도 되는 사업을 개척해야죠. 한 달에 일반인들은 풀베기를 3일하면 끝나요. 그 예산이 500만원이면 이걸 우리는 한 달 동안 오백만원 받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더더도 그 일을 해내면 되거든요. 일반인들 3일만 하는 걸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하면서 해내는 거죠. (종사자 6)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술 마시는데 이분들을 꼬집어내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무무리는 무조건 시장형으로 가야죠. 근데 이거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공

분야쪽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시장형 못가면 공공근로로 가게요. (종사자 5)

해양쓰레기 줍는 걸 저희한테 주면 1년 내내 쓰레기 줍는다는 거예요. 00군에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주도록 개발원에서 그렇게 하면 군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좀 힘을 써서 해주면 되죠. (종사자 6)

(3) 중장년 1인 가구에 필요한 자활사업 유형

종사자 FGI를 통해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역량을 고려한 사업 또는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업도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시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및 참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심리적·정서적 지원 및 일상생활의 회복이란 측면에서는 음주나 도박 등의 습관을 치환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숲체험 등의 여가문화가 제시되었고, 사회기술훈련으로서 대중교통 승차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종사자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놀이문화가 없어요. 모여서 할 게 술 마시고 도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하면 좋는데 보드게임도 어렵고 제한적이라 술 먹는 것 외의 여가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가 경험도 안 해보셔서. (종사자 2)

취미생활로 대상자 중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사비로 화구랑 사서 드렸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종사자 3)

저희가 게이트웨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려봤거든요? 알코홀릭이 있고 그런 분들 데리고 제가 자연휴양림을 데려갔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좋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정서적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종사자 7)

정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세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특히 사회적 연결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취업을 하셔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발굴도 필요하겠지만 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사업단 지원이 필요해요. (종사자 9)

버스 타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문제가 없으면, 개발원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사자 8)

저희도 디딤돌사업단이라고 그런 근로미약자들만 모아놓은 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성과에 넣으면 할 것 같아요. 매출 계산을 안 하니까. (종사자 7)

이게 도시형이랑 농촌형 센터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후적인 부분은 농촌유형의 센터들과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게 도시형 센터는 65세 이상의 참여주민 비중이 적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농촌보다 필요성이 떨어져요. (종사자 2)

다음으로는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염두에 둔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 근로동기의 고취나 직무역량 강화는 건강한 심신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강검진 등 심신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무자 업무분장도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1단계 담당자, 2단계 담당자 이렇게 4단계 창업 전문 실무자로 세분화되어서 전문성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업단 바뀌듯 서로 단계도 바꾸고. 1단계를 제안하면 종합검진차를 지역에서 참여주민들이 의뢰서비스 받는다고 하고. 고가의 종합서비스를 못 받아서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합검진 말고 높은 수준의 검진이요. 기관당 검사 가능한 차량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서비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사자 6)

의사소통이랑 알코올이 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건강관리가 어려우세요. 사고나 만성질환, 장애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건강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해요. (종사자 8)

마지막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가 일하는 자활사업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중장년 1인 남성가구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사업단 내에서 적합한 유형을 일자리를 제공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필요해 보였다. 아울러 도시형 자활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병이나 청소 등 표준화 사업을 발판으로 하여 신표준화 사업이 더욱 발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유행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 등 기업연계형 사업들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표준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고용창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신표준화 사업모델로는 최근 전세계적 이슈인 ESG 경영과 접목하여 일회용품 수거 등 환경보호 차원의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남성이 하실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업이 제일 문제죠. 저희 다회용기 세척단 사업을 하는데 월평균 천만 원 매출이 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끌어오려고 하는데 남성분들이 설거지라고 생각해서 기피하세요. 연세가 있다 보니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일자리를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종사자 3)

간병이나 청소 쪽의 기업들이 여전히 지역마다 굼직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건 표준화 사업으로 전국에 뿌린 것과 학교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신표준화 사업이 개발원 측에서 진행을 전국적으로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환경이슈가 크고 일회용품 관련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종사자 2)

표준화된 큰 사업을 규모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유행처럼 생기고 있어요. 편의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기업 연계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대규모가 아니라 사업단이 다양해졌는데 다 작게 하고 있는 거라서 힘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잘 되면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서 신표준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종사자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안)

1. 정책 사례 및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 모델
3.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근로역량 기반
자활프로세스 모델
4.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V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 자활사업 모델(안)》

1. 정책 사례 및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활제도권으로의 진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새롭게 요구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의 1인 가구 중장년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FGI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경험 및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개인의 자활근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현장종사자로부터는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실무자로서의 기관 운영 경험을 통해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활참여자를 통해 도출된 FGI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참여자가 1인 가구가 된 배경은 사별 등 예상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정불화나 가족갈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주원인이었고, 그 저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들은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자활사업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적극적 탐색 과정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과 접촉하면서 수동적으로 진입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초기 진입 시 참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자활근로는 친구나 이웃 등 사회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일자리이기도 하였다. 일정한 적응기를 거친 후에야 참여자들의 자활근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며, 스스로 재진입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해보려는 의지도 나타나고 있다.

자활사업에서 근로하는 참여자 개인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건강은 물론 경

제적, 심리적, 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회복은 물론, 규칙적인 근무와 낮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감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급여의 크기를 떠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마음의 여유 속에서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도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이 사회에서 나름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존감과 자부심,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업단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도 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절되었던 원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는데, 1인 가구란 특성상 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정서적인 고립과 외로움, 축소된 사회적 관계망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활근로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세부 영역에 따라 명암이 갈리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아 보였다. 자신들이 참여하는 업무 형태나 업무량, 동료관계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급여 및 성과급 수준이나 자활제도가 목표로 한 직무능력 향상과 취·창업이란 영역에서는 만족도가 저조하였다. 특히 직무 소양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상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중장년이란 연령이나 건강 상태, 경력 등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취약한 개인 특성을 무시한 채 취·창업만을 강조하는 자활목표와 내부에서 시행되는 직무교육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책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 급여의 현실화와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개선을, 교육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인적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1인 가구에 식생활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점 때문에 반찬, 청소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희망하였고, 질병 등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음성인식 의료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모든 참여자의 궁극적 목적이 취·창업이 아니란 점에서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비용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FGI 결과, 참여자들의 탈수급이나 자활 종료 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들이 속했던 사업단의 경험에 많이 좌우되고 있고, 자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다수는 언젠가는 자활사업단을 벗어나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미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자활제도가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자를 주축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난관은

참여자들의 일상성 회복으로 보인다. 종사자들의 시각에서 중장년 참여자들은 자활 진입 전부터 음주, 도박, 다양한 정신적 장애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어 규칙적인 근로가 가능한 일상생활의 정상성 회복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변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현재 인구고령화로 자활에 진입하는 참여자 중 50~60대의 중장년 비중이 점점 높아짐은 물론, 취업 성공패키지에 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이 대거 이탈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노동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양극단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업단을 이끌어갈 중심 인력인 참여자들의 근로동기를 고취시키고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종사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였다. 일부 도시형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센터 종사자들은 개입을 위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에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 부족, 참여자들의 비협조 등이 맞물리면서 자활제도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종사자에 따르면, 자활참여자의 인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자활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교육운영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하면 부족한 예산에 전문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례관리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는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 처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관리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센터마다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사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례관리사가 배치된 센터에서는 열악한 처우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전직이 빈번한 실정이다. 사례관리사의 이·전직에는 참여자의 자활기간 내내 참여자의 취·창업을 목표로 부단히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장종사자들은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현재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장개척 및 매출에 따른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자활사업이 일반 민간시장과 대등한 경쟁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무리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관리사를 둘러싼 어려움 외에 다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낮은 처우에 비해 수행해야만 하는 다중역할 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 그것이다.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신들이 행정관리자인지, 취·창업 전문가인지, 사례관리사인지 아니면 교육자인지 수많은 역할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근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례관리체계 개선,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소, 참여자의 정신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 모색되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은 센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증거이며, 참여자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자활현장에서의 사례관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대상을 선별해야 하며, 참여자의 근로능력별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근로동기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자들의 주거형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거대안은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이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해지면 참여자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자활사업의 안정적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의 정신보건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참여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인력 및 매뉴얼화된 전달체계의 확보, 표준화된 관리지침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취·창업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중장년 참여자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한다 해도 직업교육이나 실습, 인턴십을 위한 인력파견의 기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활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이 초점이 모였다. 즉, 종사자들은 자활제도와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재탐색하고, 변화하는 시류에 맞추어 제도의 목적과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자활사업의 전개는 고용과 복지라는 두가지 경로(two-track)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다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자활에 진입한 참여자에게는 제대로 된 기술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방면에 취약성을 보이는 참여자 대상으로는 자활근로에 앞서 정서적 자활과 일상생활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직무능력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에 따라, 그리고 센터별로 처해진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이라 해도 지역 및 참여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내용도 고용과 복지라는 양방향 전략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 모델

1) 모델 개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모델은 자활에 참여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이하 ‘참여자’)의 ‘개별 역량 수준(Individual ability level, 이하 ‘IAL’))’에 따라 자활사업과 자활사례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 이 두 과업의 비중을 달리 구성하여 유형화한 자활 프로세스 모델이다.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경우, 가사, 식사준비와 같은 일상생활 기술의 미흡함, 오랜 혼자 생활에서 비롯된 대인관계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 만성화된 무력감 등 1인 가구의 독특하고 복합적인 취약성이 자활을 성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자활이 중단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자활 진입 과정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역량, 욕구를 지역사회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참여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 및 자활사례관리의 비중, 집중도 등을 계획, 수행함으로써, 참여자 역량에 맞춘 개별적인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모델에서 정의하는 참여자 개별역량(IAL)은 선행된 문헌연구와 FGI 결과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네 개 범주의 역량 즉, 일상생활역량, 경제생활역량, 사회생활역량, 자활근로역량으로 구성하였다. IAL의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영역별 개별역량(Individual ability) 의미

본 모델에서 정의하는 참여자 ‘개별 역량 수준(IAL)’은 중장년 1인 가구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들, 즉 일상생활 및 자기 관리, 경제 및 사회적 생활, 그리고 자활 근로에서 자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기능의 정도로서 참여자의 일상 및 자활 역량 전반의 행위수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참여자의 개별역량을 구성하는 네 영역의 역량, 즉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 역량’과 ‘경제 생활역량’, ‘사회생활역량’, ‘자활근로 역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 역량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 제한적이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중장년 1인 가구 참

여자들에게 일상생활 관리와 자기관리는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생활 기술이다. 그러나 이 역량은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의 건강 및 사회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므로 자활 과정에서 반드시 건강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강화되어야 할 자활역량이기도 하다. 이에 본 모델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 역량은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가 자활사업 성과의 일환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위생, 가사 및 집안관리를 비롯하여 중장년기 발달단계 특성상 고려해야 할 건강 행위로서 적절한 수준의 처방약물 및 증상관리, 운동, 식이조절 등 개인의 건강, 일상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수행역량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경제생활역량

자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자활과 경제적 안정성을 성취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구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지출 규모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제생활 역량은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가능성과 관련된 경제관리역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경제생활 역량의 세부 역량으로는 임금, 저축 등 수입 관리역량과 공공요금 및 집세 관리,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신용 관리 등 수입을 고려한 소비와 지출의 우선순위 및 적절한 지출규모를 판단, 결정, 행동하는 능력 전반을 포함한다.

○ 사회생활역량

대부분 자활사업은 집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통과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생애의 일정 기간 이상을 '타입'과의 협업이나 맞춰진 생활보다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한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자활의 구조적 특성은 자칫 부담스럽고 적응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에 이미 긴밀한 협력관계 또는 응집력이 형성되어 있는 사업단에 신규 참여자로 진입하는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는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의 사회생활역량을 자활 참여 초기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단 투입 전후로 자활사례관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참여자 개인과 사업단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에 본 모델에서 사회생활역량은 새로운 대인관계형성 및 새로운 조직에서의 적응 역량, 의사소통, 역할 분담 및 협력, 의사조정, 갈등대처 등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사회 규칙 이해와 준수 등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능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자활근로역량(지역자활센터 개별 요구 역량)

지역자활센터는 센터가 소재한 지역과 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자활사업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요구되는 참여자의 근로역량, 자활역량은 그 지역자활센터에 구성된 사업단의 근로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각 자활사업단에 적합한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는 자활현장 중심적인 자활근로역량 평가가 유용하다. 이 자활근로역량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역량평가와는 별도로 참여자가 속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서 본 모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자활 프로세스 단계이며, 자활사업 및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이 역량들을 향상함으로써 사업단과 참여자의 역량 매칭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본 모델에서 정의하는 자활근로역량은 엄밀한 의미에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 세부항목은 각 센터의 사업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사업단의 경우, 청소사업단에 필요한 화학청소용품 구분과 활용을 위한 간단한 한글 및 영어 단어 이해, 공간위생 개념, 청소에 요구되는 기술 습득력과 청소 능력, 정해진 시간 내에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개념과 시간 내 과업 수행능력, 청소계약을 위한 문서작성과 계약소통능력 등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자활근로역량은 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 따라 그 세부항목을 개방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으며, 각 지역자활센터의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 개인과 사업단 간의 개별적인 매칭을 통해 사업단과 자활사례관리의 균형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네 개 범주 역량을 평가한 결과는 참여자들 역량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평가 결과로 구분된 참여자 역량 수준에 따라 참여자들은 세 유형의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마다 ‘게이트웨이-자활사업-자활사례관리’의 병합 방식을 달리하는 자활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참여자 개인의 역량수준에 따라 프로세스를 차별화하는 접근은 자활 성과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성과 범주를 벗어나 참여자 개인별 또는 1인 가구 중장년 계층에 대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활성과를 구성할 수 있다. 자활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근거가 참여자 개인역량이기 때문에 자활목표

와 성과 역시 참여자 역량 변화와 향상 정도에 따라 개방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활프로세스와 성과 인식으로서의 전환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의 자활을 방해하는 일상생활기술의 취약성을 참여자 개인의 특질이나 한계로 인식하고 이러한 역량을 향상하거나 극복한 변화를 자활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기존의 자활성과, 즉 집단, 과업,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과 인식에서 벗어나서 자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를 통해 참여자 생애 전반에 회복, 탈의존, 자립 역량 향상 등 삶의 긍정성을 지향하는 ‘생애자활’(박지영 외, 2021)‘ 관점에서 자활성과의 경로와 지표를 참여자 개인 중심으로 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를 취약계층, 근로미약의 범주에 단정하지 않고 이들의 잔존능력, 잠재력,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참여자 개인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써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삶을 유지하는 자활프로세스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본 모델의 의의가 있다.

○ 개별역량 수준(Individual ability level. 이하 ‘IAL’)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48.1%가 신용불량 및 경제 문제로 인한 법적 절차 과정에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 및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담 및 치료 필요한 경우가 각각 18.2%, 9.7%, 질병 47.4%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 지지체계 부족 등 일상생활과 자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의 전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활은 근로 중심적인 자활이든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활이든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내, 외적인 개별 역량과 상황을 반영한, 개별화된 자활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모델에서는 자활현장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 개별역량에 적합한 자활프로세스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려할 참여자 개별역량 수준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단, 이 세 유형의 그룹은 고정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참여자의 개별역량 수준의 변화에 따라 ‘IAL1’, ‘IAL2’, ‘IAL3’ 유형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그룹이며, 이 세 유형의 참여자 그룹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V-1〉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개별역량 유형

유형	특성	자활프로세스
individual ability level 1(지속지원형)	만성화된 취약성으로 인해 근로와 일상생활의 회복 또는 강화를 위한 지원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근로와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관계로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자활사례관리기반 부분근로자활
individual ability level 2 (잠재형)	일정 기간 동안 근로와 일상생활의 회복 또는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했을 때, 독립적인 근로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자	자활사례관리와 근로자활의 균형적 병행
individual ability level 3 (독립형)	근로와 일상생활의 회복 또는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없이 독립적인 근로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경제적 자활, 근로 중심 자활

○ 지속지원형: IAL1 유형

독립적인 근로와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1년 이상 장기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근로, 일상생활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성적인 취약성을 가진 참여자 유형으로, ‘IAL1’은 자활참여기간 전반에 걸쳐 자활사례관리를 기반으로 부분적인 근로자활을 병행하며 자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지원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경제적 자활보다 정서적, 사회적 자활을 자활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자활참여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자활사례관리를 필요로 한다.

단, IAL1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재사정을 통해 근로 및 일상생활 역량이 회복, 강화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IAL2, 또는 IAL3유형으로 이동 가능하며, 재사정을 통해 평가된 역량 수준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 잠재형: IAL2 유형

현재 독립적인 근로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자활사례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자활지원을 통해 일상생활과 근로 역량의 회복,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즉 독립적 자활 가능성이 잠재된 참여자 유형이다. IAL2 유형의 자활프로세스는 게이트웨이와 자활초기과정에서 집중적인 자활사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참여자가 일반 사업단 진입이 가능하고, 사업단에서의 역할 수행 및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관리,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근로 및 일상생활 역량이 회복, 강화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IAL2유형은 참여자의 상태, 상황을 반영한 전반

적인 역량 수준에 따라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의 비중을 달리하여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IAP, ISP를 수립하여 자활참여를 지속한다.

단, 재사정을 통해 IAL2 유형의 참여자의 역량에 변화가 있을 시, 그 변화 수준에 따라 IAL1, 또는 IAL3 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자활프로세스 역시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프로세스로 조정될 수 있다.

○ 독립형: IAL3 유형

IAL3 유형은 별도의 자활사례관리 또는 다른 지원 없이도 근로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관리, 유지 가능한 역량의 참여자 그룹으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근로 중심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프로세스에 참여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사례관리는 참여자가 자활근로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시적 또는 부분적인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가 자활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자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완적 기능을 제공한다.

단, IAL3 유형 참여자라도 재사정 평가에서 역량에 변화가 있을 시, 그 변화 수준에 따라 IAL1, 또는 IAL2 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자활프로세스는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프로세스로 조정될 수 있다.

2) 모델 특성

○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의 특성과 참여자 개개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자활 유지 및 성취, 자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관리 기반 자활 프로세스 모델

본 자활모델은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참여자들의 특성과 근로 및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기능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참여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자활사례관리와 자활사업의 비중, 강도, 집중성, 그리고 자활목적의 차원(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경제적 자활 등)을 달리 디자인한 참여자 맞춤형 자활프로세스 모델이다.

이에 모델에서 참여자는 개별역량에 따라 세 개 그룹으로 유형화되었다. 먼저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전제될 때 자활을 유지할 수 있는 IAL1 유형은 자활사례관리가 주된 자활 기반으로 제공되고, 근로는 자활자격과 사업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활사례관리기반 근로 자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때 자활의

목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비중을 둔다.

두 번째 유형인 IAL2는 일정 기간 또는 참여자의 일부 취약성에 대한 자활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잠재된 자활역량을 회복,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유형으로, 자활초기에는 자활사례관리 중심적인 지원을, 그리고 참여자의 역량회복, 강화 수준에 따라 점차 근로자활의 비중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활의 참여를 강화하는 프로세스로 구성하였다.

IAL3는 기본적인 근로 및 일상생활역량을 갖추고 독립적인 역량 수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바로 사업단 진입하여 경제적 자활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되, 자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에 의해 자활이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도록 자활사례관리가 부분적이고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이다.

○ 각 지역자활센터에 구성된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센터개별화한 자활역량 지표에 근거한 참여자 역량 평가와 이에 따른 자활운영

기준에 참여자의 사업단 배치 여부와 사업단에서의 역할 분담은 지역자활센터 내 부적인 합의나 실무자의 경험 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었다. 본 모델은 이미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기준들을 센터가 자체적으로 지표화하고, 공식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지표들을 참여자 역량평가 및 사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표에 반영된 역량들이 자활과정에서 강화되고 발전된 수준을 양적, 질적 성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근로 및 자활역량을 의료적 건강수준, 객관적인 근로기술 등 절대화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활사업단에서 요구되는 참여자의 역량은 반드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자의 근로역량을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구성함으로써, 자활 진입 초기과정부터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 지원 및 관리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 전략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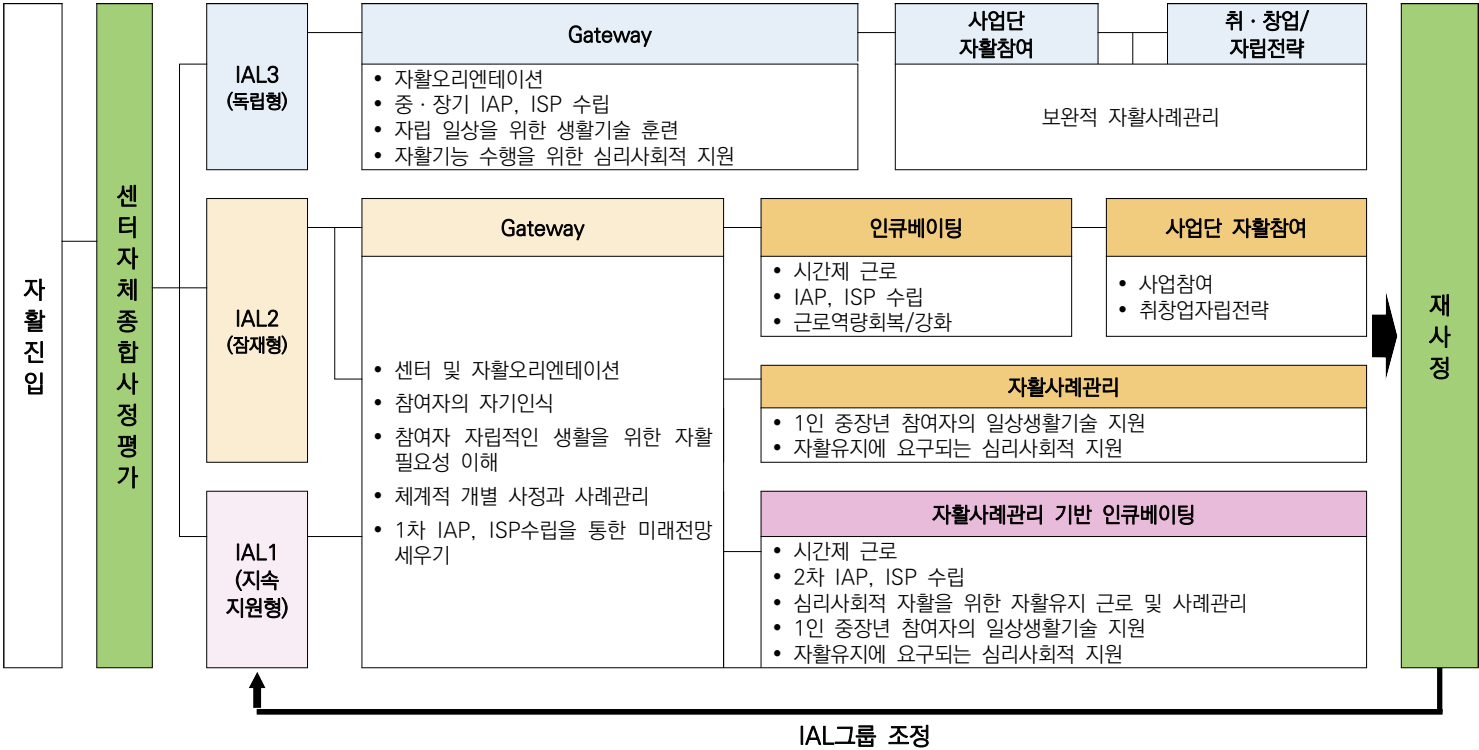
○ 자활환경 극복 전략보다 각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참여자 역량 간 매칭에 집중한 참여자 중심 자활모델

자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활성과의 장애물은 FGI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 도시와 농촌 간 뚜렷한 지역적 차이다. 지역적 차이가 자활성과에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자활사업운영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수요와 공급 자원 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자활에 진입하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욕구, 근로역량 역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성과의 장애물인 지역특성을 극복하는 자활 수행을 위해서는 도시형, 농촌형 등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자활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광역형, 시·구형의 도시는 그 도시규모에 따라 지역특성과 여건의 차이가 크고, 시·군 단위의 농어촌, 도농복합지역 역시 단순히 농촌형으로 유형화되기에는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이 천차만별이어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분화된 모델개발은 자활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실효적이라 보기 어렵다.

지역 특성 이외에 성공적인 자활의 또 다른 장애물은 사업단과 참여자간에 적합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활시스템의 경직성이다. 이는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업의 내용, 운영방식, 요구되는 역량이 상이하지만, 자활시스템에서 자활사업단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하여 투입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지역자활센터에 있지 않을뿐더러 일반적으로는 관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자가 자활센터에 진입하는 일방성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역량으로 진입하는 참여자들의 개별 역량 수준에 맞춰서 매번 자활사업단을 새로 구성하는 개방적인 운영은 더더욱 어렵다. 이에 본 모델은 이 두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활역량과 참여자 역량의 적합성을 최대한 맞춤으로써 센터는 진입한 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적합한 참여자를 자체 평가하여 선발하는 기회를 갖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에 적합한 자활프로세스를 보장받음으로써 1인 가구, 중장년이라는 특성이 자활과정에 반영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 자활모델

[그림 V-1]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모델



(1) 센터 자체 종합사정평가

가. 평가기능: 사업단 배치 여부 및 사례관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평가

나. 평가수행: 사업팀장, 사례관리자

다. 평가방식: 사업팀장 및 사례관리자의 평가협의 또는 사정사례관리회의

라. 평가내용: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의 자활참여, 유지에 요구되는 일상생활 및 근로역량 등 각 역량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

역량 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2〉 참여자 개별역량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지표

사정영역		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일상 생활 영역	생활기술	위생 관리	신체 위생	• 자기 신체 위생 관리 필요성 인식수준 •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자기 위생관리 (예. 목욕, 샤워, 이닦기, 머리감기 등) •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목욕, 샤워, 이닦기, 머리감기 등 자기 위생관리 • 건강,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의복 위생상태 등 (예. 속옷 위생, 센터 출근시 착용복 위생, 사업장 착용 복장 위생 등)
			공간 위생	• 더러움, 비위생 상태에 대한 인식수준 • 집안, 사업장 등 생활공간의 위생관리 필요성 인식수준 • 공간의 더러움, 비위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수준 • 더러움, 비위생적인 상태를 인지했을 때, 적절한 위생행위수준 등 (예.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대소변 처리, 더럽다고 생각한 것을 닦아내거나 제거함 등)
			감염 관리	• 감염에 대한 인식 수준 • 마스크 착용해야하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수준 • 마스크 반복사용 등 마스크 관리 행위 수준 • 손소독 행위 수준 등
		식사관리		• 식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 건강상 필요한 음식 또는 피해야하는 음식에 대한 인식 수준 • 필요한 음식을 식사하기 위한 정보기 • 필요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식사준비 • 요리가 어려운 경우 개인 건강에 적합한 외식, 배달음식 섭취 수준 •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수준한 끼니 관리 (최소 하루 2끼) • 건강상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 관리 또는 반드시 섭취해야하는 음식섭취 등

사정영역		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신체건강상태 및 관리역량	도움요청역량	• 자신이 수행,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인식 여부 • 자신이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시 외부에 도움요청하는 역량 - 도움요청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 - 도움요청 할 대상, 또는 자원에 대한 정보 확보수준 - 도움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 - 도움요청 수행
		신체건강상태	•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유무⁵⁾ • 의사로부터 진단받지 않았으나 참여자가 호소하는 질병 유무 • 상기 진단, 또는 호소된 질병으로 인한 참여자 기능손상이나 장애수준 • 참여자의 질병수준, 기능손상 및 장애수준과 사업단 배치의 적합성 수준 등
		건강관리	• 참여자 스스로 질병 유무, 심각성, 질병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 질병, 기능손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행위 -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 여부 - 필요시 외래 및 입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 처방약물의 꾸준한 복용 - 질병관리에 요구되는 음식 및 운동 관리 - 질병 위기시 도움 요청을 위한 대안 준비 수준 - 증상이나 약물에 대한 정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및 정보력 수준 • 참여자의 질병관리를 도와줄 가족, 지인 등 지지체계의 여부 등
		정신건강상태	•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정신질환유무⁶⁾ • 의사로부터 진단받지 않았으나 참여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어려움 유무 • 상기 진단, 또는 호소된 질병으로 인한 참여자 기능손상이나 장애수준 • 참여자의 증상특성과 심각성 정도, 기능 및 장애수준과 사업단 배치의 적합성 수준 등 (예.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한 공격성, 현실적이지 않은 사고와 행동, 황설수설하는 소동, 어떤 특정 사람, 물건, 특정 상황에 대한 집착, 타인을 의심하는 행동 등)
		증상 및 약물관리	• 참여자 자신의 정신질환 인식(병식) 수준 • 질병으로 인한 주요 증상 및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수준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약물복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 질병, 기능손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행위 -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 여부 - 필요시 외래 및 입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 처방약물의 꾸준한 복용 - 자신의 증상악화, 재발 증후에 대한 인식 수준

사정영역		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 증상약화 및 재발 시 도움 요청 등 대처방안 여부 - 증상이나 약물에 대한 정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및 정보력 수준 • 참여자의 질병관리를 도와줄 가족, 지인 등 지지체계의 여부 등
		자기정서 관리역량	•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일상생활 또는 자활과정에 장애가 되는 감정상태를 대처, 관리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일상생활 또는 자활과정에 장애가 되는 충동성, 공격성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일상생활 또는 자활과정에 장애가 되는 스트레스를 대처,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 • 자살 위험성 - 자살 생각 여부 - 자살 계획, 준비 여부 - 자살 시도 여부
경제 생활 역량	건강한 경제육구		•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입액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수준 • 경제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 과업 (예.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일정 금액을 목표로 한 저축계획) • 현재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 (예. 채무, 밀린 집세 등) • 현재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계획, 준비 수준 등
	경제관리 역량		• 월평균 수입액과 지출액 인지 • 적절한 수입관리 - 개인저축, 통장관리사업 참여 등 •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또는 계획 - 수입 대비 적절한 의·식 비용지출 -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관리 - 일상생활비용으로 공공요금, 월세 등 관리 - 법적으로 책임지는 채무, 이자, 원금상환 등의 지출 관리 • 신용불량시 신용회복 등 신용관리 방안 등
사회 생활 역량	대인관계 역량		•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 •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욕구수준 • 새로운 관계 형성 역량 - 새로운 관계형성 과정에서 위축되는 수준 또는 새로운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준 -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타인의 소개를 이끌어내는 역량 - 자신과 다른 타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역량 등 • 타인과의 적절한 소통 역량 - 필요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역량 - 타인의 생각,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역량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량 등 • 타인과의 관계유지 - 타인의 장점을 인정 칭찬하는 역량 - 타인에게 식사, 차마시기, 취미활동을 제안하는 역량

사정영역		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 타인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보, 배려, 혹은 설득 등 조정하는 역량 -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 사과, 책임지는 역량 • 타인과의 갈등 대처, 해소 - 분노,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는 역량 - 타인의 분노, 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역량 등
	역할수행 역량	• 참여자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 •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성 인식 수준 • 자기 역할 수행역량 - 정해진 시간내에 역할 수행 - 맡은 과업에 대한 완성 정도 • 스스로 해결, 완성하기 어려운 역할에 대한 도움, 자문요청 등
	협력역량	•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 수행해야할 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 •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 수행해야할 협력에서 참여자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강점 인식 • 대인관계, 혹은 집단에서 수행해야할 협력에서 참여자 자신의 취약성 또는 장애물 인식 • 협력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역할분담 방식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 집단 성과를 위한 협력과정에서 양보, 배려하는 역량 • 집단 성과를 위한 협력과정에서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인식 • 집단 성과를 위한 협력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협력, 도움 요청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 집단 성과를 위한 협력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협력, 도움 요청 행위 수준 등
자활 근로 역량	자활근로 동기역량	• 자활근로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 • 자활근로에 대한 기대/동기 수준 • 자활근로에 대한 거부/우려/염려의 적절성 • 자활근로에 대한 기대/희망업무나 직종의 적절성(현실가능성) • 자활진입과정에서의 협조수준 •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해, 수용수준 등
	자활근로 학습 및 수행 역량 (각 센터별 개방적인 지표구성)	• 한글 쓰기와 읽기, 이해 수준 • 외국어 쓰기와 읽기 이해 수준 • 기술 습득역량 (선호 방식: 관찰, 지식, 체험 등...) • 기존 보유 기술, 자격증 • 출퇴근 관리 • 조퇴, 결근 신청 절차 준수 • 계약체결 • 상품판매 • 손님의 민원처리 등 각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역량으로 구성

5) 본 개별역량수준 평가에서 질병 유무를 사정하는 목적은 한편으로는 참여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활유지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의 증상, 기능적 손상 정도가 참여자의 사업단 참여에 장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임

6) 본 개별역량수준 평가에서 질병 유무를 사정하는 목적은 한편으로는 참여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

3.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근로역량 기반 자활프로세스 모델

1) IAL1(지속지원형) 자활프로세스

○ Gateway

자활프로세스 IAL1유형에서 게이트웨이는 센터자체종합사정평가 결과 지속지원형으로 평가된 참여자들이 자신이 소속한 지역자활센터를 알고, 이해하며 적응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활에 참여하는 1인 가구 중장년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IAL1 자활프로세스에서 게이트웨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AL1 자활프로세스 게이트웨이 주기능

- 지역자활센터가 어떠한 목적과 기능으로 자신들과 협업 또는 지원하는 기관인가를 안다.
- 자신의 삶에서 자활이 요구되는 이유 또는 상황에 대해 안다.
- 자활에 요구되는 역량들, 즉 건강, 대인관계, 생활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자 역량에 대해 자기 상태 및 특성을 안다
- 1인 가구 중장년으로서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자신의 상태, 상황을 안다.
- 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역량대로 1차적인 IAP, ISP를 수립한다.

이렇게 게이트웨이의 과정에서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가 자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활을 목적으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동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게이트웨이 준비-진행-마무리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 V-3〉 게이트웨이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진행단계	담당자 역할
준비단계	• 참여자 개개인의 센터자체종합사정평가 결과 확인 • 참여자 특성에 맞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모듈과 내용 구성 • 참여자별 면담 계획 • 참여자별로 센터자체종합사정평가를 반영한 주요 관찰지표 또는 자원필요사항 계획

활유지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병의 증상, 기능적 손상 정도가 참여자의 사업단 참여에 장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임

진행단계	담당자 역할
진행단계	- 게이트웨이 진행과정에서 면담, 관찰 등을 통한 참여자 개별 정보 수집 및 사정 - 참여자 개별 사례관리 -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성취할 수 있는 개별 목표수립 - 게이트웨이 전 과정에 참여자가 참여를 유지하고 IAL1자활프로세스 다음 단계에 참여하도록 지원
마무리단계	- 참여자별 게이트웨이 목표 달성 평가 - 참여자 역량에 맞춰 1차적인(임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IAP, ISP수립 - 게이트웨이 다음 단계 안내 및 준비

○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은 일반적인 자활사업단 참여가 어려운 IAL1 유형의 참여자들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활역량을 발휘하면서 자활을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모델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사업단이다. 따라서 이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경제적 생산성, 성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에게 가능한 독립적 일상과 자활근로 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참여자가 인큐베이팅 사업단에서의 경험과 역량강화를 통해 IAL2, IAL3 유형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초점을 두고 오랜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활동과 무관했던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개발,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IAL1 유형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장시간 노동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 집중력, 작업능력 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시간제 근로 형식으로 노동시간과 강도를 참여자 특성에 맞춘다. 또한 근로 중심의 사업 참여의 중요성이나 비중만큼 자활사례관리에 비중을 둬으로써,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일상과 자활 병행 상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여자들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범주를 확대함과 더불어 근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IAL1자활프로세스 인큐베이팅의 특성

-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의 독립적 일상과 자활근로 병행 가능성 향상
- 참여자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 초점
- IAL2, IAL3 유형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참여자 자활역량의 개발과 유지를 중요시함
-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단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
- 인큐베이팅 사업은 참여자 역량 수준에 맞춘 근로시간, 강도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 형태
- 사업운영은 자활사례관리자가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본 모델은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단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 형식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잠재역량을 개발, 유지, 향상하려는 전략적인 자활사례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담당자는 자활사례관리자가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담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모델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IAL1유형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를 지역자활센터에 별도 배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IAL1자활프로세스 인큐베이팅 전제

- IAL1유형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사례관리자 별도 배치

IAL1의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은 다음과 같은 기능구조를 갖는다.

[그림 V-2]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기능구조



IAL1 자활프로세스에서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은 별도의 기능이 아니라 통합된 기능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 V-2>와 같이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의 자활에 방해요인인 여러 일상생활, 근로역량, 정서사회적 문제를 지원하고 그 역량을 향상하는 자활사례관리는 참여자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다중적인 어려움, 즉 참여자 개인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부터 인큐베이팅 사업단내의 역동과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문제를 사정하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사업단 내에서의 신속한 사례관리 대처는 사회기술이 취약한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적절하거나 소모적인 감정, 부정적인 피드백,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관계 갈등의 시간들을 단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이러한 경험들이 자활동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렇게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 극복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미칠 수 있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대처가능한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대한 학습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의 통합적 접근은 일상생활 전반의 기술이 취약한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이 인큐베이팅 사업참여를 지속하고 자활을 유지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표 V-4〉 자활사례관리 기반 인큐베이팅 담당자 역할

구분	담당자 역할
참여자 개별적인 정보수집 및 사정 (모니터링)	• 센터자체종합사정평가 내용과 게이트웨이에서 사정된 내용 검토 • 인큐베이팅 참여과정에서 변화하는 참여자 개인의 욕구, 특성, 역량 모니터링 • 상기 수집된 정보에 기반한 사정 및 재사정
사업단내 정보수집 및 사정	• 인큐베이팅 사업내에서의 참여자들간 역동 사정 - 반복되는 갈등관계, 지나친 친밀성 등 - 집단 내 비난, 놀림, 괴롭힘 현상 등 - 특정인의 과도한 통제력, 주장적인 행동과 이에 압도되는 다수 참여자의 피로도 등 • 사업단 내 어려운 상황 발생시 참여자들의 대처방식 - 조정, 중재, 협의 기능 - 압도, 소외, 회피 기능 등 • 참여자들의 근로사업 집중도, 생산성 및 역할 수행도 등

구분	담당자 역할
목표수립, 계획, 수행	• 참여자들과 함께 개인별 자활사례관리 및 인큐베이팅 목표수립 - 중장기적 차원의 IAP, ISP수립 • 인큐베이팅 사업단의 목표 수립 • 참여자 개인 및 인큐베이팅 사업단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수행 • 참여자 개인 및 사업단의 사례관리 과정 모니터링, 재사정, 조정
재사정, 평가	• 연 1, 2회 재사정 및 평가 수행 - 참여자 개별 재사정 및 평가 - 인큐베이팅 사업단 평가 수행 • 참여자 개별 재사정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IAL 유형 이동 또는 유지 결정 • 참여자와 인큐베이팅 사업단의 적합성, 운영과정에 대한 재고 검토 등

2) IAL2(잠재형) 자활프로세스

○ Gateway: IAL1유형 게이트웨이와 동일함

○ 인큐베이팅

IAL2의 인큐베이팅 사업은 IAL1에 비해 좀 더 근로와 과업을 집중하며, IAL2 유형의 참여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충분히 근로역량을 회복,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참여자 유형이기때문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일반 사업단에 진입하거나 IAL3 유형으로 상향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IAL2 자활프로세스에서 인큐베이팅은 참여자 개개인의 근로역량의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큐베이팅 사업은 참여자가 소속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IAL2의 인큐베이팅 사업과 일반 사업단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바는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들이 일반 사업단 진입에 앞서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역량을 훈련, 연습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인 일반 사업단에 잘 적응하고 사업단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사업단간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IAL2자활프로세스 인큐베이팅 특성

- IAL2유형의 인큐베이팅과정을 거쳐 근로역량 및 일상생활 역량의 회복,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근로 및 일상생활 역량 강화를 통해 일반 사업단 또는 IAL3유형으로의 상향이동을 전제로 함.
- 각 지역자활센터에 구성된 IAL2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기존의 일반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역량을 반영하여 사전 훈련, 연습 단계로 구성함.

○ 자활사례관리

IAL2유형의 자활사례관리는 IAL1과 IAL3유형 자활사례관리의 중간형태로서 게이트웨이 과정을 마친 IAL2 참여자가 먼저 진입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에서의 자활사례관리와 인큐베이팅 이후 사업단 진입 이후의 자활사례관리,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인큐베이팅 과정의 자활사례관리는 IAL1에서의 자활사례관리와 같이 참여자 개인을 집중하여 수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활사례관리의 중요한 기능은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에게서 강화, 회복 가능한 일상 및 근로역량을 사정하고,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IAL2자활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다.

두 번째 인큐베이팅을 거쳐 사업단에 진입한 참여자에 대한 자활사례관리는 IAL3 유형에서의 자활사례관리와 같이 사업단 적응과 유지를 위해 일시적, 부분적 지원을 위주로 하는 보완적 자활사례관리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자활사례관리의 집중강도는 참여자의 욕구,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유동적이기는 하나, 본 모델에서 제안하는 각 자활프로세스 체계에서는 사업단 진입 이후 적용되는 자활사례관리의 강도는 보완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자 개인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집중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IAL3(독립형) 자활프로세스

○ Gateway

IAL3 유형의 참여자는 1인 가구 중장년으로서 일상생활과 자활근로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 게이트웨이는 이들의 역량에 따라 그 참여기간이 유동적이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게이트웨이 기능은 자활사업에 바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IAL3자활프로세스 게이트웨이 주기능

- 지역자활센터가 어떠한 목적과 기능으로 자신들과 협업 또는 지원하는 기관인가를 안다.
- 자신의 삶에서 자활이 요구되는 이유 또는 상황에 대해 안다.
- 자활에 요구되는 역량을 알고, 참여자 자신의 강점과 장애물을 안다.
-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강점의 활용 장애물 극복에 대한 대안을 안다.
- 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자활계획을 위해 IAP, ISP를 수립한다.
- 자활사업단 참여를 위해 심리사회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아래 <표-5>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할은 참여자의 자활역량,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기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V-5> 게이트웨이 진행 단계별 담당자 역할

진행단계	담당자 역할
준비단계	• 참여자 개개인의 센터자체종합사정평가 결과 확인 • 참여자 특성에 맞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모듈과 내용 구성
진행단계	• 게이트웨이 진행과정에서 면담, 관찰 등을 통한 참여자 개별 정보 수집 및 욕구, 강점, 장애물 사정 • 참여자 IAP, ISP수립 •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 자활사업 참여시 우려되는 사항(장애물) 점검 및 자활사례관리 지원 방안 계획
마무리단계	• 참여자가 참여할 자활사업단 안내 및 준비

○ 보완적 자활사례관리

IAL3 자활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자활사례관리는 1인 가구 중장년 참여자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자활사례관리이다. 이 유형은 IAL1, IAL2 유형의 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자활사례관리의 기능이나 강도에 비해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함이 다른 유형의 자활사례관리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이 익숙해진 고립된 생활, 자신을 중심으로 생활해 온 생활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단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다중적인 역할 책임 등 자활 진입 이후 지속되는 생활 상황의 변화와 적응 과제를 경험하는 것은 적잖이 부담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참여자의 역량은 자활진입시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또는 건강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례관리자는 사업담당자와 함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히 참여자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한다. 참여자의 상황이나 자활역량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사례관리자는 사업담당자와 논의하며 참여자의 역량수준을 재사정하여 다른 사업단을 이동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운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자활사업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가 자활사업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 혼자살이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득, 고용, 주거의 불안정에 놓여 있던 중장년이 끊임없이 기초생활 보장 제도로 유입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그 주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특히, 중장년 근로능력 수급자의 증가는 자활사업에서의 중장년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단순히 증가에만 있지 않다. 현재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더불어 만성질환과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지만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빈곤, 1인 가구, 그리고 노년기로 접어드는 50~60 중장년의 문제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거니와, 건강, 정서, 사회적 관계 면에서도 복합적으로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자활사업은 그동안 실직, 노숙인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놓인 참여자들의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운영해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가 자활사업 참여자 4명 중 1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자활사업은 그 목표에 있어서 자활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참여자 탈수급이라는 단일, 성과 중심의 목표 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별화된 접근에 기반한 사람 중심 자활모델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성과 이외에도 질적 성과 지표인 주관적 경제적 자활, 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 행동의 변화에 주목해서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하다. 질적 성과 지표만 도입과 더불어, 자활근로 사업에서의 시간제와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같이 복합적인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활참여자들에게 수급을 위한 “일”을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활과 건강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신체 및 정신 경증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 및 노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노동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시

간제 형태의 자활사업과 동시에 건강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활사업도 복합적 문제를 가진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 FGI 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진입 이후 제공되는 상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길고, 지루하며, 비현실적인 도돌이표’라고 인식할 정도로 만족도가 낮다. 일부 참여자들은 소양, 보건, 안전 교육 등이 1년에 평균 4번 정도 이수하고 있으나 내용에 변화가 전혀 없는 다분히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장형 사업단과 사회서비스 사업단의 경우는 업종을 고려하여, 광역 및 지역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되어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가 가진 문제와 구직의 어려움이 다양해지는 만큼, 일방적인 소양교육과 같은 집합교육보다는 사례관리가 더 강조되고 요구된다. 자활사례관리에 있어서 자활사업 진입 후 접수 및 초기상담과 사정,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가 세운 IAP/ISP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참여자별 IAP/ISP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개입, 참여자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복지서비스(자원) 발굴 그리고 참여자의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내적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동기강화 상담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자활 사례관리사가 없는 센터도 많아 각 참여자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활사례관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 자활사례관리사의 배치와 고용안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인력확보가 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사례관리팀과 자활사업단 담당자 간의 유기적 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은 “지역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했다는 큰 장점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근로역량과 관계없이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좁은 목표가 아닌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큰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나와서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자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나연·정복미. 2018.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전남대학교 생활과학 연구, 28, 123-141.
- 강보민, 이기영(2020), 중년 1인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9(3), 5-38.
- 강소랑·정혜윤·송창용·최일선·유선치·임승연(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 연구. 서울특별시 50+재단.
- 강은나·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4), 47-56.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 관계부처합동. 2017.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관계부처합동 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 및 대응방향.
-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1-28.
- 김솔지. 2019. 독거가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류와 사회교류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택·김원홍·김동식. 2010.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 2018. 1인 가구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41-79.
- 김종숙·배호중. 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 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춘남·김나연. 2013.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변화 비교. 경기복지재단.
- 김혜정. 2015. 비혼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권용식. 2009.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46, 383-408
- 권진희·이영민·이지혜·채재은·김정현·양현경. 2018. 50+ 교육 체계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권혁철·김형용. 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4050 세대 1인 남성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267-290.
- 권현진. 2021.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이슈. 청주복지재단.
- 문정화. 2020.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지원 조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5(2), 255-282.
- 민상기·이명훈·문세연·길대환·노경희. 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건·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박기훈. 2019.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노인교육체계 일고찰. 한국노년교육학회발표집.
- 박미선. 2014. 해외 주거비 보조 제도: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및 시사점. 한국주거학회. 9(1), 7-16.
- 박소영·최윤정·김주희. 2020.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1), 69-96.
- 박준범·권병구·김민기·박홍민·오정석. 2019.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박정우. 201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국제 비교. 서울노동권익센터.
- 반정호. 2014.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영·박수지·이경화·현리사. 2021. 근로미약자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발전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 변미리·김석호·박민진·구서정. 2019. 성남시 1인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성남시.
- 변미리·신상영·조권증·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2. 2022년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 서울시. 2020.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시. 2022. 2022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17. 50+ 해외동향리포트
- 성은미·김세원·박다정. 2016.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송민혜·한준섭·경정아. 2020.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신미아. 2019.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비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분석 (2013, 2015, 2017). 한국웰니스학회지, 14(4), 11-23.
- 신민경. 2014.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의 특징.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24.
- 신인철·최지원. 2019.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서울연구원.
- 양복완. 2017. 경기도 1인가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경기복지재단.
- 엄인숙. 2006. 중년 여성의 우울과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유형. 복지행정논총, 16(2), 149-167.
- 여성가족부. 2021.10.22..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보도자료.
- 여혜수. 2021. 미국의 중고령자 근로지원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6, 113-119.
- 윤미. 2021. 중장년층 재취업활성화 정책방안: FGI 기반의 AHP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87-508.
- 이민홍·전용호·김영선·강은나.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동의대 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 이하나·조영태. 2019. 중년 1인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보안사회연구. 39(3), 380-407.
- 이현정. 2017. 비노년층 및 노년층 비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자산포트폴리오 특성 및

- 주택자산효과 비교. 도시행정학보, 30(2), 1-24.
-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 이병호. 2014.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4(3), 348-373.
- 이상호. 2007. 인구고령화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가능성: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3, 225-257.
- 이지연. 2009.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2017. 미국의 고령자 복지 법제 및 프로그램. 한국법제연구원.
- 이하나·조영태. 2019.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보건사회연구, 39(3), 380-407.
- 이해선·노수임·이호진·송미정·김혜미....임효정.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 임성은·황남희. 2018. 커뮤니티 케어 기반 영국의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시찰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미. 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5, 67-77.
- 전라북도. 2021.1.13. “은퇴는 새로운 시작! 은퇴자 작업공간 추가 운영”. 보도자료.
-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1, 37-49.
- 천영민·김태완·김문길·강금봉·박소희. 2016. 근로빈곤층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최현수·오미애·강은나·고제이·전진아,...김솔휘. 2016.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황덕순. 2005.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 황수영. 2021. 영국의 1인가구 현황과 관련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Scannel, T. 2015.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문헌〉

- Australian Department of Employment. 2016.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s Willing to Work: National Inquiry into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Australians and Australians with Disability.
- Barnes, M., Blom, A., Cox, K., Lessof, C., Walker, A. 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London: New Horizons programm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Brummett, B. H., Barefoot, J. C., Siegler, I. C., Clapp-Channing, N. E., Lytle, B. L., Bosworth, H. B., ... and D. B. Mark(2001). Characteristics of socially isolated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who are at elevated risk for mortality. *Psychosomatic medicine*, 63(2), 267-272.
- Carragher, L., Golding, B. 2016. Men's Sheds-Sharing Knowledge and Learning in the Company of Men. *The Irish Journal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59-71.
-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for Older Americans(CSEOA). 2022.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Demay, D., Berrington, A., Evandrou, M., Falkingham, J. 2013. Pathways into living alone in mid-life: Diversity and policy implica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8(2013), 161-174.
- Demay, D., Berrington, A., Evandrou, M., Falkingham, J. 2014. Living alon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does partnership history matter?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8, 403-410.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2015. Transforming Britain's labour market Ten years of the New Deal.
- Golding, B. 2015. The Men's Shed Movement: The Company of Men. Common Ground Publishing.
- Hill, M., Banks, L., Haynes, P. 2009. Living in a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 the risk of isolation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4(1), 55-86.
- Joutsenniemi, K., Martelin, T., Martikainen, P., Pirkola, S., Koskinen, S. 2006. Living arrangements and mental health in Finland.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0(6), 468-475.
- Lin, I., Brown, S. L. 2012. Unmarried Boomers Confront Old Age: A National Portrait. *The Gerontologist*, 52(2), 153-165
- Mikelson, S. K. 2017. The Role of SCSEP in Workforce Training for Low-Income Older Workers. Urban Institute.
- VANTAGE. 2018.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 Handbook.
- Kalmijin.M. 2011. The Influence of Men's Income and Employment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Testing Oppenheimer's Theory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7(3), 269-293.
- Kogan, D., Betesh, H., Negoita, M., Salzman J., Paulen, L. ...Cloud, P. 2012. Evaluation of 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Social Policy Research Associates,
- Scourfield, J., Fincham, B., Langer, S., Shiner, M., 2012. Sociological autopsy: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tudy of suicide in men. *Soc. Sci. Med.* 74, 466-473.
- Shaw, R. T., Cullan, B., Graham, N., Lyall, d. M., Mackay, D...., Smith, D., 2021.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9, 316-323.
- Stahl, S. T., Beach, S. R., Musa, D., Schulz, R. 2016. Living alone and depression: the modifying role of th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geing & Mental Health*, 21(10), 1065-1071.
- U.S. Department of Labor(DOL). 2019. SCSEP Quarterly Progress Report.
- U.S. Department of Labor(DOL). 2020. PY 2020 Nationwide Participant Evaluation of SCSEP.
- Van Orden, K.A., Witte, T.K., Cukrowicz, K.C., Braithwaite, S.R., Selby, E.A., Joiner Jr, T.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

Review, 117, 575-600.

Zaididi, A. 2009. Welfare-toWork Programmes in the UK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Policy Brief*, 10.

〈웹사이트〉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https://happycam5060.or.kr/>

경기도 광명시청, <https://www.gm.go.kr>

경기도 성남시청, <https://www.seongnam.go.kr>

경기도 평택시청, <https://www.pyeongtaek.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if.or.kr/>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s://gnlife5064.kr/>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http://gusansw.or.k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산시 50+부산포털, <https://www.busan50plus.or.kr/introduce/mission>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s://twohappyllife.bucheon.go.kr/>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서울시 광진구청, <https://www.gwangjin.go.kr>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https://www.dbedu.or.kr/user/intro.do>

서울시 동작구청, <https://www.dongjak.go.kr>

서울시 마포구청, <https://www.mapo.go.k>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http://www.bukedu.or.kr/home/home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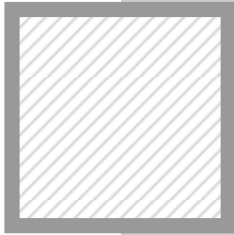
서울시 성동구청, <https://www.sd.go.kr>

서울시 성북구청, <https://www.sb.go.kr>

서울시 중랑구청,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do>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https://www.jbedu.or.kr/>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supportJobSys.do>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www.suwon5060.or.kr/web/>
쌍글병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양천구 50스타트센터, <https://www.50plus.or.kr/ycp/index.do>
장년워크넷, <https://www.work.go.kr/senior>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https://www.fkilsc.or.kr/sub04/sub04_1.html
전라북도 전주시청, <https://www.jeonju.go.kr>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한국 폴리텍대학, <https://www.kopo.ac.kr/intro.do>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https://happycam5060.or.kr/>
경기도 광명시청, <https://www.gm.go.kr>
경기도 성남시청, <https://www.seongnam.go.kr>
경기도 평택시청, <https://www.pyeongtaek.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if.or.kr/>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s://gnlife5064.kr/>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http://gusansw.or.k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산시 '50+부산포털, <https://www.busan50plus.or.kr/introduce/mission>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s://twohappyllife.bucheon.go.kr/>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시 광진구청, <https://www.gwangjin.go.kr>

-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https://www.dbedu.or.kr/user/intro.do>
- 서울시 동작구청, <https://www.dongjak.go.kr>
- 서울시 마포구청, <https://www.mapo.go.k>
-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http://www.bukedu.or.kr/home/homeIndex.do>
- 서울시 성동구청, <https://www.sd.go.kr>
- 서울시 성북구청, <https://www.sb.go.kr>
- 서울시 중랑구청,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do>
-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https://www.jbedu.or.kr/>
-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supportJobSys.do>
-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http://www.suwon5060.or.kr/web/>
- 쌍글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 양천구 50스타트센터, <https://www.50plus.or.kr/ycp/index.do>
- 장년워크넷, <https://www.work.go.kr/senior>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https://www.fkilsc.or.kr/sub04/sub04_1.html
- 전라북도 전주시청, <https://www.jeonju.go.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한국 폴리텍대학, <https://www.kopo.ac.kr/intro.do>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 <https://www.aarp.org/>
- Australia Government Labour Market Insight.
<https://labourmarketinsights.gov.au/>
- Australian Men's Shed Association(AMSA). <https://mensshed.org/>
- Japanese Social Services . <https://jss.ca/en/>
- National PACE Association. <https://www.npaonline.org/>
- North Balwyn Community Men's Shed Inc..
<https://www.northbalwynmensshed.com/home>
- Phinney Neighborhood Association(PNA). <https://www.phinneycenter.org/>
- San Diego County Sheriff's Department 홈페이지.
<https://www.sdsheriff.gov/community/you-are-not-alone>



부 록

부록1. SCSEP 초기사정지

부록2. SCSEP 과제기술서

[부록1] SCSEP 초기사정지(SCSEP Initial Assessment Form)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 초기 사정지				
섹션1: 일반적 정보				
참여자 이름: _____		사정일자: _____		
1. 귀하가 SCSEP 프로그램에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신문 ☐ 전단지 ☐ 지인 ☐ 소문을 통해 ☐ 기타				
2. 이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무엇을 제공하기를 바라십니까?				
☐ 재정적 안정성 ☐ 사회화 ☐ 새로운 영역에서의 훈련 ☐ 컴퓨터 능력 향상 ☐ 기타				
섹션2: 일경험(이력)				
가장 최근 이력부터 작성해주십시오.				
가장 최근 직장명(고용주)		해당 사항 모두 선택	시작일	
직무		☐ 유급 ☐ 무급 ☐ 자원봉사 ☐ 전업주부	종료일	
직무내용			퇴사(일종단) 사유:	
			보수/임금액:	
			주당 근무시간:	
직장명(고용주)		☐ 유급 ☐ 무급 ☐ 자원봉사 ☐ 전업주부	종료일	
직무			퇴사(일종단) 사유:	
직무내용			보수/임금액:	
			주당 근무시간:	
직장명(고용주)		☐ 유급 ☐ 무급 ☐ 자원봉사 ☐ 전업주부	종료일	
직무			퇴사(일종단) 사유:	
직무내용			보수/임금액:	
			주당 근무시간:	
1. 이전 직업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는 같은 종류의 일을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3. 귀하는 통근을 위해 몇 분, 또는 몇 마일까지 이동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구직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 ### 섹션3: 교육 및 훈련 경험

104

1.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또는 기술 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예: 실무간호사(LPN) 용접, 간호조무사, 미용 등)
2.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수강하고 있는 훈련 및 수업이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소/기관은?

4. 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직업의 유형의 예로 보건의료인/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경찰, 종업원, 안내원 등이 있습니다.

☐ 예(아래 추가 설명)

☐ 아니오(아래 추가 설명)

5. 귀하는 공구/사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는 기계, 사무기기, 삽, 공구, 트럭 등을 사용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의 예로는 건설업, 에어컨 및 난방 기술자,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수리공, 전기 기술자, 용접공, 트럭운전자, 컴퓨터 수리공, 기계공, 일본 노동, 경비 및 관리인, 유지보수 작업 등이 있습니다.

☐ 예(아래 추가 설명)

☐ 아니오(아래 추가 설명)

섹션5: 지원(복지) 서비스 욕구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재 귀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동(차량, 교통 등) ☐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 보험 등록 ☐ 업무 차량 ☐ 주유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 지원	직업준비/직업탐색 ☐ 집에서 컴퓨터 또는 프린터 사용 ☐ 인터넷 연결 및 메일주소 만들기 ☐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 업무용 자동응답기 사용 ☐ 업무용 전화 ☐ 이력서 및 커버레터 만들기 ☐ 구직 방법 배우기 ☐ 면접용 옷 마련	주거 ☐ 생활 필수품(음식, 옷) ☐ 나만의 공간에서의 거주 ☐ 공과금 등 미납금 해결 ☐ 전화기 ☐ 월세/담보대출 미납금 해결 ☐ 월세 증가에 대한 우려
건강 ☐ 눈 검사/안경 맞추기 ☐ 술 줄이기 ☐ 약물 사용 줄이기 ☐ 치과 치료 ☐ 미용/위생용품(화장품, 치약, 비누, 데오드란트 등) ☐ 특수시설/공간(이유) ☐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서 ☐ 오래 앉거나 서있을 수 없어서 기타 : _____	개인/가족 ☐ 자신감 향상 ☐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 좌절감, 분노, 혼란 줄이기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상담 ☐ 금전 관리 방법 배우기 ☐ 가족 빚/대출 갚기 ☐ 보육/돌봄 지원 ☐ 과거 범죄 및 법적 문제 해결	기타 ☐ SCSEP 급여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임 ☐ 기타 욕구 : ☐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완료 ☐ 참여자가 서비스 연계 거부 ☐ 현시점 연계 가능한 자원 없음 ☐ 현시점 지원 욕구 없음

동의서

나는 초기사정(면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 동의합니다. 사정 과정 에서 내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참여자 서명

날짜

관리자/직원 서명

날짜

섹션6: 직업역량 평가

교육(기초 능력)	직업유지	직업준비
☐ 대학위 또는 검정고시 자격증 없음 ☐ 유창하지 못한 영어 ☐ 중2수준 이상의 문해력, 문제해결 능력, 읽고, 쓰고 말하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음 ☐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문해력, 제해결 능력, 읽고, 쓰고 말하는 능이 갖추어지지 않음 ☐ 기타:	☐ 집에서 컴퓨터 또는 프린터 사용 ☐ 지난 1년동안 풀타임(주 32시간 이상)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험이 없음 ☐ 직장에서 해고된 적 있음 ☐ 과거에 슈퍼바이저/직장동료의 문제가 있었음 ☐ 과거에 개인적인 문제(약물, 정신건강, 행동 이슈 등)가 직장 생활을 방해한 적 있었음 ☐ 기타:	☐ 생활 필수품(음식, 옷) ☐ 집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음 ☐ 인터넷 연결 및 이메일 주소가 없음 ☐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름 ☐ 업무용 자동응답기가 없음 ☐ 휴대폰이 없음 ☐ 이력서 및 커버레터가 없음 ☐ 지난 몇년간 구직활동을 하지않음 ☐ 지난 10년간 불완전고용 경험 이 있음
* 체크된 사항을 바탕으로 IEP 목표를 세우십시오.		

섹션7: 적성검사

적성검사 결과를 사정지와 함께 첨부해주세요. (기관별 양식 자유)

섹션8: 종합 사정결과

직업 역량	훌륭함 (Excellent)	좋은(Good)	보통(Fair)	향상 필요 (Needs Improvement)	사정 불가/재사정 일자
참여자자의 커뮤니티 서비스 수행 및 취업 가능성(잠재력)은	☐	☐	☐	☐	☐ /날짜:

참여자자의 선호와 잠재적 취업 목표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 과제 3가지를 기재하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원자료 : Center for Workforce Inclusion(2021).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 Initial Assessment Form.

과제/직업훈련 정보

13. 배정 일자:

14. 훈련 시작일:

15. 훈련 종료일:

15a. 훈련 미참여(휴가) 기간:

15b. 미참여 이유: ☐ 가족/건강 ☐ 행정처리 ☐ 개인사유 ☐ 기타:

15c. 미참여 기간에 대한 추가 의견 :

16. 참여자 배정 기관 유형 : ☐ 정부위탁 사업 수행기관 ☐ 협력기관 ☐ 기타:

17. 배정된 지역사회서비스 코드

- | | | |
|-------------------|---------------|--------------|
| G1. 교육 | G6. 환경 품질 | G11. 상담 |
| G2. 건강 및 병원 | G7. 공공근로 및 교통 | G12. 보존 |
| G3. 주택 및 재건축 | G8. 사회복지 | G13. 커뮤니티 개선 |
| G4. 고용지원 | G9. 법률 | G14. 기타: |
| G5. 레크리에이션, 공원, 숲 | G10. 금융 | |

18. 참여자 보상 코드:

19. 분기별 임금:

20. 훈련 유형

- ☐ 일반훈련(기초능력) ☐ 특별훈련(특정 직업/산업) ☐ 직업훈련(On-the-job experience)
☐ 기타 ☐ 없음

20a. 복지(지원) 서비스 유형

- ☐ 돌봄지원(아동, 성임) ☐ 건강 및 의료서비스 ☐ 주거, 임시거처 포함
☐ 작업화, 배지, 유니폼, 안경, 공구 등 부대용품 ☐ 생활비(공과금 및 식료품)
☐ 직업관련 또는 개인 상담 ☐ 교통/이동 ☐ 기타:

20a.2.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일자:

20a.3. 복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 i. 정부위탁 사업 수행기관 ☐ ii. 인력 협력기관 ☐ i와 ii모두 ☐기타:

21. 분기별 유급 훈련 시간:

21a. 분기별 병가일수:

22. 기타 의견 :